사찰행정 전산화 선두 업체
아란타 달마 for windows 95
본말사, 총무원, 기타 사찰업무 프로그램 개발
정직과 신용의 아란타 전화 : 代(02)3142-0108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7월 8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 181 호

연꽃같은 보살

"다시 태어나도 봉사하며 살고 싶다는 청련화보살의 거룩한 뜻이 세세생생 이어지소서…."

7월1일 오전 8시 서울 안암동 고려대 의과대학 내에 있는 감은탑(感恩塔) 앞. 보살행을 생활화해 오다 입종하는 순간까지 자신의 시신을 의과대학에 기증한 윤연순(불명 청련화·향년 52세) 보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작은 법회가 열렸다.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유족과 도반들은 모두가 소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리없는 울음으로 고인의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10여년간 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던 청련화 보살. 정릉 여래사 신도회장과 길음복지관 사랑봉사회 회장을 맡으면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 자비의집 무료급식소, 불교자원봉사연합회 봉사현장 등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나 그녀가 있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췌암 선고. 지난해 부부가 함께 발심해 생명나눔실천회에 서약한 그대로 각막 2개를 시각장애인



2명에게, 시신을 고려대병원에 교육용으로 남겼다. 일년 내내 연등을 만들어 어디든 나누어 주는 보시행으로 '연꽃잎 보살'로 불리우던 그녀.

입원후에도 문병 오는 도반들에게 "문병 올 시간에 봉사나 열심히 하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한 보살행을 실천한 데에는 그녀만의 이유가 있었다. 봉사활동을 나가기 전이나 돌아온 후에는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등 경전을 독경하며, 마음가짐을 항상 새롭게 했다.

조교사 자격증을 받았을 정도로 교리공부에도 몰두하는 한편 '가정의 법당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남편 하경선(57·KBS 근무)씨도 불교에 귀의시켜 〈금강경〉을 8번이나 사경케 했으며, 자식들도 철저히 불교적으로 교육시켰다.

"지금 생각하면 그분은 지혜와 덕성을 겸비한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던 같아요"

항상 '형님'이라 부르며 봉사활동을 같이 해 온 금강심(46) 보살은 '연꽃잎 보살'을 이렇게 회상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인터넷 부다피아 새 단장

현대불교신문이 운영하는 불교전문 인터넷 부다피아가 이용자들의 최대한 편의를 위해 8일부터 새롭게 단장합니다. 효율적인 정보 분류와 간소화된 이용 단계로 신속하고 정확하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부다피아 주소: www.buddhapia.com

8월18~22일 백양사서

국제 '무차선회' 열린다

고승법회·학술회·禪 워크숍 등…인터넷 생중계도

조사선(祖師禪)의 전통 계승을 통해 정신적 위기에 처한 인류에게 해결의 길을 제시하기 위한 '국제 무차선회(無遮禪會)'가 오는 8월18~22일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개최된다.

'무차대회'란 오랜 전통을 지닌 불교의식으로, 아무런 차별없이 광등하게 재법(財法)을 설하는 법회. 〈관련기사 3면〉

이번 무차선회는 경제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뿐아니라 물질문명의 극대화로 인류가 겪고 있는 위기에 한국불교가 어떻게 빛을 던져줄 것인가를 집중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차선회는 △한국고승대법회 △ 국제학술대회 △신도 선 워크숍 △큰스님 사진전 등으로 진행되며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에 홍보된다.

8월18일 열리는 '한국고승대법회'는 전국 선원의 수좌스님들이 대거 참석하는 가운데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옹스님 조계종 원로회의장 혜암스님 해운정사 조실 진제스님이 '선'에 대해 설법한다.

8월19~22일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는 5개국 15명의 불교석학들이 참가, 조사선의 중점 조명을 통해 중국과 일본, 서구에서의 선불교에 대한 이해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학자로는 김지견(전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김용정(전 동국대 교수) 성본스님(동국대 교수) 종림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장)과 국외 학자로는 박성배(뉴욕주립대 교수) 루이스 랭카스터(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등이 참가할 예정.

특히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비백교학연구소(소장 혜욱스님) 인드라넷(Indranet)의 후원으로 전세계에 인터넷을 통한 생중계를 계획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회에 앞서 7월10일부터 백양사는 무차선회 홈페이지(http://www.indranet.net/kobul)를 개통, 본격적인 홍보작업도 펼친다.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은 "오늘날 안간이 겪고 있는 여러 위기들이 잘못된 인간 이해에서 기인한다고 본 서옹스님의 뜻에 따라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아교도가 한밤중에 제주 원명선원 법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본존불이 파손된채 법당에 나뒹굴고 화강암으로 조성된 천불단의 7백50여 구 불상은 목이 잘려 나갔다. 〈사진제공=한라불교신문〉

이럴수가 … 제주 원명선원 이교도 침입 삼존불·관음상·천불 훼손

6월26일 새벽1시30분경 제주시 화북1동 조계종 원명선원(주지 대효)에 이교도 김수진(32·도련1동)씨가 침입해 대웅보전에 봉안된 삼존불, 옥불, 백의관음상, 천불 등을 훼손시켰다.

대웅보전 천불단에 봉안된 높이 33cm 크기의 불상 7백50여구는 목부분이 두 동강으로 잘려 나가는등 곳곳이 흉칙하게 파괴됐다. 이밖에 불단과 불구 등도 훼손됐다. 범인은 현장에서 사찰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사찰에 찾아와 고성으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물론 "부처는 하나님의 제자다. 절을 교회로 바꿔야 한다"고 선교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불교총연합회(회장 중원)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사건의 진상을 파악키로 했으며 조계종 호법부도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원명선원측은 "관신적 이교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사건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처벌해야 한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공원공단 예산 지원 정부, 3년내 중단 검토

정부 기획예산위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예산지원을 3년내 중단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산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단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은 "입장료의 폐지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전제로 가능한 사안"이라며 "정부측과 계속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국립공원의 입장료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공단에 대한 예산지원의 중단은 공원의 훼손과도 직결되는 일인만큼 정부가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태고종 승정 충담스님 燒身 입적 22면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제1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현대불교신문은 미래불교의 주인공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여름방학을 이용한 어린이캠프를 엽니다. 사찰과 용인 에버랜드의 자연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고 맑은 심신을 길러주는 '부다피아 어린이캠프'는 새싹불자들에게 유익하고 신나는 시간이 될것입니다. 불자임이 자랑스럽고 함께 있음이 즐거운 어린이 연합캠프에 많은 어린이불자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용인 에버랜드·사찰에서 '2박3일'

◇일 정: 1998년 7월23일(목)~25일(토)(2박3일)
◇장 소: 용주사 신륵사 목아박물관 와우정사 경주사 백령사 에버랜드
◇대 상: 초등학교 1~6년 (5백명 선착순)
◇특 징: △불교문화유적 답사 △에버랜드서 숙식놀이시설·수영장 캐리비안베이시설 이용 아미타전 관람 △불교레크리에이션·야침저녁 예불·참선, 불교교리 공부 △T셔츠 기념품 선물 제공
◇준비물: 23일 점심, 수영복, 수영모자, 세면도구, 필기도구, 이불
◇집 결: 23일 오전10시 조계사
◇참가비: 5만원
◇문 의: 현대불교신문 (02)732-1523, 722-4162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현대불교신문사 진행:선재이벤트
후원:조계종 포교원·진각종 통리원·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협찬:불교조각원·현대프로덕션·(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불교문화 체험기행

7월 불교문화 체험기행에서는 윤 5월을 맞아 3사 순례와 더불어 자신의 업장을 씻고 선업쌓기를 발원하는 재의식인 예수재 범패가 열리는 현장을 찾아갑니다.

이번 기행에서는 대웅전에서 바라보는 등해안 일출로 유명한 등명낙가사, 현재 국보 심의중인 철불이 봉안돼 있는 두타산 삼화사, 적멸보궁으로 유명한 정선 정암사 등을 참배하며 '모래시계' 촬영지로 잘 알려진 정동진 해맞이도 합니다.

7월 "윤오월 3사 순례로 무량공덕을"
'삼화사·등명낙가사·정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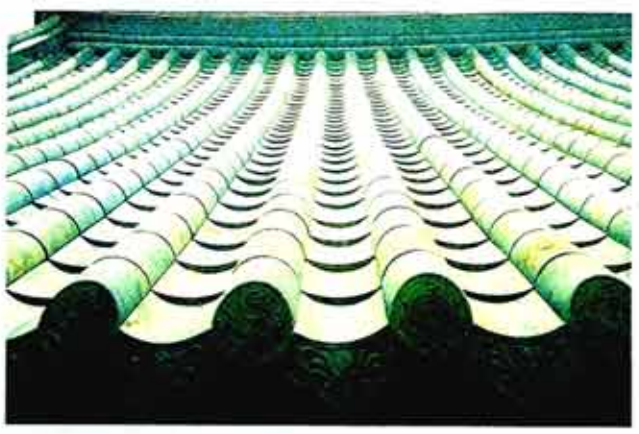
◇출 발: 7월 11일(토) 밤10시 조계사 앞(무박2일)
◇회 비: 4만원(아침·점심 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 8월 불교문화체험기행은 여름휴가 관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최:현대불교신문사 주관:혜초여행사 협찬:일양약품

한장한장에 혼을 넣어 장인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 기와불사는 청동주물기와로 시작하십시오.

청동주물기와 600여년만에 복원성공!





특 허 출 원 제 15145호
실용실안등록 제 119053호
의장등록출원 제 15785호

KBS 1TV「체험 삶의 현장」
96년 9월 9일 방영

● 특장점 ●

■ 내구성 및 경제성
재래식기와의 무거운하중(평당 600~700kg)과 잦은 동파 및 부식으로 건축수명이 단축됨을 청동주물로 주조하여(평당 200~300kg)으로 중량을 대폭감소 하였으며 천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리, 주석, 아연을 합금하여 만들었습니다

■ 방수성
점토, 백토, 감회를 혼합하여 건고히 시공하여 기와 시공시 1m/m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특수한 가구처럼 시공되므로 100%방수를 자신합니다

■ 미관성
청동제품의 진가는 수천년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후감을 풍기어 왔으며 청동주물기와도 세월과 함께 고풍미를 더해가며 변치않는 영원한 멋을 자랑하여 우리의 시설 및 건축물을 더욱 품은 감동으로 디자인해 줄 것입니다

■ 영구성
청동제품의 수명은 수천년전에 사용하던 유물들이 땅속에서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출토되듯이 영구적이며 건축물노화로 인한 재시공시에도 100% 재사용됩니다.

주요시공내역
1986년 86아세안게임 이동성화로 제작
1988년 88올림픽, 동일대종조각, 주조
1986~1996년 광주, 전주, 청주, 여수, 전국체전 성화대조각 청동주물 제조
1992~1996년 일본마이니비 갤러리 청동주물 공예품, 납품
1995년 3월 경남 함안 안씨문중 제각 청동주물기와 시공
1995년 10월 서울 삼각산 삼각사, 대웅전 청동주물기와 시공
1995년 5월 천안 각원사에 경주 황룡사 유물을 치비 국내최초로 복원 시공
1996년 3월 ,부산 범어사 (청련암) 대웅전 청동주물기와 시공
1996년 5월 LG그룹 구씨문중제각 청동주물기와 시공
1997년 청풍 영각사 대웅전 시공. (그외 다수 시공중)

⊙ 함께 일할분을 모십니다. ⊙
· 전국대리점 모집(각도별)
· 수출 및 무역, 사업에 동참하실 분

우영기업
본 사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295
주 물 사 업 부 : 02)473-1958
인테리어사업부 : 02)482-3587
F A X : 02)474-1550
http : //www.wooyong.co.kr/

사 설

미래불교 가꾸는 이들

미래의 불자들을 키워내는 불사들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은 불교계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크게 걱정해오는 일이다. 어린이 포교, 군포교 등 미래의 불교를 결정지을 분야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과 투자는 다른 종교에 비하여 너무도 부족하며, 이러한 양상이 계속된다면 지금 대형의 불사들이 아무리 많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미래의 불교는 황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커다란 사찰들과 부처님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참배할 불자들이 없다면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너무나 비관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나, 우리 불교계가 그동안 보여온 행태가 이런 우려를 낳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나밖에 없던 어린이불교잡지가 교계의 무관심과 방치 아래 폐간되고 말지 않았던가. 새싹 포교를 위한 유치원 시설 등에 대한 타 종교와의 비교 수치를 보면 또 어떠한가.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불교 신도의 비율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극단적인 우려를 잠재우며 불교가 아직 소생력이 있다는 희망찬 증거가 될 수 있는 움직임들이 요즈음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일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교계에서 개최되는 어린이 지도자 연수교육이 다양해지고 있고, 또 참여율도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어린이들에 대한 포교는 '큰 스님'들 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불교가 젊은 층과 어린이 층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관심과 취향에 맞게 불교를 가공하여 전하지 못한다는 점일 것이다. 아직도 불교가 쓰고 있는 구시대적인 너울, 이것이 젊은 층들에게 불교를 멀게 느끼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젊은 층, 어린이 층에 뛰어들어가 그들과 직접 호흡을 같이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지도자의 양성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바로 이 분야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불교의 앞날에 커다란 희망을 느끼게 한다.

교계는 이러한 희망찬 움직임에 더욱 힘을 보태어 그것이 큰 흐름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어린이지도자 양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그렇게 양성되어 나온 지도자들이 뭘 수 있는 무대를 더욱 더 많이 확보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도자들이 불교계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나아가서는 평생을 몸바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린이 포교에 힘을 바치다, 고군분투의 오랜 세월을 견디지 못하여 결국은 비분의 눈물을 삼켰던 많은 분들이 있다. 이러한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이어져야지, 그렇지 못해 새롭게 일어나는 이러한 움직임이 사그러들게 된다면, 또 긴 세월의 암담함이 계속될 것이다.

이 기회에 교계는 미래 불교를 좌우하는 어린이 포교문제에 대해 일대 의식의 전환을 이루어야만 한다. 부처님 앞에 자신의 자녀를 위한 기도 드리는 일 못지 않게, 직접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포교사업에 힘을 보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 '복'을 짓는 일임을 교계 지도층들이 앞서서 천명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깨인 의식을 지니게 된 불자들의 힘이 모여 교계 어린이 지도자들이 몸바쳐 봉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는, 빛나는 불교의 앞날을 일구어내야 하겠다.

"교육기간-교과과정 조정 필요"

조계종 '행자교육원 운영 개선' 설문

의제 · 호칭 구분 60% 이상 찬성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이 5월 1일~20일까지 기초교육기관인 행자교육원 운영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자교육 개선의 우선과제로 '교육기간의 조정(37.3%)', '교과과정의 개선(31.4%)', '교수방법의 개선(22.5%)' 등이 지적됐다.

전국 교육 교역직, 본사 소임자, 종회의원, 전문교육기관 학인 등 1백14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행자를 단순한 노동력이나 문중 세력확장 수단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45.7%)면서, 종단적 교육 내용과 제도의 통일성 결여(22.9%)를 가장 큰 행자교육의 문제점이라고 답했다.

행자교육원 교과과정의 문제점으로는 44.9%가 교과목이 너무 형식적이라고 답했으며, 14.3%는 교과목 과다를, 13.3%는 교재간 체계성과 통일성 결여를 들었다. 또 기초교육과정에서의 필수 이수과목으로는 위의문·습의 14.8%, 사미(니) 율의 13.9%, 부처님 생애 9.4%, 초발심자경문 8.2% 등의 순으로 꼽았다.

행자의 출가사찰에서의 수학기간에 대한 설문에서는 47.3%가 현재의 6개월이 적당하다고 답했으나,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43.8%로 나타났다. 행자교육원에서의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3주에서 1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대답이 30.6%였으며, 23.1%는 6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행자교육의 관리방향을 묻는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70%가 사찰, 본사, 행자교육원의 현재 방식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중인 의제구분에 대해서는 68.2%가, 스님과 사미(니) 호칭구분에 대해서도 6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원은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5일 '행자교과목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9월 열리는 제15기 행자교육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입학시기 통일 '논의'

전국승가대 학장회의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은 26일 총무원 4층에서 전국 승가대학 학장회의를 열고, 승가대학 현황파악을 위한 교육원장 순회강연, 입학시기 통일, 교직자 연찬회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학장회에서 암도스님은 "사미(니)의제 시행과 승가대학의 현황파악 등을 위한 순회강연을 법주사를 시작으로 실시한다"면서 "새 의제를 실시하지 않는 사찰에 대해서는 총무원 호법부와 교육원이 합동으로 실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주제의 보광스님(동국대 교수) 특강도 진행됐다.

이은자 기자

군복입고 서울역서 선교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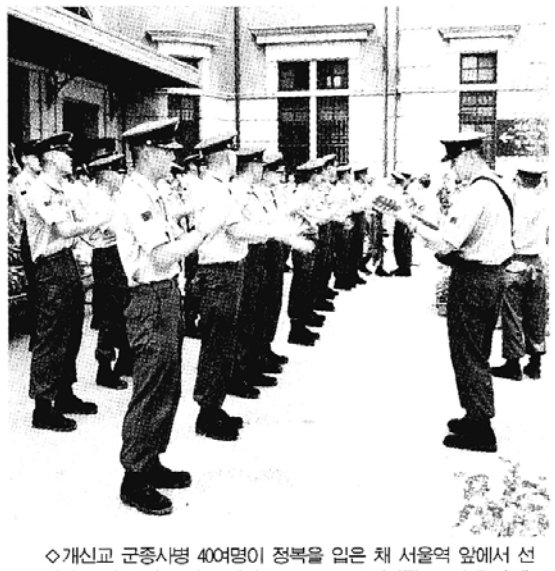
종교편향대책위, '공공장소 선교금지' 촉구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공공장소에서 개신교 군종사병들이 군복을 입은 채로 선교행위를 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해병 0사단 개신교군종사병 40여명은 6월27일 오후2시부터 30여분 동안 서울역 정문옆 광장에서 3렬로 줄을 맞춰 기타를 치며 찬송가를 부르면서 선교행위를 했다. 이들은 특별휴가를 얻어 25~27일 경기도파주의 한 기도원에서 열린 '98기독군인 영성수련회에 참석하고 귀대하는 중이었다. 지난해 12월에도 개신교군종사병들이 서울역 앞에서 선교행위를 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군종실은 1일 "현재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교편향대책위원회(공동대표 송강, 원혜스님)의 한 관계자는 "지나친 선교활동이 우리 사회 종교갈등 및 종교불신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개신교 군종사병 40여명이 정복을 입은 채 서울역 앞에서 선교행위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성경책에 손얹고 송파구청장 취임선서

구청장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선서를 해 지역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 송파구 김성순구청장은 1일 구청내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것. 김성순구청장은 이번이 민선 두번째 취임식. 김구청장은 지난 취임식에서 이같은 행동으로 인해 물의를 빚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구청내에서 개인적인 신앙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불자들은 "공인인 구청장이 직접 취임선서를 특정종교에 의지해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계에서 이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며 분개했다. 또 구청의 한 직원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고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편향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한편 송파구청 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 취임식에서도 그랬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中信會 '사공이 둘'

송회장, 직대체제 불인정 사표반려

중앙신도회 대표가 누구냐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송재건회장이 소집한 운영위원회에서 송회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김한곤 직무대행체제를 인정치 않기로 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34명의 운영위원 가운데 송재건회장을 비롯 13명의 운영위원들이 참석(9명은 위임)한 이날 운영위원회는 △송회장이 김한곤부회장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지명한 것은 회칙에 위배된 것을 확인하며, 지명자체가 무효이며 △송회장과 김부회장 사이에 이루어진 업무인계인수는 회장직 인계인수가 아니라고 결의했다. 또 송회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직무대행체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송회장은 이같은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을 6월31일 총무원에 보고했다.

송회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도 사의에는 변함없다"며 "멀지 않은 시기에 회장 대행체제를 세우고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의 중앙신도회 담당관계자는 2일 "김한곤 직무대행을 인정한 6월22일자 공문은 '김한곤 회장직무대행을 선임했다'는 중앙신도회의 보고에 입각한 것"이라며 "종단은 합법적인 회장이 들어설 때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총무원의 이같은 입장은 '대의원총회 개최, 새 회장 선출'이 문제해결의 방법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운 기자

쌍계사 후임주지 고산스님 추대



조계종 제13교구 쌍계사는 선곡스님의 사임으로 공석중인 주지에 고산스님을 추대했다. 쌍계사는 6월 26일 산중총회를 열고 현 조실인 고산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 했다. 임연태 기자

설조스님등 심리 보류

조계종 재심호계원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고산)은 2일 불국사주지 설조스님 등 9명이 청구한 재심을 심리했다. 재심호계원은 불국사주지 설조스님과 前 송광사주지 현고스님, 종회의원 법일스님, 진현스님의 심리를 보류키로 의결했다.

또 5월 11일과 22일 열린 초심호계원에서 제적받았던 해선스님(관음정사주지)과 공권정지 판결을 받았던 법조(고운사주지 3년) 지성(옥천사주지 1년) 영수(건봉사주지 5년) 원정(운흥사주지 1년)스님들에 대해서는 문서견책을 의결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정각회 새 회장 추천

임원회의 9일까지 협의

국회 정각회(회장 서석재)는 3일 임원회의를 갖고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서석재회장의 후임자를 9일까지 추천키로 했다. 이날회의에 참가한 권익현 김명윤 고문 전용원간사장 하순봉 조성준간사등은 서석재회장에게 새 회장 선출문제를 일임키로 했다.

현재 박상규 국민회의 연등회 회장, 박철언 자민련회장, 국민신당 서석재의원이 새 정각회장에 뜻을 두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스님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 燒身供養 肉身登空 ·

僧正 沖湛堂 圓相大宗師 추모법회 안내

- 人 事 말 씀 -

韓國佛敎太古宗 僧正 沖湛堂 圓相大宗師 永訣式을 지난 六월 二十九日 虎鳴山 甘露寺에서 四部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엄숙하고 여법하게 봉행하였습니다.
이번 葬禮에 동참하시어 物心 양면으로 협조를 해주신 元老大德스님을 비롯한 신도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弔花와 弔電등 弔意를 보내주신 人士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沖湛스님의 燒身供養에 대한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신 각계 언론사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올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압니다만, 우선 이렇게 지상을 통해 인사를 드립니다.
海諒이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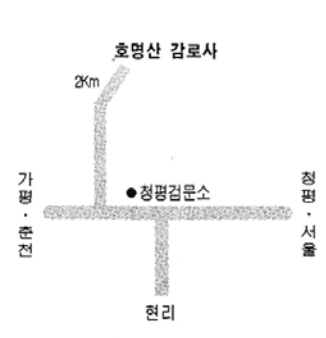
불기 2542년 7월 일

「韓國佛敎太古宗 僧正 沖湛堂 圓相大宗師 추모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初 齋 : 7월 3일 10시 승가사(서울 왕십리)
二 齋 : 7월 10일 10시 승가사(서울 왕십리)
三 齋 : 7월 17일 10시 승가사(서울 왕십리)
四 齋 : 7월 24일 10시 승가사(서울 왕십리)
五 齋 : 7월 31일 10시 승가사(서울 왕십리)
六 齋 : 8월 7일 10시 승가사(서울 왕십리)
七 齋 : 8월 14일 14시 호명산 감로사



♠ 서울 승가사 약도 ☎292-3418



♠ 호명산 감로사 약도 ☎0356)84-0117

※ 49재 당일 9시 30분에 승가사에서 버스 출발.
※ 49재에 동참하는 분께는 「염불」책자 법보시함.

恩法上座 李智性 門徒代表 李道性 · 林慧山

韓國佛敎太古宗 僧正阮葬 葬儀委員長 洪印谷

조계종 신도등록 '답보상태'

3년에 13만명 '예산낭비' … 폐지론도
신도조직화 - 신행확산 위해 동참해야

조계종총무원이 추진하는 신도등록 및 신도증발급 사업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이같은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있었다. 6월 26일 열린 관람료합동징수사찰 주지회의. 포교원은 이 회의에 신도증 소지자의 관람료사찰 입장료 면제를 안건으로 상정토록 요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회의를 앞두고 안건상정 요청을 취소키로 했다. 신도등록 사업의 성과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은 뻔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신도등록 사업은 95년 10월 △신도의 조직화 △정기적 신행 확산 등의 목적으로 시작, 지난해 9월 10만명을 기록했다. 신도등록 사업은 애초 총무원 사업이었으나 포교원에 이관, 현재 포교원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6월말 현재 등록신도 수는 13만여명. 96년 5만7천여명에서 지난해는 5만3천여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는 1만8천여명에 머물러 큰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직할교구와 15교구(교구본사 통도사)를 빼고는 모두 1만여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등록한 13만명 가운데 신도교무금 재납부자는 2만명에 그쳤다.

이에따라 과감히 폐기하자는 의견도 있다. 조계종단의 조직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결과 이상의 성과를 걷지 못했고,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신도등록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 뻔하니 더 이상 인력과 예산낭비를 하지 말자는 것이 폐기론의 이유이다. 종단 내에서도 신도등록 사업이 실패작임을 인정하고 있다. 중앙종무기관에 재직중인 한 스님은 지난 4월 어느 교구 본말사주지 간담회에서 "개혁회의 때 젊은 스님들이 검증없이 신도등록 조항을 만들어놨다"는 말도 했다.

종단 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신도의 조직화와 정기적인 신행의 확산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신도등록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현장발급에 나서기로 하고 전법도량 현관식 현장에 나가 신도증을 즉석발급해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 의존할 수도 없다. 포교원의 한 스님은 신도등록율이 저조한 원인을 "주지스님들의 철저한 무관심과 여기에 적극적이지 못한 총무원의 태도"라고 분석하고 총무원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지역의 한 사찰 주지스님은 "종단의 사업에 협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사중의 여러 일들 가운데 신도등록은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해 일선 사찰에서의 무관심을 숨기지 않았다.

포교국장 성수스님은 "이 사업의 폐기를 선언하든지, 전법의 해 3차년도인 내년을 '재적사찰 갖기 및 신도등록의 해'로 정해 종단적 차원으로 신도등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신도교육의 해'의 연장으로서 교육된 신도의 신도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단의 방침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설명이다.

또 교구본사가 책임지고 신도등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중앙종무기관의 행정력이 말사까지 미치는데는 한계가 있으니, 교구단위별 추진이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이유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3년째에 이른 즈계종 신도등록에 13만명에 그치고 있어 이 사업을 폐지하든지, 종력을 집중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사진은 봉은사에서의 신도증 즉석발급 장면.

목어 십시일반

옛날에 한 스님이 밥을 얻기 위해 산에서 내려왔다. 마을에 당도하기 전에 사나운 비바람을 만났다. 마침 길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과수원이 있어 스님은 그곳에 가서 비를 피했다.

과수원지기는 나무를 가져다 불을 피워 스님의 젖은 옷을 말렸다. 비가 뜸해 지면서 스님의 옷이 다 마르고 몸도 따뜻해졌다.

스님이 옷을 입고 나가려하자 과수원지기가 물었다.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출가한 몸이라 밥을 빌어 목숨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난한 제집의 음식은 보잘것이 없으나 괜찮으시다면 여기 계십시요."

"수행하는 사람은 먹을 것을 구하는데 빚깔과 맛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배를 채우면 되니 허락하신다면 더물겠습니다."

과수원지기는 밥을 가져오기 위해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밥이 다 됐소."

"예, 다 됐어요."

"소중한 손님이 과수원에 오셔서 대접을 해야하니 내 밥을 가져오시오."

"여보, 당신은 노동을 하는터이니 밥을 자시지 않으면 일을 못하실 겁니다. 저는 여자라 집에 한가히 있으니 제몫을 가져다 드리세요."

그러자 그 아들이 나섰다.

"아버지 어머니는 늙으셨으니 잡수셔야 합니다. 제몫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이번엔 며느리가 말했다.

"시부모님과 제 남편이 각기 손님에게 밥을 주시겠다 하지만, 저야말로 나이 어리고 기운이 많아 한끼 정도 굶어도 괜찮습니다. 제 몫을 손님에게 드리세요."

가장인 과수원지기가 말했다.

"우리 식구 모두 착한 마음을 내어 보시하려하니 각자의 몫을 다같이 조금씩 덜면 손님을 대접하기에 족할 것이다."

과수원지기네 식구들은 각기 제몫의 밥을 줄여서 스님께 공양 올렸다. 〈제공재환경·除恐災患經〉에 있는 이야기다.

십시일반이란 말처럼 열사람이 한술씩 보태면 남을 쉽게 도울 수 있다. 곳곳에서 IMF 실직자를 돕고 있는 요즘 어디든 가깝게 손닿는 곳에 십시일반의 자비를 보태자. 과수원지기네 식구들처럼.

한국 조사선 전통 재확립

백양사서 여는 국제 무차선회 유래와 의의
정신-물질적 공황 반성 통해 미래 설계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8월18~22일 개최되는 '국제 무차선회(無遮禪會)'는 1921년 방한암 스님이 건봉사에서 무차선회를 가진 이후 77년 만에 처음 열리는 것으로, IMF 관리체제 등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한파로 물질적·정신적 공황(恐慌)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불교 특히 선(禪)을 통해 출구를 찾자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백양사 무차선회의 주제는 '한국의 조사선 전통의 재확립'이다. 이번 무차선회는 전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서옹스님이 평소 정신의 위기를 극복할 수있는 길은 조사선이고 오늘날과 같은 혼란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참사랑운동을 주창해 온 것과, 백양사가 실직자들을 위한 선수행교실의 연장선상에서 열리는 행사이다. 첫 행사인 8월18일 우리나라 선종의 큰 산맥인 서옹, 혜암, 진제스님이 한자리에서 설법하는 고승대법회는 전국 선원수좌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로 근래 보기 드문 법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5명의 국내외 불교석학들이 참여하는 '선'주제 학술회의는 조사선전통과 불성, 불교적 깨우침 등에 대해 조명하고 첨단과학시대에 있어 선불교의 현대적 의미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되어 티벳이나 일본선불교가 크게 알려져 있는 세계불교계에 한국 선불교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불교의 전통이 중국과 일본 한국에 남아 있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영향으로 선불교의 전통이 사라졌고, 일본은 지나치게 형식주의로 흐른 가운데,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한국의 선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불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 한국선의 전통을 바로 이어가자는 취지이다.

'무차회'는 범어 'Panca-parisad' 또는 'Panca-varsika-parisad'라 하며 승려·속인·남녀노소·귀천의 차별없이 일반대중들이 평등하게 법문을 듣고, 잔치를 열어 물건을 베푸는 일종의 법회의식이다.

원래는 인도에서 널리 행해졌는데, 아쇼카왕(재위 BC. 268~232)과 같은 유력한 국왕들이 선지식들을 모시고 차별없이 재법(財法)을 보시하는 자리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런 자리에서는 자연스레 법의 차별없는 논의가 이뤄져 '바른법을 세우기 위한 대화의 장'으로 여겨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에 '무차회'를 열었다고 하며, 주로 이 법회를 통해 백성들의 어려움을 달래주고 민심을 수습하려는 의도에서 국가가 시주가 되어 베풀었다고 한다. 〈고려사〉에는 940년(태조 23)의 신흥사 공신당(功臣堂)을 신축할 때 무차대회가 있었고, 1165년(의종 19)의 공중 무차대회, 1216년(고종 3) 10월 미륵사 공신전 중수 후 무차대회가 열린 기록이 보인다. 근대에 개최된 무차대회로는 승려의 도성출입이 해제된 1896년, 한국과 일본 승려들이 함께 경성에서 수일에 걸쳐 열었다고 〈조선불교통사〉(이능화 저)는 전하고 있다.

홍윤식 교수(동국대 역사교육과)는 "무차대회는 보시정신에 입각하여 부처님의 덕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는 신앙적 의미가 컸다"며 "이번 무차선회가 한국 선불교의 전통을 재확립 하며, 자아(自我)를 상실해가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조계종 교육원이 지난 6월 1일 해인사 범어사 통도사를 시작으로 시도 광역권에 걸쳐 모두 5차례 실시한 98년 본말사 주지연수회가 2일 충청지역 본말사 주지연수회를 마지막으로 성료했다. 이번 연수회를 총지휘한 교육원장 암도스님을 충청지역 본말사 연수가 실시된 천안 주택은 행연수원에서 만났다.

"바른 승가상 구현 정보교류"

수요 인터뷰

조계종 본말사주지 연수 마친 교육원장 암도스님

-95년 교육원 개원 이후 4번째를 맞은 이번 연수회가 갖는 의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본말사 주지연수회는 21세기를 선도할 정신문화를 계승하고 창조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감속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바른 승가상을 구현하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다양한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중속에서 살아숨쉬는 불교가 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연수회의 목적이자 의의라 하겠습니다.

-이번 연수회 과정과 성과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본사 단위에서 주지연수회를 실시해왔던데 비해 이번 연수회는 광역단위별로 총 5개 지역권으로 나눠 실시해 좋은 강의와 강사진을 선별해 효과적으로 연수회를 치룰 수 있었습니다. 또 각 본사간의 선의의 경쟁으로 출석률도 높고, 토론도 활발하게 이뤄져 명실상부한 교류의 장을 펼쳤습니다.

참여율 만족…토론활발
내년부터 '테마연수회'로

-시대상을 반영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는데요,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IMF체제 이후 스님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IMF체제와 한국경제 운영방향'이라는 경제분야 강좌의 경우, 어려운 경제용어와 최근의 경제현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도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다변화사회에 대응하는 스님들의 적극적인 포교자세의 변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밖에도 주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강의, 평화통일을 향한 화해·협력과 불교 등의 강의도 21세기를 대비하는 뜻깊은 강의였다고 봅니다.

-이번 연수회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1박2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인해 각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년부터는 한 주제를 정해 놓고, 전문가를 초빙해 '테마연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연수회에 참가한 스님들은 한결같이 연수원 건립의 필요성을 절감, 종단 연수원을 건립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원 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에 안주하는 안이한 사고에서 벗어나 다종교사회에서 불교의 역할과 책임을 공감하고 실천하는 소임자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연수와 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 현재 시행중인 사미(니)의제와 제15기 행자교육원 등 앞으로 남은 사업들을 잘 정리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 종도의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강남신관, 성남 킴스클럽, 일산 뉴코아, 수원 인계점, 평촌점, 평택점 동시 OPEN! 6월 24일 부터 7월 24일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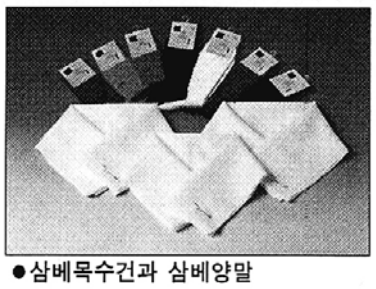
불교TV 효도상품 기획전

뉴코아 백화점 6개점 동시실시!

뉴코아 서울·경기지역

btn 불교텔레비전이 불자님들께 '명품삼베' 보급을 위해 뉴코아백화점에 효도상품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윤달의 효도를 위한 극락왕생복은 물론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해 드릴 생활용품과 마음의 양식까지 구비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뉴코아에 오시면 풍경소리가 들립니다"


●삼베목수건과 삼베양말


●불교용품


●다기류


●서적 및 팬시용품



●극락왕생복


●우리옷


●사찰전통음식

btn 가까이 있는 진리 불교텔레비전 32
btn 문화사업단
우 121-734,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전화:(02)3270-3366
팩스:(02)3270-3498

●강남신관(지하1층) : 02)530-5647 ●성남 킴스클럽(1층):0342)780-3226 ●일산 뉴코아(6층):0344)900-5602 ●수원 인계점(7층):0331)30-5705 ●평촌점(10층):0343)80-5703 ●평택점(9층):0333)50-6647



◇선진규씨 ◇한정섭씨 ◇정병조씨

전국 법사연합회 창립

공동대표에 선진규 · 한정섭 · 정병조씨

한국불교 전국법사연합회가 6월 30일 송현클럽에서 70여명의 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선진규 봉화산정토원장, 한정섭 한국불교교화원 이사장,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 등 3명을 공동대표, 김재일 동산반야회장을 사무총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회칙을 심의, 의결했다. 선진규법사는 인사말에서 "재가법사들의 역할이 발휘되어야 할 때"라며 "이 나라 불교에 새로움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는 모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법사연합회는 회칙에서 '한국불교지도자를 위한 법사교육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법사의 품계 제정 △포교당 운영 지원 △법사의 위상정립 △법사 연수과정 운영 등을 주요사업으로 전개키로 했다.

그러나 조계종이 재가자의 법사호칭 사용을 꺼리고 있고, 법사 품계의 정통성 확보 및 각종 의식의 상이점을 극복할 대안제시가 없으면 '연합회'에 걸맞는 모양을 갖춰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회장 및 감사, 지도위원, 고문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은 서울-이지행, 경기-임선교, 경북-이양길, 충청-김덕수, 경남-이하우, 전라-이득우, 여성부회장 송춘희법사. 감사-염석훈(직지사 상임포교사), 권지홍(안양 동국불교연구원장). 고문-무진장스님, 서돈각, 김철회, 박완일, 이건호, 김경복, 김용직.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교차로

평불협 전북본부 총회



원행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전북본부장 스님(무주 안국사 주지)은 3일 전주 목원가든에서 평불협 전북본부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97년 9월 월남한 장인숙씨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금강국수공장 돕기 모금활동계획과 조직활성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선운사 요사채 기공식



혜산 선운사 주지는 수행공간과 다목적 요사로 사용될 1백평규모의 요사 신축기공식을 6월29일 거행했다.

불사리 1년간 친견법회



법철 기매반야암 주지는 5월24일 인도 고승 구추체추라마 린포체 승정으로부터 네팔 카투만두 수안부 몽키캘플사원에 모셔졌던 불사리를 기증받아 1년동안 친견법회를 봉행한다.

전몰장병 유족에 성금



정련 몰운대복지관장 스님(내원정사 주지)은 6월25일 내정사에서 봉행했던 제18회 전몰장병 호국영령 및 선망부모천도법회와 몰운대복지관이 바자회에서 나온 수익금 6백65만원을 실직자 가족과 저소득 층 및 전몰장병 유족성금으로 부산서구청과 해당기관에 기탁했다.

개원 5돌기념 예술제



심산 부산포교원 주지는 6월24일 개원 5주년 문화예술제를 부산시립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제1회 어린이 연합법회

인성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제주지구장 스님은 6월28일 제1회 어린이연합법회를 죽림정사에서 개최했다.

무의탁 노인 · 실직자에 급식

성덕 불교자원봉사연합회장 스님은 4일부터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무의탁노인과 실직자를 위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천서 국제조각심포지엄

박찬갑 국제조각친선협회장은 10~24일 경기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산53 일대에서 제1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만해스님 추모재 참석

이상대 한국불교청년회장은 6월29일 망우리 공동묘지서 열린 만해선사 열반 54주기 초모법회에 대불청 임원 10여명과 함께 참석했다.

초안스님 입적



경기도 양주군 오봉산 석굴암을 중창한 초안스님이 2일오전 입적했다. 세수 72세 법랍60세.

초안스님은 1938년 금강산 건봉사로 출가, 40년 도봉산 망월사에서 동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43년 해인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봉선사 대교과를 마치고 전국 선원에서 정진하던 스님은 동암스님으로부터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오봉산 석굴암을 중창하라는 당부를 받고 45년간 석굴암 중창불사와 참선수행에 매진해 왔다.

초안스님의 열결식과 다비식은 6일 오봉산 석굴암에서 문도와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엄수됐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정조스님 입적



안성석남사 주지 정조스님이 6월 28일 새벽 5시 30분 입적했다. 세수 75세 법랍 30세.

스님은 1923년 전남 보성에서 출생, 1956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전강스님의 회상과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 송광사 태안사등 제방선원서 참선정진했다. 스님은 입적에 앞서 "인생백년일조무(人生百年一朝霧) 중생우치과일생(衆生愚癡過一生) 넘기 념멸시생사(念起念滅是生死) 만리무애만리천(萬里無碍萬里天)"이라는 임종게를 남겼다.

스님의 영결다비식은 29일 오전 10시 석남사에서 용주사주지 정락스님등 지역 스님과 신도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엄수됐다. 임연태 기자



◇최명석



◇박승현



◇유지환

삼풍 극적 구조 3人 '신심 돈독'

최명석씨 군법회 참석
박승현씨 금융사 다녀
유지환씨 호주 유학중

6월29일로 3년을 맞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극적인 구조로 생명을 건졌던 최명석(23), 박승현(22), 유지환(21)씨는 사고 후 더 신실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최명석씨는 1사단에서 신병교육을 받으면서 매주 법회에 참석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을 정도로 돈독한 불심을 보였다. 근로복지공단 복지부에 근무하고 있는 박승현씨는 금융사에서 불심을 다지고 있다. 절에 자주 가지는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늘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묵묵히 현재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유지환씨는 호주에 유학 중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Focus

호국불교 맥잇는 새 군승장교 탄생

6월30일 영천 육군제3사관학교 춘성연병장에서 열린 군종사관후보생 제56기 임관식에서 13명의 군승이 장교로 새롭게 임관했다.

이날 임관한 군종장교들은 모두 64명, 군목사 37명, 군신부 14명 등과 비교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굳게다진 입술과 다부진 어깨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과 비교되는 군포교의 장에서의 따스한 햇살을 느끼게 한다. 신임 군승들 중에서 하객의 눈길을 계속 잡았던 '장교'는 바로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용화스님. 스님 신분으로 군승 임관을 받았기 때문이다. 스님은 "도반들의 도움으로 내부반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다"며 "호국불교의 자랑스런 전통을 지키며 군포교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관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성타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혜스님, 금수선원장 도업스님, 김동신 육군참모총장, 교육사령관 박용득중장 등 3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영천=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젊은이엔 종교 · 문화 갈등없어요"

스위스 '국제문화워크숍' 다녀온 이지혜양



"젊은이는 종교·문화갈등 몰라요" 6월8일부터 열흘 동안 스위스 렝크에서 열린 국제아동기금 국제문화워크숍에 참가한 한국 대표 이지혜양(19·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한국, 이슬람교권의 이집트·요르단, 기독교권의 미국·아일랜드 등과 힌두교, 유대교, 애니미즘을 대표하는 19개국 청소년들과 10일동안 함께 생활한 이양은 "종교와 문화는 벽이 아니라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호 친교를 맺는 매체"라고 강조한다.

스위스 교육부와 유니세프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워크숍은 종교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들이 모여 '종교가 개인의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세계인들이 어떻게 화합 할 수 있는가'를 토론하는 자리.

요가를 배우고 '자아 찾기'와 같은 프로그램이 매우 좋았다는 이양은 "스스로 깨달음을 강조하는 불교철학이야 말로 무슨 일이든 진정 해야한다고 느껴야 실천하는 우리 신세대의 가치관과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워크숍에서 다른 나라 문화와 종교를 공부하고 우리의 문화가 더욱 소중해졌어요"라며 렝크에서의 기억을 더듬었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청송감호소 재소자 새빛 찾았다

교화복지선도회 주선 · 동국대 병원 무료 수술

실명위기에 놓인 청송감호소 불자 재소자가 교화복지선도회와 동국대 경주병원의 도움으로 광명을 얻었다.

교화복지선도회 회장 혜철스님은 청송 제2보호감호소 감호재소자 이용철(가명, 불명은 자광)씨가 백내장 증세가 심해져 실명위기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기관의 외진허가를 받아 지난 6월25일 동국대 경주병원에 입원, 다음날 오전 안과과장 조희태박사의 집도로 수술을 완료했다.

이씨는 6월27일 오전에 퇴원, 청송감호소에서 다시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며 부처님의 가피와 불자들의 자비행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번 수술비 2백만원은 전흥수 한국고건축 대표가 보시했으나, 동국대 경주병원이 수술비 전액을 무료로 해주는 등 불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을 실천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교화복지선도회장 혜철스님(오른쪽)이 이용철씨를 병문안 하고 있다.

실직자들에 쌀을 보냅시다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저소득 실직자 가정을 위한 자비의 쌀 보내기 운동본부'는 실직자 가정에 쌀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 국민은행: 023-21-0551-926
- 조흥은행: 390-04-261032
- 농 협: 053-12-053051 ●우체국: 010041-0339839

(예금주: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8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3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 봉 수(동국대교수) · 주 명 철(동국대교수) · 정 병 조(동국대교수) · 오 국 근(동국대교수) · 박 종(불성개발연구원장) · 채 차 석(동국대교수) · 김 영 태(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장 휘 옥(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반야사상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암도스님(교육원장) · 권 탄 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 기 종(동국대교수) · 혜원스님(동국대교수) · 윤 열 수(동국대교수)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 정 섭(금강선원이사장)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98년 6월 15일~ 98년 7월 30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회관 및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1998년 8월 1일(토) 오후 6시 (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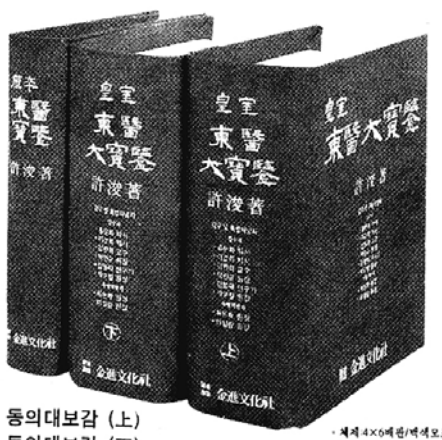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733-0333 ⊙ 부산 : 불 서 보급 사 ☎ 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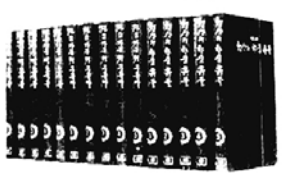
동의보감3권 가정종합대학3권

IMF 긴급자금조달 특별할인판매



동의대보감 (上)
동의대보감 (下)
동의대보감 원본
정 가 전3권:
₩650,000원

1



2

5만여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사회생활의 대총람

3



체제 신국판/백색모조/총6,000여쪽/각권 양장 케이스
박종화 문학전집 전15권 정 가 ₩120,000

월탄 박종화 선생님의 대표작
◉ 지고지는 지구름이 전 5권
◉ 이름다운 이 조국을 전 5권
◉ 청산의 한줌 흙들 전 5권

체제 4×6배판/백색모조/120아트 칼라화보사진 3,000컷/총3,000여쪽/각권 세자가죽케이스/총무게 12.5kg 염구보존

◉ 동의보감의 특징
◆ 특수처방 비법의 한방용어를 알기 쉽게 수록하였다.
◆ 돈, 량을 g으로 표시하여 알기 쉽게 되어 있다.
◆ 중세; 처방 먹는 용법이 쉽게 수록되어 있다.
◆ 기존 한약값의 1/5만 가지고 직접 한약을 지어 복용할 수 있다
◆ 기존 한의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 동의보감 특수처방 비법
◆ 학생, 수험생들의 머리가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비법.
◆ 70대가 30대의 정력을 유지하는 비법.
◆ 당뇨, 고혈압, 신경통, 류마치스를 시원하게 낫는 비법.
◆ 산후조리에서 고생하시는 분 감쪽같이 낫게하는 비법.
◆ 특수 한방요리 및 물로, 신선차 만드는 비법.
◆ 아들, 딸 구별하여 낳는 특수 비법.
◆ 특수 침술 · 지압 · 미용 수록

◉ 가정종합대학(上中下)의 주요내용
효, 예절, 얼, 가정의례, 의학, 지혜, 생활경제, 취미, 교양, 미용, 관광, 나의뿌리, 장수하는 블로초(무공해 치료식품), 한방요리, 현대의학, 자녀교육, 청소년지도, 동양철학, 관상, 수상, 돈상, 생일, 수연, 회갑, 상례, 제례, 지방, 축문, 풍수지리, 명당자리, 입춘대길, 충효, 효부, 효자, 효성, 부모자식예절, 술, 차, 의식주예절, 삼강오윤, 직위, 촌수, 명문, 종가집, 축가, 축사, 연말연시 인사, 화술, 최면술

경영실무:소기업-대기업

체제 백색모조/4·6배판/총3,000여쪽/내지 칼라사진 및 흑백사진/세자가죽 칼라카바.
표지:고급케이스 영구보존 가로 225×세로315×두께95
총무게 : 15Kg 정가 : ₩580,000

책임감수
홍문표 화사 이경재 사회 이박종구 기일 김연수 장학 박원순 장의 최돈웅 사찰 김갑배 정규 이일학 회원 박영덕

특별할인판매
● 구입방법 ●
· 정 가 : ~~390,000~~
· 특별현금가 : 148,000
· 할부가 : 49,500×4회
(02)253-3626~8
한국전통예절중앙회

건강지키는 '따주기포교'

따주기공덕연합회 발족 … 회원 4천여명
무공해식품 판매·수익금 군포교에

따주기를 통해 불교포교하는 전국 따주기공덕연합회가 발족했다.

전국 따주기공덕연합회(회장 정유진)는 6월17일 서울 수효사(주지 무구스님)에서 5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훈대종사 8주기추모법요식및 따주기연합회 결성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연합회원들은 국민건강과 불교홍포의 방편으로 따주기 요법을 정립한 성훈스님의 추모재를 올리며 약사여래정신으로 이웃사랑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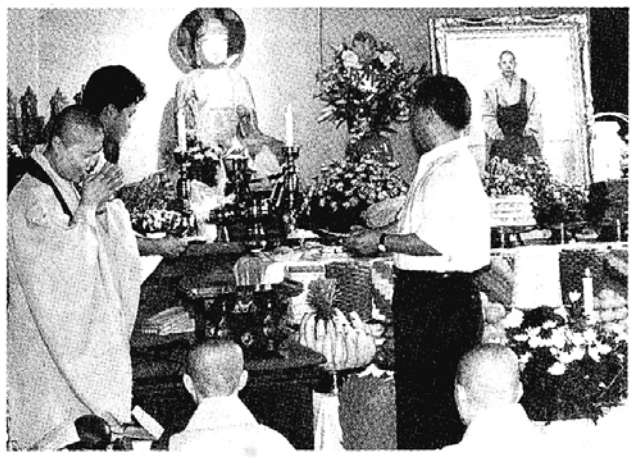
따주기연합회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전주 마산등 전국 8개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은 4천명이다. 현재 따주기를 배워 봉사하고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불자만도 3만여명을 헤아리고 있어 앞으로의 회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전통을 살려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선다'는 취지로 창립된 따주기연합회는 경북 군위에 대단위 유기농장을 마련하고 밭마늘과 홍화씨 토종꿀 두충나무등을 무공해 재배하고 있으며 소화재등 약재와 건강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 생산자와 계약하여 무공해 농·수산물을 한정적으로 직거래하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연합회 차원에서 회원제와 공판장 운영을 통해 일반판매도 할 계획이며 서울, 대구에서 매주 화, 수요일 열리는 따주기 수익금과 무공해 농수산물 유통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으로 매월1회 군부대 위문을 실시하여 군불교포교에 앞장서기로 했다.

따주기연합회 명예회장 무구스님은 "성훈스님이 남겨주신 불교포교를 향한 열정의 발자취가 거룩하다"며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서 따주기를 통해 불교를 홍포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따주기를 통해 이웃의 건강을 돕고 포교도 하는 따주기공덕연합회가 17일 수효사에서 결성했다.

한편 따주기공덕연합회는 10일 수효사내 사무실을 마련하고 따주기 강사단 발족식 및 현판식을 갖는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전북불교회관 전법도량 현판

전북불교회관(원감 회일스님) 전법도량 현판식이 6월28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포교원장 성타스님, 금산사주지 도영스님, 김완주 전주시장 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법회에서 월주스님은 법어를 통해 "어려운 시대일수록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실현이 더욱 요청된다"며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는 일이 곧 전법"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사무장 종무교육

조계종총무원(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총무원청사 1층 회관에서 전국사찰 사무장을 대상으로 한 종무교육을 실시했다. 전국사찰에서 2백여명의 사무장들이 참석한 교육에서 총무원은 99년도 사찰예결산서 작성과 처리방법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신도등록과 전법도량 지정신청절차 지방종무기관의 종무행정 표준화, 사찰에서의 실직자 지원프로그램운영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됐다.



육군 호국삼마사 군법당 낙성

육군 3군수지원사령부 호국삼마사 낙성식이 27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포교원장 성타스님, 북지원장 혜창스님, 석왕사주지 영담스님, 포교부장 원혜스님을 비롯하여 군수사령부 김태복중장, 3군수사령부 이성우소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월주스님은 법어를 통해 "6·2548주년을 맞아 군법당이 완공돼 기쁘다"며 "군불자들이 수행을 생활화하여 마음바탕자리를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사대학 구화산 불학원과 결연

한국불교법사대학(총재 법홍스님)은 6월 10~16일 6박7일간 중국 구화산 불학원에서 양국의 학인스님과 불자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연대회를 가졌다. 이 대회와 함께 자매결연을 맺은 한국불교법사대학과 구화산 불학원은 앞으로 양국의 불교발전과 불교지도자 양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불교학술문화등 불교교류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인과도리 알면 세상이 보인다"

MBC 불교연 울산·포항지부 창립

MBC불교연구회(회장 유희근)는 6월 27~28일 단양 구인사에서 사찰순례법회를 갖고 울산 포항지부를 창립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본사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울산 포항지부회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창립식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법어를 통해 "인과의 도리를 바로알고 생활하면 세상이 밝아진다"며 "불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더라도 바른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MBC불교연구회 울산지부(추진위원장 이인균 심의부장)와 포항지부(추진위원방 권오신 경영국장)는 7월경 공식적으로 창립법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MBC불교연구회 장영효총무(비상계획부장)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방사와 합동법회를 개최하여 지방사 불교연구회를 창립해 나갈 계획이다"며 "현재 제주와 호남지역 지방사에서 창립준비중이다"고 밝혔다.



◇MBC 불교연구회는 6월27~28일 구인사에서 사찰 순례법회를 개최했다.

"동체대비로 불국토 가꾸자"

천불동 서울·경기모임 첫 법회

천리안불교동호회(회장 심준엽)는 6월 28일 길상사 작은법당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경기모임 첫 정기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 참가한 이경재회원(Bud 1108)은 "불자로써 정법을 지켜 부처님께 다가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마음자리를 중요하게 써서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이 사회를 가꿔나가는데 앞장서자"고 첫법회 의의를 말했다.

이어 참가회원들은 '초발심'을 주제로 각자의 첫 인연을 공개하고 토론하는 자리도 가졌다.

천리안불교동호회는 앞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사찰에서 법회를 갖고 신행증진에 매진키로 하고 매달 법회장소는 천리안통신에 공고키로 했다.

한편 길상사는 천리안불교동호회에 대승스님의 저서 '진아여여(眞我如如)' 30여권을 보시했다.

우리 모임에선

심우회 군부대 위문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19일 강원도 양구지역 군부대 위문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는 21사단과 2사단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을 위문하고 땅굴도 참관할 계획이다. 한편 심우회는 강원도 강릉 75사단 법당건립불사를 추진중에 있다. (02)529-3861

성불회 효도봉사 실시

안양교도소 성불회(회장 변즐연)는 6월 27일 경기도 화성 자재정사를 방문하여 효도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식생활용품을 자재정사에 보시하고, 텃밭에 깨모종 심기와 쓰레기 소각장 청소등 자원봉사를 했다.

광동학원 교직원 사찰순례

광동학원(이사장 일면스님) 교직원 명찰순례법회가 1일 파주 보광사에서 열렸다. 1백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보광사주지 효림스님이 '사찰문화의 이해와 답사'에 대해 강의했다.

국립재활원 불자회 수계

국립재활원 법당불자회(지도법사 정진스님)는 2일 수계법회및 불교성지순례 행사를 가졌다.

국립재활원 법우들과 재활원을 졸업한 동문환자, 입원환자등 1백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청주 보문정사에서 수계식을 가졌으며 충주 대흥사와 월악산 세계사 진천 보탑사등을 참배했다.

"山사랑이 불교외호"

탐방 광주불교산악회

염불·목탁치는법 교육
부산지회와 화합 법회
고아원·양로원 봉사계획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이재삼)는 12일 남해 보리암으로 사찰순례법회를 떠난다. 보리암을 참배하고나서 광주불교산악회는 창립 3주년을 맞는만큼 봉사와 조직확대등 앞으로의 세부계획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준비중인 불교산악회 발전방안은 양로원과 고아원등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과 목포 순천 여수등 전남지역에 불교산악회를 창립시켜 광주·전남 연합회를 창립하는 것.

95년 10여명의 회원이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출범한 광주불교산악회는 현재 회원만도 2백여명에 이르고 있어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신행단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광주불교산악회는 매주 수요일 광주 무각사에서 정기법회를 갖고 2시간씩 불교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의식교육은 회원전체가 받는 교육으로 염불 축원 목탁치는법등이다. 또 매월1회 정기적으로 불교성지순례 및 산행을 실시한다.

지역 단체와도 연계하여 광주·전남불자교사회의 행사에 참여하여 국토청정결의대회를 무등산에서 갖고 있기도 하다.

지역화합을 위해서도 부산불교산악회와 자매결연하여 합동법회를 열고 있다.

96년 부산불교산악회 회원들을 광주 무등산 중심사로 2회 초청하여 합동법회를 갖고 무등산을 산행했으며, 97년 11월에는 광주불교산악회 회원들이 부산 범어사에서 열린 부산불교산악회 창립기념법회에 참가하는 등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이재삼회장은 "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불교를 외호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회원들의 신행과 친목을 강화하여 미래지향적인 불교산악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김원우 기자



◇광주불교산악회는 앞으로 사회봉사에 매진할 계획이다.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5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지원자격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분

● 강의시간
출강 / 통신 : 주5일 오후7시~8시30분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8년 8月 31日까지

● 교과목 : 주5일 수업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불교복지론	불교학특강	의식실기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가. 포교당 개설시 상담지원 가능
나.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다.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 전화 : (02)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98 삼화불교대학 신입생모집(편입생모집)

■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 ■야간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 한민족 불교진흥회 스님, 단체추천자.
	4년	■통신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 ■통신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 ■통신		

■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야간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분교체결
95.11 본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위탁교육 수료후)

■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8년 7월 28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 5. 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511-2026~8)
◑ 인터넷홈페이지 : WWW.Buddha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삼 화 불 교 대 학

법회안내



성수스님(법수선원 조실) 8일 오전11시 부산 용궁사 초청법회. (051)722-7744



해장스님(고성 건봉사 주지) 12일 오전10시30분 동산교육회관 '전국염불만일정토법회', 매월 양력 1일 오전10시 간성 건봉사포교당 법회, 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0392)682-4946



지도스님(관오사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10시 보름인등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 저녁7시30분 가정법회. (053)784-3669



현수스님(용문사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042)585-6803



혜인스님(불심사 주지) 매월 음력 1일~3일 오전10시30분 초 삼일법회 정진회,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10시30분 참선지도 법회, 신행상담. (02)907-1643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무료급식…"쌀 · 봉사요원 모자라요"

'아침을 여는…' '보현의 집' 등 동참인 기다립니다

IMF구제금융이후 실직한 사람들이 갈곳을 잃은채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점심조차 거르는 일이 빈번해 지면서 고통을 함께 나누는 무료급식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점심시간이면 한꺼번에 수백명씩 몰려드는 사람들에 비해 자원봉사자도, 쌀도 반찬도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 어려운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무료급식사업 후원에 동참해 보자.

경불련이 서소문공원에 개설한 '아침을 여는 사람들(02-3417-2600)', 맑고향기롭게가 제기동 보문선원에 문을 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02-741-4696)',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보현의집' '영등포근로자합숙소' '탑골공원무료급식소'(02-723-5101) 등을 찾아 직접 자원봉사를 하거나 쌀이나 후원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무료급식봉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적극적 신행활동이다. 사진은 무료급식에 나선 천태종 자원봉사자들.

또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는 실직자가정을 위한 자비의 쌀 모으기 운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02-720-6564) 이밖에 교계에서 운영중인 복지관에서도 무료급식 또는 후원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복지관을 찾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신행수첩

직장인을 위한 선의 향연

삼보회 여름불교대학

불교공부를 하고 싶어도 따로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 삼보회에서 여름불교대학을 개설한다.

8월까지 매주 일요일 열리는 여름불교대학은 인환스님(동국대 명예교수)의 '선의 이론과 실제' 강의를 비롯, 종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의 '보살행의 길', 권기종교수(동국대)의 '대승사상', 프랭크 테데스코교수(세종대)의 '불교의 생명윤리', 최봉수교수(동국대)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등으로 구성됐다. (02)913-2859

예불·기도하는법 배우자

봉선사 출가수련법회

봉선사는 불자들을 위한 하계 신행출가수련법회를 갖는다.

이번 하계신행출가수련법회는 28일~31일과 8월 6일~9일 두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 선의 이론과 실제에서 부터 윤회와 인연, 기도하는 법, 예불의식, 발의습의 등 기본적인 교리와 의식도 배우고, 사경법회로 신심을 증장시키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또 환경보호와 행복의 법칙에 대한 강의도 마련돼 신행출가수련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일상생활속에서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0346)555-5974

예수재 동참 농악도 감상

보광사 시민문화축제

속초 보광사에서는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축제를 연다.

10일 오전 10시 생전예수재를 시작으로 오후 1시에는 지역 노인 2천여명을 초청해 경로시민잔치도 갖는다. 또 오후 2시부터는 목장승 4기를 보광사 인근에서 많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줄을 당겨 세우는 장승제를 실시하고, 이후 보광사 앞뜰에서 농악대와 어우러지는 한마당을 펼친다. 이와 더불어 도예가 서종훈씨의 도판전과 설치미술전도 열릴 예정이다. (0392)33-2920

자연속에서 심신닦자

혜명선원 명상수련회

휴가를 이용해 온 가족이 함께 단기출가수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정화사 혜명선원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하계 법안명상수련회'를 실시한다.

이 수련회는 참선 명상 수련을 하면서 색다른 여름휴가를 보내려는 이들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자연속에서 수행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은 자기앞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는 큰 힘이 될것이다.

1차 수련회는 17일~19일에, 2차 수련회는 8월 14일~16일 각각 열린다. (0415)867-4000

윤달 생각해보는 죽음관

불자련 수의문화세미나

불교자원봉사연합회에서는 10일 명동 유네스코회관 한국유네스코 문화교류센터에서 제1회 수의문화 세미나 및 수의 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윤달에 돌아본 한국인의 죽음관과 수의문화'를 주제로 교계 관계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윤달과 수의문화에 관한 체계적인 조명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도모하게 된다. 이번 세미나에서 송호수박사(개천대학 학장)가 '한국인의 죽음관과 수의문화'를, 곽명숙교수(세종대)는 '수의문화 및 수의복식의 소고'를 각각 발표한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수의복식에 관한 발표와 전시회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수의복식의 변천 및 발전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02)723-6258

나의 수행일기



조 순 미 〈아이컴 디자인 실장〉

투덕 투덕 툭 툭 투덕… 장단 맞춰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를 도심 속에서 듣는 즐거움도 있지만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창 가에 앉아 피어오르는 생각들을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더욱 좋다. 햇살이 환하게 퍼지는 날에 느끼지 못하는 깊숙한 내면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색다른 분위기 때문일까. 요즘 벌써 내년 달력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지 올해도 다 보낸 듯한 속절없고 허망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순간 순간 헛되지 않게 매사에 충실히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 절실하다.

그렇지만 지난 두해 동안에 너무나도 변한 자신을 되돌아 볼 때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일이로구나 하는 생각에 빈 웃음을 지어본다. 생전에 불교와는 무관하셨던 어머니를 그나마 돌아가신 후에야 절로 모신 인연으로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비가 오면 우산을 받치고서라도 일요일이면 이 산, 저 산 러운 습관이 되었다. 알아가는 기쁨에서 뿌려놓았던 불법의 씨앗들이 이제는 작은 싹으로 자라서 고마운 햇살과 적당한 바람, 그리고 충분한 물을 주어가며 키워가는 기쁨으로 아침이면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진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게 모든 것이 구족하여 원만하기만 하였다면 과연 지금처럼 불법을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 되돌아 보면 지난 날들의 우여곡절은 결국 이 길로 오기위한 필연이었다는 느낌이 저절로 드는데 비록 약게는 살지 못했어도 다행스럽게 허송세월은 하지 않은 덕분에 부족하지만 부처님에 대한 사랑을 일로써 표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인연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더구나 더욱 가슴 벅찬 것은 아직도 긴 잠을 자고 있는 아름다운 불교문화에 대해 새롭게 뜨여진 눈으로 이제 그것들을 시각화하여 드러내 펼칠 수 있는 내 역할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금강경 독송 · 사경 '하루가 충실'

잠자는 불교문화 시각화 … 나환자촌 봉사도



으로 산길을 오르며 절을 찾아 49재가 끝나도록 108배를 작정을 하고 다녔다. 중학교 때 영세를 하고 마침내 무관심해졌던 종교적인 회의와 갈등은 그 무렵 불교라는 매력적인 깨달음의 세계를 알고 싶은 계기가 되었다.

절을 드나들던 그 이후로 자료를 찾으러 일삼아 들르는 서점에서 불교관련서적을 한 두 페이지라도 읽고 다니던 것은 모든 것이 캄캄하고 힘들기만 했던 그 무렵의 유일한 낙이었다. 특히 금강경을 읽게 된 이후 마치 안개가 스며드는 것처럼 서서히, 내 안에서 드러난 빛으로 세상은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금강경에 있는 '능히 이 경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면 곧 여래가 불지혜로써 이 사람을 다 알며 이 사람을 다 보나니 모두가 헤아릴 수 없고 가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라는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였다. 지금도 금강경 독송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사경으로 마무리짓는 것이 자연스다. 또한 주말 수련을 다녀와서 더욱 절실함을 느낀 좌선공부로 본래의 마음자리를 찾으려는 자신과의 긴 싸움은 새롭게 시작한 또 하나의 즐거운 도전이며 그 동안 익혀왔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몇가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작은 것에서부터 새롭게 깨닫고 함께 나누는 기쁨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 고창의 나환자마을 진료를 함께 다니는 이들에게서 배우는 결코 드러내지 않는 보시행과 우리의 문화를 사랑하여 많은 이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행동으로 펼쳐가는 '문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순수한 열정에서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진정 참다운 보살의 모습을 본다. 길고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이따금 무거운 구름이 걷히고 밝고 찬란한 햇살이 비추일 때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고마움과 아름다움 처럼 무명의 어둠 속에 있던 내게 빛으로 다가오신 부처님을 생각하니 가슴에 따스한 사랑이 잔잔하게 퍼져간다.

게 시 판

♣ 알림

△어울림 아유회=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 어울림모임 아유회를 24일 떠난다. (02)852-0525

△유아 컨트서비스=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내 유아를 대상으로 무료 컨트를 16일 실시한다. 사전예약제.

△수지침 무료시술=금강정사 교육원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12시 수지침 무료시술을 실시한다. (02)893-2700

△노인나들이행사=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8일 장흥 국민관광단지, 전쟁기념관 등지로 개관기념 동작구 노인나들이를 떠난다. (02)817-8052

♣ 강좌

△아동방학특강=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방학특강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역사교실, 들꽃기행, 지하철기행, 만화교실, 단소교실, 신문활용프로그램, 스포츠교실 등. 20일부터. (02)852-0525

△연흥사 교양대학=연흥사 불교교양대학은 제2기 강좌를 22일부터 개강한다. 6개월간 매주 수·목요일 오후 2시. 수강료는 무료다. (053)311-9937

△어린이·청소년 방학특강=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청소년여름방학특강을 개설했다. 과학교실, 영어회화교실, 록그룹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학교에서 활동할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342)716-4215

△능인불교대학=능인선원은 9월 개강하는 제26기 능인불교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02)587-5800

△불교대학원 신입생=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은 98학년도 2학기 지도자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불교학, 선학, 불교사, 예술사, 사회복지학, 포교학 등. (02)260-3097

△소쩍새마을 후원인=소쩍새마을은 쌀, 부식, 비누 등 생필품 후원자 후원금을 기다린다. (0371)762-9870

△유급자원봉사자=연꽃마을 사운드교실, 현장학습 체험 등 다양하다. (02)282-1100

△여성문화교실=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여성들의 여가활용 및 취미활동을 위한 여성문화교실을 연다. 양재, 홈패션, 인형퀼트, 스텐실, 포크아트, 서예, 컴퓨터교실 등. (0551)31-8017

△취미·자격증대비반=신도림복지관은 컴퓨터교실·머리미용·꽃꽂이·제과제빵·홈패션·퀼트 등 조리사자격증 대비와 취미를 위한 강좌를 개설했다. (02)631-9792

♣ 모집

△중·고생 자원봉사자=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자원봉사를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수발하고 말벗이 되줄 30세 이상 50대 미만의 주부 유급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11일까지. (02)203-3677

♣ 답사

△낙산사·건봉사=국토문화순례 터사랑은 11일~12일 양양 낙산사와 의상대, 통일신라말 선종세력의 근거지였던 선림원터와 진전사터, 건봉사를 순례한다. (02)725-1284

△무량사·마곡사·장곡사 순례=광주 무량선원은 윤달을 맞아 무량사 마곡사 장곡사 삼사를 순례하며, 기도정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062)971-8626

身土不二의 企業 (株)興國農産

○ 신·토·불·이 ·정·신 ○
土種무엿 · 호두기름 · 土種홍화씨



뼈에 좋은 함양산 土種 홍화씨

함양산 토종 홍화씨가 왜 좋은가?

청정지역인 지리산 자락 함양은 홍화씨 재배의 적지이며, 농촌지도소, 약초시험장 등을 중심으로 재배농민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매년 우수한 품질의 홍화씨가 생산되어 소비자들께서 그 품질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시중에는 수입산도 넘쳐나고 수입산으로 한해 농사를 지어 토종이라 값싸게 판매하는 업체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땅 아무지역에서나 심었다고 모두 토종은 아닙니다.
몇해에 걸쳐 같은 토양과 토질의 땅에서 수확한 같은 씨앗으로 유황을 뿌려 심고 가꾼 함양산 홍화씨는 한알의 씨앗에도 농민의 땀과 정성이 듬뿍 베어있는 토종 最品 홍화씨입니다.

소비자가격 200g 씨앗 33,000원/250g 가루 43,000원

함양특산물 - 토종 홍화씨

군에서 적극 장려하여 수백여 농가에서 재배,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는 함양산 토종 홍화씨-보사부의 식품 원료사용 허가와 때를 맞추어 상품화시킨 토종 홍화씨를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안심하시고 구입하십시요.

함양군수 郭 琇 圭

土種무엿 600g = 소비자가 45,000원

'무 하나 잘 먹으면 인삼 한뿌리 먹는 것 보다 낫다'고 알려질 만큼 무는 식용으로 그 가치가 높습니다.
무에는 포도당, 스크로브등과 같은 당분과 함께 신맛을 내는 산, 비타민 C, 그밖에 섬유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무에는 소화, 진해, 거담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고 가래, 기침, 해소천식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또한 무는 해독작용이 현저하여 체내의 독성을 풀어주는데 효과가 있으며, 폐질환으로 인한 각혈, 코피등과 두통을 없애주는 작용을 합니다.
무엿은 재래식 가마솥에 생강, 마늘을 깔고 무를 썰어 얹은 다음 약재를 놓고 찹쌀과 엿질금으로 삭혀 3일을 고아 정성껏 만든 옛날 식품입니다.

⊙ 사찰내 불교용품 판매점, 매점등에 전시판매하실분은 연락하세요.

호두기름 100ml = 소비자가 27,000원

호두는 만성기침에 효과가 있는 폐, 기관지질환의 약재로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호두는 신장기능이 허약하고 천식해소를 하는 환자에게 좋고 혈액순환이 잘되며 보혈작용, 눈이 맑아지며 피부는 윤택하게 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은행과 살구씨는 기침, 발열, 해소, 천식등에 이용하여 왔습니다.
호두기름은 토종호두살을 큰솥에 밥을 지어 뜸이 들즈음에 집어넣어 2회를 찌고 말려서 살짝 볶은 은행과 살구씨를 혼합하여 기름을 낸 것입니다.
호두기름은 교사나 가수등의 성대보호를 위해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주문처 (무료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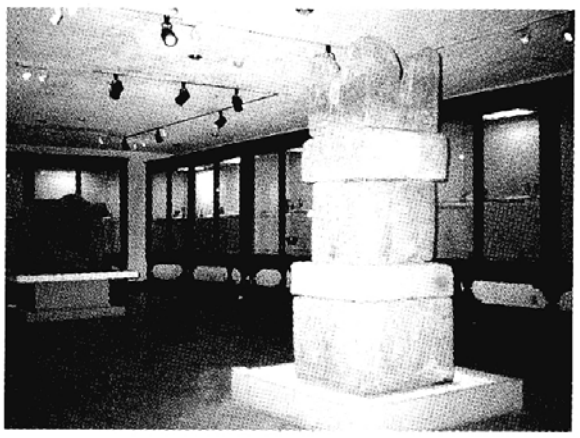
전국	(080)064-1300
서울	(080)070-1300
광주·전남북	(080)085-1300
대구·경북	(080)040-1300
제주	(080)090-1300

건강한 農民의 鄕土企業
(株) 흥 국 농 산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119
전화 : (0597)64-1300
FAX : (0597)64-1304

"동국대박물관을 포교공간으로"

국보등 유물 3천여점 소장…대부분 성보
청소년·외국인에 한국불교 알리기 '적소'

건물 노후·예산부족등 일반인 개방 '애로'



◇내외국인들에게 불교문화를 소개하고 이해시키는 공간으로 동국대박물관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동국대박물관 전시실 내부.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면 어디로 안내하는 것이 좋을까?

불교전문박물관이 없는 현 상황에서 불교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없으니 참으로 난감한 노릇이다. 차선으로 서울 요지에 위치한 동국대 박물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면 어떨까. 숭실대 박물관이 기독교자료를 중심으로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3개의 테마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국대 박물관도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명소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로 개관 35년을 맞는 동국대 박물관은 현재 조그만 3층건물에 상설전시장 1곳, 수장고 6곳, 유물처리실 1곳을 갖추고 있으며, 3천여점이 넘는 유물 가운데 1백70점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그 중에는 국보 209호인 보협인석탑(사진 정면)을 비롯 보물 309호인 감지은니묘법연화경 등 국가지정문화재만도 11점이 포함돼 있어 박물관으로서 지니는 비중도 높다. 또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입지조건과 오랜 역사만큼 쌓아온 연구성과와 배출해낸 인적자원이 풍부해 불교전문박물관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현재 박물관의 학예연구원은 고작 2명인데다가 그나마 임시직이라 체계적인 유물관리와 보존에는 부적합하며, 시설도 박물관이 필히 갖춰야할 항온항습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 건물자체가 독립건물이라고는 하나 노후된데다가 본래 박물관 용도로 지어진 것이 아니어서 신축이 불가피하다.

동국대 박물관 한상길연구원은 "동국대 박물관은 유물의 80%이상이 불교문화재이며, 오랜 경험이 축적돼 있어 불교전문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낼 수 있지만 대학박물관이라는 제한된 공간이 예산부족과 맞물려 불교문화재를 알릴 수 있는 대중적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동국대 박물관의 예산은 8천만원으로 대부분 유물구입에 쓰이고 있어 인원충원이나 시설확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 현대의 박물관 기능이 유물의 관리와 전시 외에 교육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재단과 종단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숭실대 박물관은 지난해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설립한 한경직기념관으로 자리를 옮겨 한국 유일의 기독교박물관으로 키워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동국대도 10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독립건물의 신축과 함께 전시실을 확충, 불교문화의 특징을 한눈에 보여주고 이해시키는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럴 경우 동국대 인근의 남산, 국립극장, 신라호텔 등과 연계하는 관광코스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윤기석 기자 〈gsyoon@buddhapia.com〉

불심시심 〈135〉

삶과 죽음

爾生我死死何哀 (이생아사사하애) 네 살고 내 죽었다면 죽음 무엇 슬프랴만
爾死我生生亦哀 (이사아생생역애) 네 죽고 내 살았으니 삶 또한 슬프다
淚滴西風怨冥漠 (누적서풍원명막) 서풍에 뿌리는 눈물, 원망만 아득하여
老天斜日有餘哀 (노천사일유여애) 늙은 나이, 지는 해에 끝없는 슬픔.

무경(無竟 1664~1737)대사가 죽은 제자를 애도하여 지은 시이다. 제자의 이름을 금화(錦花)라 한 것으로 보아 비구니 제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죽음이란 삶의 한 절차이니 세월의 흐름에 의한 자연스런 죽음이야 가는 걸음걸이의 한 발자욱이지 있음과 없음으로 구별되어질 일도 아니다. 그러기에 늙은 내가 죽었다면야 슬플 것이 무엇이겠냐만, 젊은 너의 죽음은 나의 삶이 의미가 없을 만큼 삶의 발걸음을 거슬리는 것이다. 이 시는 제문과 함께 쓴 것이니, 제문을 한 번 읽어 볼 만하다.

'망제자 금화를 화장하던 날 늙은 스승은 눈물을 뿌리며 제문을 써서 술밥을 권하며 영결한다. "오! 금화야,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사람살이에 죽음이 있는 것은 밤과 낮 같은 필연인 것으로 굳이 있어야할 이치이니 삶이면 누구에게나 없겠느냐마는 너에게서와 같은 일은 끝내 드문 일이다.… 오! 네 나이 2·8에 처음 나에게 왔고 내 나이 6·7에 또 너를 만나, 너와 내가 함께 살아온 지가 지금 10년에 또 네 해가 되었으니 네 나이 이제 겨우 스물 여덟이요, 내 나이는 벌써 쉰다섯이구나. 내 하루 아침에 이슬이 되어 너의 소망을 외로이 버릴까 염려하였지, 네가 나를 버리고 갈 것을 누가 알았겠느냐" 하였으니, 젊은 제자의 죽음을 이렇듯 슬퍼하고 있음이 바로 대사의 인간적 단면이다. 제문의 내용으로 보아 재주가 뛰어난 비구니로서 장래가 촉망되었던 것 같다. 우연히 해소병을 앓아, 대사는 요양처를 옮겨가면서까지 치료해보려고 애썼지만 끝내 효험 없이 가고 말았다.

이 시는 이러한 사제의 정을 긴 설명 없이도 이해하리만큼 간절한 정감이다. 죽음이라는 동일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처지에 따라 슬픔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시는 이러한 처지를 자신에게 돌려놓으면서 제자의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것이 스님으로서 생사의 길을 초연히 대하는 자세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적 애석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순수함이라 하겠다. 이것이 바로 스님들이 승 속의 거리를 두면서도, 승 속의 막힘이 없는 격외의 탈속임을 알게 한다.

따라서 대사의 이러한 정리는 죽음 앞에서 갑자기 이는 슬픔의 정리가 아니라 인간의 순수한 일상의 정리인 것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세번째 '연꽃전' 갖는 일선스님

"불법 연꽃으로 형상화"



비구니스님들의 꽃꽂이나 음악 등의 활동은 매우 활발하다. 그러나 미술로 포교하는 비구니스님으로는 거의 유일한 일선스님(서울 용화사). 이미 두차례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을 가지며 그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 일선스님이 7년만에 세번째 개인전 '연꽃'을 1~7일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개최하고 있다.

"염화시중의 미소에서 보듯 연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이번 전시회도 연꽃을 부처님 마음으로, 연꽃과 불가분의 관계인 물을 우리 중생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탄생' '생동' '성하' '효심' 등으로 이름지워진 40여점의 연꽃그림은 간절함과 간결성이 잘 나타나 있으며 색감이 매우 탁월하다. "부처님의 진리를 그림으로 형상화해 시공을 뛰어넘는 불법의 가르침을 이심전심으로 전하고 싶다"는 것이 일선스님의 바람이다.

이경숙 기자

김경호씨 서예전 9일까지 전북 예술회관

서예가 외길 김경호씨의 서예전이 9일까지 전주시 전북예술회관 2층 제4전시실에서 열린다. 금산사 개산 14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서예전에는 '반야심경' '법성게' '법구경' 등 50여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시 서 화가 고루 갖춰진 서예인으로 평가받는 김경호씨는 지난해 열린 제1회 불교사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창작음악硏 '茶樂' 만든다

"차와 국악은 도반"

11월15·16일 발표회 은은한 색에서 보는 즐거움을, 향기로운 내음이 후각의 즐거움을, 따스한 온기가 촉감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다섯가지의 오묘한 맛을 즐기며 마시는 한잔의 차. 여기에 듣는 즐거움이 덧붙여지게 됐다.

한국창작음악연구회(회장 김정수)가 '차와 우리 음악의 다리놓기'라는 취지로 다악(茶樂)을 만들어 오는 11월 15일(오후 3시, 7시) 16일(오후 7시) 양일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다악 작곡발표회를 갖는다. 이날 발표회는 다악과 함께 차생활문화원 등 차인들의 다례시연도 있으며 신라 충담스님, 초의선사와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의 교류를 다룬 무언극과 차에 바치는 헌다무 등도 함께 공연된다.

현재 다악은 이성천(서울대 음대 학장) 이건용(한국종합예술학교 음악원 교수) 황병기(이화여대 국악과 교수) 김희조(前 서울예전 교수) 백병동(서울대 작곡과 교수) 박일훈(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씨등 우리나라 국악계와 양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에게 작곡이 의뢰되어 있다. 연구회측은 이번 다악이 완성되면 CD로 제작하여 일반인들에게 보급하며 이어 이병욱(서원대) 김영동(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장) 이종구(한양대 교수) 박범훈(국립국악관현악단장) 이준호(경기도립관현악단장) 씨 등에게 두번째 작곡발표회를 맡긴다는 계획이다.

창작음악연구회 김정수 회장은 "현재 전통찻집 등에서 들을 수 있는 곡은 가야금병창 등 국악소품이 대부분이고 다례시연 등에서는 '수제천' '영산회상' 등이 연주되나 너무나 장중하고 무거워 현대인의 감각에 맞지 않는 것 같아 행다(行茶)와 어울리는 새로운 창작음악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차문화의 상징음이 되도록 좋은 차음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북장사 괘불탱·오어사 동종 등
불교문화재 3점 보물지정



상주 북장사 영산회괘불탱, 나주 죽림사 세존괘불탱 등 불화류 2건과 포항 오어사 동종 등 성보문화재 3건이 보물로 지정됐다.

북장사 영산회괘불탱(보물 1278호·사진)은 알맞은 비례와 균형미, 밝고 깔끔한 채색 등 17~18세기 괘불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며, 죽림사 세존괘불탱(보물 1279호)은 조사된 현존 품으로는 우리나라 괘불탱 중 가장 오래된 것(1622년 作)으로 알려진만큼 독존좌불 형식에 원만하고 단아한 고졸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가치가 높다.

오어사 동종은 합장한 보살상과 천의를 휘날리는 비천상의 섬세함 문양이 뛰어나며, 제작연대(1216년)와 장인(순광) 등을 밝힌 명문이 새겨져 있다.

국보 '대반야경' 국적논란

日 문화청 "도난문화재와 유사"
우리측 "동일목판서 나온 이본"

국보 284호로 지정돼 있는 〈초조본대반야바라밀다경〉(이하 대반야경)3권이 일본에서 도난당한 중요문화재와 흡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월29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화청은 "한국에서 95년 3월에 국보로 지정한 〈대반야경〉 경본 3권이 94년 7월 나가사키(長崎)현 이키(壹岐)군 아시베(芦邊)정의 안국사(安國寺)에서 도난당한 일본 중요문화재와 거의 같다"며 일본 외무성을 통해 한국측에 조사에 따른 협력을 요구했다.

서울 강남의 A씨가 소장하고 있는 문제의 불교경전은 고려대장경 중 가장 먼저 수록된 경전으로, 목판인쇄본 〈대반야경〉의 제162·170·463권 등 3권. 초조본 가운데 글자새김이나 먹색, 종이의 질, 보존상태 등이 좋으며, 다른 초조본과 달리 각 장에 25항씩 배열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문화청은 한·일 양국의 것을 사진으로 대조해본 결과 경본에 남아있는 얼룩과 문자의 비백 등이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윤기석 기자

中明 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인간을 밝게하여 준다는 뜻의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꿈에서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 I·II·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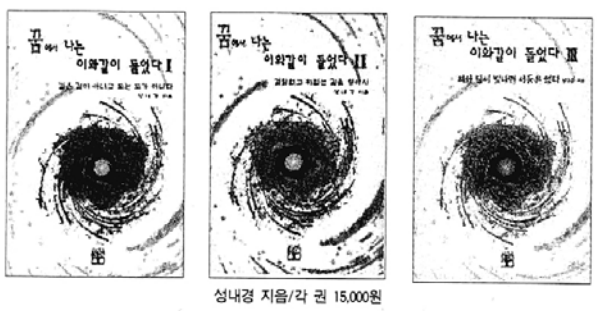
이화여대 성내경 교수의 하룻밤 꿈 이야기
전 3권 완간!!!

1권 길은 길이 아니고 도는 도가 아니다
2권 걸림없고 위없는 길을 찾아서
3권 해와 달이 빛나면 어둠은 없다

현대의 지식인들은
무식해질 필요가 있다!!!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최정상 불법인 법화사상의 전모와 진수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무식으로의 여행이다.
계속 무식해지고 무식해져서 날말조차 붙일 수 없을 때 진리가 드러나리라.
만일 말로 해서, 또 머리에 의지한 공부를 하여 이해하는 것으로 도(道)를
얻을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다면 세상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모두 다
도사(道士)가 되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깨우쳐 궁극의 도를 얻고자 하나
깨우침과 성도(成道)는 다르다. 깨우침이 전혀 없이 도를 얻을 수도 있고,
또 깨우쳐도 도와는 전혀 거리가 멀 수도 있다.
스스로 깨우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내가 알아야 하겠다는 것은 유치원 수준도 안 된다.
도는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도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성내경 지음/각 권 15,000원

한의학과 종교적 가르침을 넘나들며 도(道)의 입장에서 몸과 가정과 사회의 대한 우리의 기존 상식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묘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열린 마음을 가진 출중한 근기가 아니라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측량하기 어려운 강한 힘이 있습니다. 어둠속에서 스스로 빛나 주위를 밝히는 야광주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은 한번 읽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더라도 곁에 두고 읽으면서 평생 지닐만한 책입니다.

이 책과 인연있는 사람에게 바라거니와 받아서 가득 찬 마음보다 주어서 텅 빈 가슴이 될지니 이로써 보살행, 부처행을 하소서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보약도 나름이다 ■화장을 지워라 ■담배가 그렇게 유해한가 ■착한 일을 행하지 말라 ■애완동물은 사람이 아니다 ■운동을 하지 말라 ■참된 종교와 사이비 종교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건강 염려증 ■벙도 소질이 있어야 걸린다 ■여자는 자식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차라리 패라! 교육은 이해나 설득이 아니다 ■몽둥이 외에는 약이 없다 ■악법은 법이 아니니 지킬 필요가 없다 ■웃기지 않는 것은 도가 아니다 ■성불도 인연따라 일어난다 ■스스로 최상승의 근기를 만들라 ■묘법연화경을 머리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부처님 말씀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부처님은 왜 이 세상에 나오셨는가 ■악법은 법이 아니니 지킬 필요가 없다■

도서출판 중밍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82 태수빌딩 201호 TEL:636-6873 FAX:636-6874

사건 · 인물 서술 탈피
문화 · 생활사 중심으로
일반인 눈높이 맞춰

총 24권 6년완간 계획
"해방이후 불교도 정리"

"역사 바로보기는 삶의 교훈"

이이화씨 '한국사 이야기' 고대사 4권 펴내





"우리 역사는 너무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가치와 교훈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으면서도 역사의 전체 모습을 제대로 이해시킬까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평생을 발로 뛰어온 역사학자 이이화씨(61). 10년의 세월을 바쳐 방대한 분량의 한국사를 쓰겠다고 결심한지 4년만에 마침내 첫 결실을 보았다. 5천년 한국사 전체를 모두 24권에 소화하겠다는 구상아래 시작한 〈한국사 이야기〉(한길사 刊)의 첫머리인 고대사 부분을 4권으로 펴낸 것이다.

이 책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혼자의 힘으로 한국사 전체를 조망하겠다는 의욕 외에도 그동안 전공학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역사를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 또 지금까지의 역사서 대부분이 사건과 인물 중심인 반면, 이 책은 문화와 생활사를 중심으로 엮고 있다는 것도 특기할만 하다.

일례로 '속세를 떠난 원효'라는 제목에서 저자는 '원효스님이 왜 속세로 돌아왔는가. 원효는 고답적인 이론 공부보다는 신라사회의 현실에 뛰어드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원효스님의 행적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비춘다.

이씨는 3·4권에서 불교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 백제 무왕의 미륵신앙을 통한 백제의 정신적 통일 노력과 원효스님, 석굴암, 팔만대장경 등에 얽힌 이야기 등등. 우리 역사를 말하면서 불교를 빼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역사를 과학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사료를 뛰어 넘어서도 안되지만 사료에 얽매여서도 안됩니다. 그래야만 생생한 역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사료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엄밀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강공주와 온달 이야기만 해도 귀족세력 약화를 꾀하기 위한 이야기일뿐 사실은 무예가 뛰어난 평민인 온달을 사위로 삼았다는 얘기를 꾸민 것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1권 '우리 민족은 어떻게 형성되었나'는 인류의 발생과 종의 기원을 다뤘고, 2권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가야를 찾아서'에서는 삼국이 형성되어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렸다. 3권 '삼국의 세력다툼과 중국과의 전쟁'은 삼국의 대립관계와 중국과의 전쟁 및 교류내용을 소개했으며, 4권 '남국 신라와 북국 발해'에서는 신라에 패망한 고구려 신라의 맥이 발해와 후삼국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각 권마다 80~90컷의 화보와 사진자료를 실었는데, 특히 각 권 앞부분에는 금동미륵반가상, 석굴암, 다보탑 등 우리 역사를 대표하는 불교유물 10여점을 컬러화보로 실었다.

앞으로 출간될 제5~8권은 고려시대, 제9~12권은 조선전기, 제13~16권은 조선중기, 제17~20권은 근대, 제21~24권은 일제시기를 다루게 되며 2003년 완간 예정이다.

"물론 해방이후 비구·대처싸움까지의 불교 이야기도 쓸 생각인데, 그보다 더 써내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교의 미래는 밝지만 아직도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이화씨. 우리 역사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불교에 대한 애정도 뜨겁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법정스님은 강연에서 책속에 지혜가 있음을 강조했다.

법정스님 '산에는 꽃이 피네' 출판기념 '가난한 삶' 주제 특별강연

"독서는 창의력 키우는 지름길"

최근 교보문고 등 주요서점에서 베스트1위를 달리고 있는 〈산에는 꽃이 피네〉의 저자 법정스님이 6월27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출판을 기념하는 특별강연을 했다. 8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법정스님은 '가난한 삶'을 주제로 강연하며 "오늘날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서는 독서를 통해 옛 선인들의 지혜를 배우고 창의력을 함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자 주〉

〈강연요지〉

요즘 새삼스레 한국인의 창의력 부족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도 축구도 창의력이 부족해 국제사회에서 탈락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고등학교에서나 대학에서나 천편일률적인 교육만 해왔지 창의력을 일깨우려는 노력이 없었다. 창의력을 키우는 데는 독서만한 것이 없다. 독서는 남들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지혜를 손쉽게 자기 삶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요즘처럼 바깥세상이 온통 경제의 파도 속에서 갈광질광할 때는 안으로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조상들은 독서를 하면서 책장을 넘기며 내용만을 본 것이 아니라 독서하는 분위기, 다시말해 독서를 통해 활자화 안된 여백까지 읽어냈다. 이를 통해 인격을 닦고 창의력을 길렀던 것이다. 책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좋은 역할을 한다. 새 책을 읽을 때는 좋은 친구를 얻는 것과 같고 이미 읽었던 책을 다시 읽을 때는 옛 친구를 만나는 것과 같다. 같은 책도 읽는 때와 장소에 따라 그 감흥이 다르다.

오늘의 어려움에 기죽지 말고 우리앞에 닥친 시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 넘치는 물량에만 현혹되지 말고 절제의 미덕을 깨달으며 살아야 한다.

독서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살아있는 기쁨을 누리게 한다. 독서를 통해 창의력을 기르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 옛 선인들이 우리에게 남긴 삶의 지혜를 받아 들여 오늘을 산다면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리=윤기석 기자〈gsyoon@buddhapia.com〉

해외신간

미국에서의 불교



지난해 1월 17~19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톤에서 '미국에서의 불교'를 주제로 열린 회의 자료를 모아 Chries E Tuttle Co. 출판사가 〈미국에서의 불교(Buddhism in America)〉를 발간했다.

스테판 벡첼러, 로버트 서먼, 리차드 숍, 무성스님 등 미불교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8백여명의 불교학자와 스님들이 참여한 보스톤 회의는 인도·티벳의 대승불교, 상좌부 불교, 중국·일본·한국의 선불교 등의 교리와 수행을 비교·연구했다. 또 동시대 유럽과 북미대륙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서구사회에서의 불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내용이 정리됐다. (p.p 224, ISBN 0804831521)

인내하는 목격자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방법은 없을까? Bell Tower Book 출판사가 최근 발간한 〈인내하는 목격자(Bearing Witness:A Zen Master's Lessons in Making Peace)는 미국에서 눈길을 끌었던 사건과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불교적 수행이 어떻게 사회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책에서 "공동체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베린 글래스맨은 15년간 美 동부에서 불교공동체를 운영해 온 선(禪)수행자. 그는 미국에서 최초로 에이즈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던 인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p.p240, ISBN 0609600613)

한·일 불교사 왜곡 '똑바로 정리'

최재석 교수 '고대 한일불교관계사' 발간



〈고대 한일불교관계사〉(일지사 刊)는 최재석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 2년여간 이 분야의 연구 결과인 18개의 논문을 책으로 엮은 것으로 일본의 왜곡된 한·일 불교사를 바로잡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책이 백제 및 통일신라와 일본과의 불교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삼은 것은 사찰과 불상. 일본 고대불사(古代佛寺)를 비롯해 법륭사, 동대사, 일본 고대불상과 금동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7~8세기에 일본은 불교의 사상과 예술성이 담긴 불상을 만들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해 내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기술전파 과정처럼 일본이 한국의 기술을 전수받아 스스로 이같은 문화재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논리의 전개방법은 마땅히 지양해야만 올바른 불교역사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한명우 기자

경주유적 용어풀이 '…한영한사전' 출간

성낙진씨(경주병원 가정의학과 장)가 펴낸 〈경주 이해를 위한 한영한(韓英韓) 사전〉(신라문화원 刊)은 경주에 소재한 유물·유적과 불교, 고고학, 역사분야의 중요 용어 1천2백여개를 영어와 우리말로 설명한 책.

이 책은 또 부록으로 불상 및 석탑, 부도, 범종, 목조건물, 석등 등에 대한 세부 명칭도와 함께 수인의 종류도 설명해 놓고 있어 불교유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일반인들이 참조하기에 유용하다.

한명우 기자

화제의 책

붓다가 가르치지 않은 것 | 팀 워드 지음

철학자와 법학도의 구도 문답



신비적이고 온건한 철학자 '팀'과 이지적이고 냉소적인 법률학도 '짐'은 서로 대립하며 존재의 근원적 물음에서부터 불립문자의 의미 등을 파고든다.

캐나다 작가인 저자의 자전적 구도소설인 〈붓다가 가르치지 않은 것〉은 '깨달음이란 누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도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는 모호한 화두를 던져 놓고 독자들이 직접 그 해답을 얻도록 요구하고 있다. 〈드림북스, 8천원〉

중원의 차 | 최희명 지음

차의 역사 알면 '禪茶一如' 보인다



20년간 중국을 답사하면서 얻은 지식과 기록을 토대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차를 망라한 〈중원의 차〉는 차의 역사를 알고 나면 차에 대한 이해가 보다 깊어짐을 느끼게 한다. 중국 불교 사상 처음으로 사원에서 만들어졌다는 '보타불차' 등 각종 차의 종류와 그에 얽힌 이야기들도 재미있지만, 송나라 황산곡의 '가람헌(伽藍軒)' 등의 다시(茶詩)들은 차와 선이 둘이 아님을 새삼 일깨워 준다. 〈불교춘추, 1만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동쪽나라
2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김 홍 근	여시아문
3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 펠	여시아문
4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 현 준	효 림
5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운 을 순	신 우 당
6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	맹 란 자	세훈출판사
7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9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8	잡초는 없다	윤 구 병	보 리
9	참선교육	현 담	수선출판사
10	밀교강좌	혜 정	출판시대

구입문의:(02)737-0695

여시아문의 책들은
수행하는 불자들의 도반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주머니 속 대장경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주머니속 대장경 101



20C의 정신적 흐름을 주도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모태는 '불교'였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변형 241쪽/ 값 5,500원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 등 숱한 수식어로 둘러싸인 이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20C 후반에 활동하는 전세계의 작가와 지식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그의 작품 전반에는 불교적 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
그가 체득한 불교 교리의 핵심!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주머니속 대장경 201



티베트의 학승 초펠 스님이
한국말을 배워 직접 편역한
티베트인들의 수행지침서 '보리도차제'

초펠 스님 편역
B6 변형 178쪽/ 값 4,000원

삼사도(三士道)에 따른 수행의 길을 제시하면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투철한 믿음과
기초 수행을 더 중시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만날 수 있다.
티베트인들의 삼세 인과에 대한 절저한 믿음과 절대적 신앙은
생활환경과 사고방식이 확연히 다른 우리 불자들에게도
소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주머니속 대장경 502



획일적인 교육으로 갖가지 병폐를
낳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장,
그 해결책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는다.

김종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눈높이 교육'의 처음이라 할 '대기설법',
'천상천하유아독존'으로 밝혀 놓은 인간의 절대적 가치 존중,
이러한 교육관이 우리의 교육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때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차원의 교육이 이 땅에 정착되어 갈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야말로
개인의 잠재능력을 스스로 발현하게 하는 가장 바람직한 미래형의 교육관인 것이다.

여시아문은 '물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발해의 불교유적 유물' 출간
9월11~13일 발해문화 세미나
발해사 인터넷 사이트 개설

발해불교연구 '활발'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규합, 고구려에 이어 2백여년간 만주 동부를 중심으로 동북아를 주름 잡았으나 우리역사로 인식되지 못한 채 미개척분야로 남아있는 발해(渤海 · 698~926).

발해건국 1천3백주년을 맞아 발해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학계의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발해 불교유적과 유물에 대한 연구 전문저서가 처음으로 나온 것을 비롯 오는 9월 발해문화 국제학술대회가 준비되고 있으며, 발해사 전문 인터넷 사이트도 개설됐다.


◇중국 흑룡강성 발해 동경성 석탑.

중국 연변 발해사연구소 소장 방학봉씨의 저술로, 최근 서경문화사에서 펴낸 〈발해의 불교유적과 유물〉은 지금까지의 발해불교 연구성과를 종합분석해 43개의 사지(寺址)와 11개소의 탑지(塔址), 15종류의 유물을 소개하고 있다. 〈발해의 불교유적과 유물〉은 발해불교와 관련한 2, 3편의 논문이 간행물에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 전문저서로는 처음 출판된 것.

제1장 유적편에서는 중경현덕부(中京顯德府) 관할지역의 사지를 비롯 총 43개의 사지에 관한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학계에서 절터라는 견해와 탑지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는 고산촌사지(高山村寺址)와 관련, '고산촌사지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통해 '탑지'임을 주장, 눈길을 끈다.

3개의 묘탑, 사찰에 건축된 3개의 탑, 탑지로 추정되는 5개의 탑지 등 11개의 탑지에 대한 연구자료도 수록하고 있다.

제2장 유물편은 불교건축과 불상 및 불교유물로 분류했다. 특히 불상 및 불교유물은 △불상의 재료 △불상의 자세 △불상의 형태 △사리장치 등으로 세분화, 각각의 연구성과를 자세히 수록했다. 방씨는 "발해의 사지와 탑지, 유물을 연구하여 발해의 역사를 사실대로 밝히는 것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역사적 중책"이라며 "발해 불교유적과 유물에 대한 연구는 발해의 불교문화와 발해사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고구려연구회(회장 서길수)가 주최하는 '발해건국 1300주년 기념 발해문화 국제학술대회'는 오는 9월11~13일까지 용산 전쟁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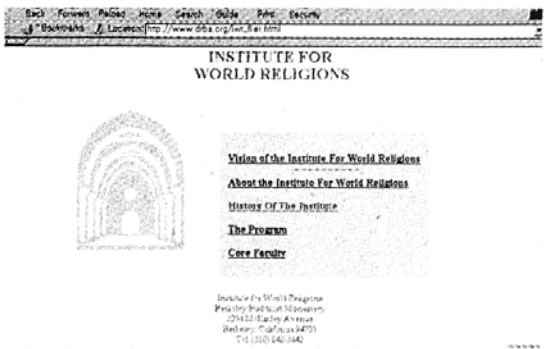
'발해의 유적과 유물' 대주제로 진행될 12일에는 중국, 한국, 북한, 일본의 발해유적 조사와 소장 유물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 13일에는 '발해문화의 여러양상'을 주제로 △발해의 불교와 불상(정영호 · 한국교원대) 등이 발표된다.

서길수 회장은 "발해가 우리 역사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발해는 우리 역사다'라고 목청만 높이기 보다는 발해 연구자의 양성과 기초자료의 확보 등 내실있는 연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발해연구에 있어 발해전공 박사는 송기호 교수(서울대) 등 3명뿐, 현재 박사과정 중인 연구자를 합쳐도 10명이 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북한은 국가차원에서 운영하는 '발해연구소'가 따로 있을 만큼 발해연구에 있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지난 4월에는 〈발해사 연구〉〈발해의 역사와 논문〉 등 발해사 연구도서를 대량 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성되고 있는 남북화해 · 교류 무드도 이후 발해사 연구에 활기를 더해줄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경성대 한규철 교수가 개설한 '발해사 연구 사이트(http://cla.kyungsung.ac.kr/~hangc/)는 △발해사 연구실 △발해유적보기 △한국사 강의 자료실 등을 통해 발해관련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세계종교연구소

종교지도자간 대화로 화합 모색
종교와 현대과학 접목도 활발

불교 기독교 힌두교 등 세계 6개 종교와 각 종교의 문화적 전통을 비교 · 연구하는 사이트가 있다. 미국 버클리 지역에 있는 사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종교연구소(Institute For World Religions)가 최근 개설한 이 사이트는 세계의 다른 주요 종교와 종교간의 대화를 나누며, 중국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중요한 특색을 재 해석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종교연구소는 서양의 가톨릭계 신부와 불교계 스님과의 종교적 화합을 위한 대화의 장에서 로마 가톨릭의 유빈추 기경과 중국 불교계의 삼장 법사인 휴와스님이 '전(全)그리스도교회 통일주의'에 서로 영감을 받은 것이 세계종교연구소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휴와스님은 중국의 선불교 선사 중에서 '웨이 양'파(派) 계열의 스님으로서 1962년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10만명의 일반 회원이 가입해 있는 '불국토-불교도연합'이라는 불교단체를 설립해 현재까지 이끌어가고 있다. 불국토-불교도연합은 미국, 캐나다 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 불교 포교를 위해 사찰과 학교를 설립했다.

세계종교연구소는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대학의 종교학 연구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불교와 같은 동양 종교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연구하는 학자와 연구소가 밀집해 있는 샌프란시스코 해안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들과 학문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상호 교류하고 있어 새로운 차원의 종교간의 연구를 도모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종교연구소는 현재 종교적 정신적 지도자들과 현대 과학기술 분야의 이론가들과의 세미나 개최, 각종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공개토론회와 같은 일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이중에는 △캘리포니아대학 중국불교연구학생협회 수행 지도 △여성 불교인들의 수행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참선수행 보급 △베트남불교 등 남방불교계 후원 △불교경전 강독 △반야요가 등 명사모임 등이 있다.

최근 세계종교연구소에서는 대중교육 부문에서 유대교, 불교, 기독교인과 대화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프란체스코 수도원의 신부와 남방 불교계의 비구스님 2명과 '정신적 전통에 대한 도전'을 주제로 종교지도자들의 대화를 열고 종교간 화합의 길을 모색했다. 또 세계 비폭력 단체인 '아힘사'와 △간디와 비폭력의 원칙 △유기체의 새로운 시대 △영성(靈性)과 성(性) △신화적 전통에 대한 교정 △두뇌, 마음, 양심 △창조에 대한 두가지 견해-'유대교의 신비주의와 현대 물리학과의 대화' 등과 같은 주제의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외에도 1998년도에는 미국 기독교계 신학대학원 교수들과 공동으로 △미국의 불교 도입, 정착 과정 △이슬람교의 역사 △중국문화 △불교역사 세미나 △불교윤리 세미나 △중국 종교계 성인(聖人) △정신적 전통과 여성 등을 주제로 한 종교학 관련 학술대회도 준비하고 있다.

www.drba.org/iwr - flier.html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문학적 수사로 석굴암 왜곡"
성낙주씨 유홍준교수의 해석에 반론



'인물과 사상'에 또 기고

"현재의 석굴암은 대중과 유리된 채 문학적 수사에 눌려 신비화의 길을 겪게 됐으며, 쓸데없는 논쟁에 발목이 잡혀 그 원형에 대한 탐구에 많은 지체를 가져왔다"

현직 중학교 교사이며 소설가인 성낙주씨는 〈인물과 사상〉7호에 기고한 '문화권력 유홍준의 지적 타락-석굴암을 위한 변명'에서 유홍준교수 등에 의한 석굴암을 둘러싼 논쟁의 폐해를 지적하고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먼저 성씨는 "60년대 석굴암 보수를 담당했던 황수영박사 등이 목조전실을 세우고 팔부신중을 나란히 펼쳐놓은 것이 석실내부의 습기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유교수의 지적은 트함산의 기상조건이나 주위환경 등 일반적 상식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팔부신중의 배열과 관련, 유교수는 주실에 비해 전실이 현저히 협소한 요네다의 도면만을 고집해 절곡형을 주장할 뿐 주실과 전실의 면적이 똑같이 계산되는 문명대교수와 신영훈씨의 도면을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광창설에 대해서도 석굴암은 불내증(佛內證)의 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므로 굳이 밝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광창을 뚫게 되면 창살의 그림자가 본존불의 얼굴을 망치는 것은 물론 비바람, 모래의 유입에 따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인물과 사상〉2호에서 유홍준교수의 주장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가한 바 있는 성낙주씨는 "석굴암논쟁 자체를 백안시하는 것은 아니다"며 "학문적 논란이나 쟁점화가 어떤 학파나 개인의 위상제고 등 이른바 문화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윤기석 기자
〈gsyoon@buddhapia.com〉

'21세기 승가상…' 주제
24일 강원연합 토론회

전국전통강원연합(의장 종현스님)은 '21세기 승가상 정립과 그 속에서의 강원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24일 오전 10시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21세기 승가의 위상과 역할(진옥스님 · 여수 석천사 주지) △수행자 배출에 있어서의 강원의 실상과 개선점(명법스님 · 운문사 강원) △21세기 승가상 정립을 위한 강원의 위상과 역할(지운스님 · 송광사 강주) △재가입장에서의 21세기의 승가상 정립(송위지 · 외국어대 철학과 교수) 등 기조발제와 혜능스님(파계사 율원), 도오스님(통도사 강원), 이은윤씨(중앙일보 종교전문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정은 기자

국제소식

NASA 인공위성 레이더가 찾은
캄 앙코르에 새 고대도시

미항공우주국(NASA)이 인공위성의 레이더를 이용해 캄보디아의 고대 도시 앙코르(Angkor)의 비밀을 풀었다고 최근 CNN이 보도했다.

힌두교도와 불교도에 의해 건설된 앙코르시(市)는 도시 발달의 정점을 이루었던 12세기경에는 무려 1백만명의 시민들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크기의 도시 규모를 이루고 살았다. 그러나 이 도시는 현재 정글에 뒤덮여 있을 뿐, 앙코르와트(세계문화유산 지정) 만이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다.

미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인공위성이 이 지역을 지날 때 고성능 레이더를 이용, 3차원으로 앙코르와트 주변 지역을 촬영 · 분석한 결과 앙코르와트 보다 2백년정도 앞선 유적을 발견했다는 것. 엘리자베스 무어교수(런던대 고고학)는 "이번 발견은 앙코르 유적이 고고학계에서 추정하는 연대보다 훨씬 앞선다는 가정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종욱 기자

인도 아이오디아市 유적 놓고
불교-힌두교 '성지논쟁'

인도 북쪽에 위치한 아이오디아(Ayodhya)시에는 사원의 유적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과연 사원 유적들은 불교 사원인가 아니면 힌두교 사원인가. '힌두'지(紙)에 따르면 최근 인도 고고학계에서는 아이오디아 사원 유적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고 한다.

수랄 사살스님은 "BC 5세기경에 부처님이 이 곳을 수차례 다녀갔으며, 그때 이곳의 명칭은 '아이오디아'가 아니라 '사께타(Saketa)'였다"며 "이 곳이 불교성지로서 인정돼야 하며, 스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수행처도 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오디아는 힌두교를 깊이 믿었던 라마왕의 탄생지로 기록되어 있다. 또 힌두교도들은 1528년 아이오디아 시를 힌두교 성지로 삼고, 라마왕의 업적을 기리는 사원을 건축했다.

인도의 국무장관 아탈 베아리 바파이는 "이 도시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발굴을 할 예정"이라며 "사살스님의 주장이 옳다면 불교 사원 건축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한국불교총람』1998년판 발행



주요내용

1) 한국불교의 현황 : 최근의 한국불교계 흐름을 약술.
2) 종단 : 불교종단 50여곳의 현황을 수록.
3) 법인 : 불교관련 법인 150여곳의 현황을 수록.
4) 불교단체 / 기관 : 불교단체 및 기관 4,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 신행 · 포교(사암연합회,신행단체)
- 청년 · 학생(전국단위 청년단체 및 학생연합회)
- 교육 · 연수(학교,유치원,재가교육기관,승가교육기관,연수기관)
- 언론 · 출판(방송,신문,잡지,출판사,학술지)
- 학술 · 문화(학술, 연구, 문화, 예술기관 및 단체)
- 사회 · 복지(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5) 불교관련업체 : 불교관련 업체 1,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6) 사찰 : 국내외 사찰, 포교당 13,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7) 인명 : 승가 및 재가불자 2,500여명의 개인 인명자료를 수록.
8) 불교문화재 : 초판 이후 추가 지정된 200여건의 불교관련 문화재 목록을 수록.
9) 불교도서논문 : 초판 이후 간행된 3,200여건의 불교관련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목록을 수록.
10) 한국불교연표 : 초판 이후 한국불교관련 사건을 수록.

■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 정가 120,000원

보급문의 : 02-719-2607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 한국불교총람 편찬위원회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TEL 02-719-2606 FAX 02-719-5052

생전예수재 법회시 설법자료, 법보시 책 및 예수재용품 보급안내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생전예수재의 공덕

생전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전생의 빚과 량, 예수재의 의식, 저승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예수재 행사 동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으며 불자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명단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신국판 72페이지 ⊙ 법보시 특가 : 1,500원

생전예수재 용품(1,500원, 2,000원)

감로출판사 ☎ (02)723-4306~7, 팩스 : (02)738-8682

봉축위원회 지정업체

여름 불교 학교 현수막 제작 보급

일시 : ○월 ○일~○월 ○일 장소 : ○○사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

대한불교 △△종 ○○사


▲ 썬캡(모자)



▲ 불자의 집 교패
크기 : 5.5cm×7cm


앞면 ▲ 부채 뒷면
크기 : 21.5cm×29.5cm


▲ 어린이용 T셔츠 (양면 20수)


▲ 성인용 T셔츠 (실켓 60수)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02)723-4306~7, 팩스 : (02)738-8682

한형조 무문관 탐방 57

세존의 채찍 ②

언어에 대한 불교의 근본태도 아비달마에서 확인

"말·침묵 그너머 소식은…"

외도는 '말있음'과 '말없음'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그 너머의 소식이 그리운 것이다. 그렇지만 성급하게 서둘 일이 아니다. 그곳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바닥부터 훑어야 한다. 대체 '말있음'과 '말없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더 근원적으로 불교에서 '말'이란 무엇인가.

나는 불교의 관건이 '언어'에 있다고 생각한다. 언어, 그리고 이와 더불어 공생하고 있는 사유의 성격과 본질, 그것이 불교교학의 중심논제이다.

그동안 서구에서는 언어가 실재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생각했다. 그 바탕에는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있다. 그리고 중세에는 개별존재를 통괄하는 보편자로서의 개념의 본질을 두고 오랜 논란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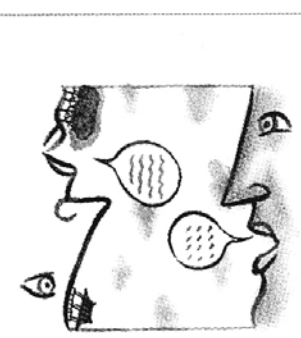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20세기에 들어서도 러셀은 "세계의 구조는 언어의 구조, 특히 인도유러피안의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논리적 원자론을 주창했다. 언어가 논리적으로 짜여있듯이 세계 또한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른바 그림이론(picture theory)에서 이를 더욱 확장시켰다. 그 한켠에서 카르납같은 사람은 아예 모호한 일상언어를 고쳐, 완벽한 인공언어를 창안하겠다는 포부까지 내보였다.

노자가 그랬던가. "발뒤꿈치를 들고서는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가랑이를 벌리고서는 오래 걸을 수 없는 법이다(企者不立 跨者不行)." 언어의 인공적 기획이 좌절하면서 곧 반성과 비판이 잇따랐다. 사람들은 일상의 언어를 재발견하기 시작했다. 나중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일정한 대상을 지시하기보다 삶의 공간에서 도구로서 기능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 연장선에서 이른바 수행이론(perforative theory)은, 언어의 실재가 삶의 공간에서 "나는 약속한다"거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에는 언어의 실재적 견고성에 대한 더욱 과격한 비판이 해체라는 이름으로 유행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 언어는 실재를 반영하는 것도, 그에 대응하는 것도 아니다. 언어는 다만 흔적, 혹은 끄적거림으로써 존재한다. 언어를 통한 의미는 자신의 고유성을 갖지 못하고 늘 다른 것으로 미끄러진다. 흡사 직물(織物)처럼 텍스트는 씨줄과 날줄로 엮어놓은 임시적 구성물일 뿐, 자신의 실재성(自性)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기표(記表)만 있고 기의(記意)는 없다는 식으로 어렵게(?) 얘기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자아와 세계의 자성을 부정하고, 또한 언어가 일정한 실체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극력 타기하는 불교는 지금 말하는 서구의 해체적 사유와 손잡고 있는 듯하다. 이 둘에 대한 비교연구는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욱 활기를 띨 것이다. 그럼에도 유의할 것이 있다. 나는 표면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상이(相異), 건널 수 없는 심연이 가로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설을 듣고 있으면 얼핏 〈미란다왕문경〉이 떠오른다. 이 경전은 인도의 형이상학적 사유와 그리이스의 합리적 사유가 만난 것은 가위 문명사적 사건이었다. 인도에서는 나가세나라는 비구가, 그리고 그리이스에서는 메난드로스왕이 출전했다. 그때 나가세나는 불교의 근본소식인 무아(無我)를 메난드로스왕에게 설득시키려 했다. "왕이시여, 어느 것이 수레의 본질(自性)입니까. 굴대입니까, 바퀴살입니까, 아니면 바퀴통입니까." 메난드로스왕은 이 논법에 담긴 심원한 방편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현대의 우리 역시 그럴 것이다. 대학 시절의 나 또한 처음 이 억지(?) 논법에 고개를 갸우뚱했었다. 돌이켜 보니 그만큼 일상적 사유의 관성은 완강하다.

내가 이 논법을 이해하게 된 것은 아비달마의 교설에 접하면서부터이다. 아비달마에서 우리는 언어에 대한 불교의 근본태도를 그 실천적 관심에서 읽을 수 있다. 아울러 언어에 대한 불교와 포스트모더니즘 사이의 이동(異同)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아비달마는 다르마(dharma)에 대한 이론 혹은 해석이다. 다르마에는 여러 뜻이 있다. 진리, 그리고 진리를 담고 있는 언어를 가리키기도 하고, 혹은 종교적 의무, 그리고 그를 통해 구현하는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뜻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소승의 한 갈래인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 Sarvastivadin)의 전문용어로,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적 구성단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근대과학의 원소 혹은 원자같은 것을 떠올리려 한다. 그렇지만 다르마는 사물이나 사태를 그 부분으로 분해하거나 혹은 더욱 미세하게 관찰한 결과가 아님을 미리 주의시켜 둔다. 그렇다면 다르마는 무엇인가. 다르마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사물이나 사태의 모습을 가리킨다. '전혀 다른'이란 정도로는 불충분하다. 그것은 근본적인 시각의 전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대체 우리의 일상적 사물의 모습이 어떻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가라고. 여기가 출발점이다. 까다롭고 미끄럽긴 하지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살면서 행복 누리려면…

잭 ·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로 쉬운 팔정도 17



어느날 부처님이 사회지도층의 한 사람이던 다가자누라의 질문을 받았다. "저희는 세 속의 즐거움을 누리는 속인입니다 … 비록 이런 형편의 우리들이지만 이생동안 행복으로 이끌어줄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은 "다가자누여! 이 생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무엇인가 즐기찬 노력, 주변을 잘 보살핌, 좋은 친구와 사귐, 분수에 맞는 생활, 이 넷의 구족(具足)이 그것이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세속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을 딱 잘라 양분해서는 안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직업이라 해서 반드시 생계수단에 그쳐야 할 이유는 없고 정신적 발전의 수단도 될 수 있어야 한다. 사무원이든 사업가든, 주부이든 의사든, 농부든, 판사든 간에 바로 그 직업을 정신적 자질을 계발하는 수단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다.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하게 하는 행위이다. 규칙적인 명상은 내면의 고요와 평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과 판별력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그래서 인생은 정말로 경이로운 경험으로 가득찬 멋진 모험 길이 된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부딪쳐야 하는 갖가지 갈래 길에 당황하지 않고 이를 태연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정명은 우리가 일터에서 가만히 서 있으며, 잠시동안 눈을 감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의 일터를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인식하고 느껴보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보다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등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의 일터에는 깨달은 보살의 선물 꾸러미가 숨겨져 있다. 우리가 이 꾸러미에 한 걸음씩 다가설수록 보다 의식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 "끊임없이 노력하고
> 주변을 잘 보살피며
> 좋은 벗과 사귀며
> 분수에 맞는 생활하라"

만약 부처님이 왜 선물을 남겼는지 다소간의 설명이 필요하다면 메모를 읽으면 된다. 여기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두 세 마디의 경구들이 적혀 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내 일터에서 평화와 조화를 계속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일하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 '내 일 속에서 불법, 진리를 찾기 시작할 수 있을까?' 등의 질문들에 대해 마음의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일터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사랑, 보살핌, 다정함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잭 케로악의 어느 산문중에서 다음 구절은 팔정도의 다섯번째 가르침인 정명을 한번쯤 곱씹게 하는 사상이 담겨있다.

제나로는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한다. 왜소한 그이지만 거대한 대지조차 안고 싶어한다. 이것은 제나로의 삶이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는지, 고통스러운 곳에서도 그가 어떻게 평온할 수 있는가의 합당한 해답이 된다.

그러나 그의 사랑이라는 열정에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녹아있다. 그는 슬픔도 넉넉히 눌어버릴 수 있다. 그런 그에게 자연은 상상할 수도 없는 선물, 정신에 자유를 준다. 집착하지 않고 사랑할 때, 타인의 슬픔도 놓아줄 수 있다.

현명함은 명상 수행을 통해 갖추어지는 마음의 성숙이다. 그러므로 명상 수행은 재가생활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해 주는 것이며 명상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재가생활 역시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명상 수행은 어디까지나 자기 변혁을 이루어 내는 자기 계발의 방법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대단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자기 계발은 매우 특이한 돌파 작업을 완수해 내는 바, 그것은 지성의 겉껍질을 돌파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혜의 빛 앞에 활짝 열리도록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지혜의 빛이 흘러들어와야만 우리의 인격은 비로소 향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끝없이 성난 파도가 밀려드는 이 세상에서 든든한 마음의 방파제보다 더 좋은 것이 또 있을까.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66

불교와 수학 61

연기와 카오스

김 용 운

세속적인 생활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불교적인 낱말은 생소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들 개념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면 다른 말들과 서로의 관련성이 금방 나타난다. 간단한 보기를 들어보자.

'당신은 누구입니까?'의 물음에 '나는 홍길동이요'라고 대답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자식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의 아내, 아버지, 할아버지…… 등의 입장에서는 남편, 자식, 손자와 같은 식으로 저마다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 홍길동은 하나이지만 그와의 관계에 따라 명칭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와같이 하나의 대상에 대해 상호관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간단한 한 사람의 호칭에 대해서도 '緣起의 理(모두가 연이 있음으로써 나타난다)'가 작동하고 있다.

홍길동 하나를 두고 여러개의 의미와 명칭(관계)이 있는 것이므로 '一卽多 多卽一'이기도 하다. 현상은 연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관련되는 입장이 다르면 의미가 바뀐다. 당연히 유일적인 것이 아니기에 절대적일 수 없다. 절대적이 아니므로 기준이 일정치 않다. '척(尺)에 따라 길이가 달라질 수 있다', '척(尺)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無我(本性이 없다)', '無我이기에 空이다'…… 등 이 사실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연기의 理 **한사람 호칭도 관계에 따라 달라져**

복잡성 과학 **현상 중시하는 연기론 그대로 수용**



위와 같이 '연기의 理'를 가운데 두고 무아, 공, 상대성, …… 등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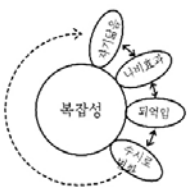
복잡성의 과학은 컴퓨터의 발달로 등장한 새로운 과학분야이다. 즉 여러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써 갑자기 예상 이외의 모양으로 변하는 현상을 복잡계라고 한다. 고속촬영으로, 운동체의 순간마다의 상황을 잘 관찰할 수 있게 된 것과도 같이 고속으로 현상을 분석·계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복잡한 현상에 빛을 비출 수 있게 되었다. 유클리트 기하학은 도형의 성질을 공리(점, 선 등에 관한)에 환원시켜서 관찰하는 것이므로 요소환원주의의 입장이다. 기본 요소를 '신(공리)'에 두는 기독교는 유클리트 기하학과 비슷한 논리체계를 갖는다. 한편 복잡성의 과학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므로 유클리트와는 반대의 입장이다. '여러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가 곧 '연기'이다. 요소환원주의와 복잡성과학에 관한 간단한 보기를 생각해 보자. 사회주의국가와 같은 계획경제에서 가격은 단순히 관리가 원가 계산을 근거로 결정한다. 이때는 몇 개의 요소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요소환원주의이다.

한편 증권시세는 많은 증권투자가들이 다른 투자가의 눈치를 보며 사고, 팔며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므로 복잡계이다. 복잡계(증권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수시로 나타난다.

가격이 일정하지 않다(무상), 가격의 실체가 없다(무아), 투자자의 상호관계(연기)로 가격이 결정됨으로 상대적이다. 특히 다음 상황이 중요하다.

①지금 이 순간의 상행위가 다음 순간의 가격을 순간적으로 반영한다 : 되먹임(feed back · 업사상) ②어느 투자자의 사소한 심리변화가 시장의 동향을 순간에 바꿔 놓을 수 있다 : 나비효과(한 마리 나비의 날개짓이 내일의 일기를 결정할 수도 있다 · 연기) ③한 사람의 행위가 전체에 영향을 주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전체가 정한 가격이 개인의 투자 의욕에 영향을 준다 : 一卽多 多卽一 ④증권시장에는 수시로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해서 나타난다. : 자기닮음(업)

불교철학은 '연기의 理'에 기반을 두는 것이므로 당연히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연기)의 입장에서 현상을



보는 복잡성의 과학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Ⅰ과 Ⅱ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연막 소독 살충기



CARNIVORE 2000

(길이 480mm, 높이 260mm, 폭 130mm, 중량 1.4kg)

카니보 2000 하나면 여름이 편안해진다.

모기 및 모든 해충으로부터 해~방!

⊙ 사찰에 꼭 필요한 상품으로 대만족 확신!
⊙ 방역, 소독 필요시 간편하게 사용가능(어린이도 조작 가능)

농가, 축사, 어촌, 정원, 야외가든, 지하철, 병원, 화장실, 쓰레기장등 소독이 필요한 모든 곳의 전염성균예방

특별보급가 158,000 ※ 3회 분할가능 ※ 각종 신용카드 장기분할가능

※ 현 금 가 : ₩ 130,000

보급처:한마음 ☎ 051)865-1182 하나하나빨리 ♣크로바서비스:080-007-1182

전국 어느곳이든 배달가능!

訃 告

대한불교 조계종 五峰山 石窟庵 重創主이시자 會主이신
宋超安 禪師께서 佛紀 2542년 7월 2일(음 윤 5월 9일)
오전 11시 世壽72세, 法臘 60세로 世緣을 다하고 涅槃에
드셨기에 다음과 같이 奉先寺 門徒齊을 奉行함을 알려 드립니다.

◆ 奉 先 寺 門 徒 葬 ◆

1. 영결식 : 불기 2542년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오봉산 석굴암 (0351)826-3573
2. 다비식 : 불기 2542년 7월 6일 오후 1시
   오봉산 석굴암 다비장

■ 증 명 : 雲鏡 月雲
■ 장례위원장 : 密耘
■ 호 상 : 寂照
■ 문 도 : 寂照 道安 海眼 道泉 知玄
智學 知一 法城 慧雲 영호
■ 상 좌 : 度一

불기 2542년 7월 2일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 1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오봉산 석굴암
(0351)826-3573

· 설법 게송집 ·

'멋대로 부른 노래'

- 산거스님(淨宇)스님의 설법게송집① -



⊙ 속이 답답하신 분은 이책을 읽으세요.
⊙ 마음을 잡지 못하시는 분은 이책을 읽어 보십시요.
⊙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시는 분은 이책을 보십시요.
⊙ 정신이 혼미하고 어지러운 분은 이책을 보십시요.
⊙ 아직도 불교의 속뜻을 모르시는 분은 이책을 보십시요.

· 170쪽/값 4,000원

그저 심심풀이로 한번쯤 읽어보고 지나가는 책이 되었으면 다행이다. 하지만 이노래를 서너번이라도 읊조려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무엇인지, 불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 믿는다.

-산거지(淨宇) 합장-

⊙ 전국 유명서점,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 법보시 하시는 분은 할인하여 드립니다.

■펴낸곳 : 경서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55-2 T. 02)733-3345~6 F. 02)722-7787

시방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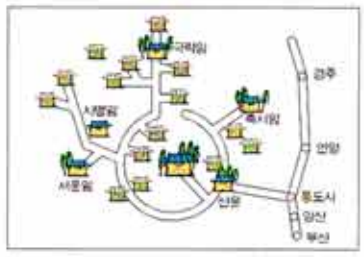
부다피아 인터넷 쇼핑몰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십시요 !
★★ 부다피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http://mall.buddhapia.co.kr
☎02)732-1522
F. 02)737-0697

불보종찰 통도사의 藝僧들 '영축산 예맥' 잇는다

구름에 가린 맑은하늘 담아내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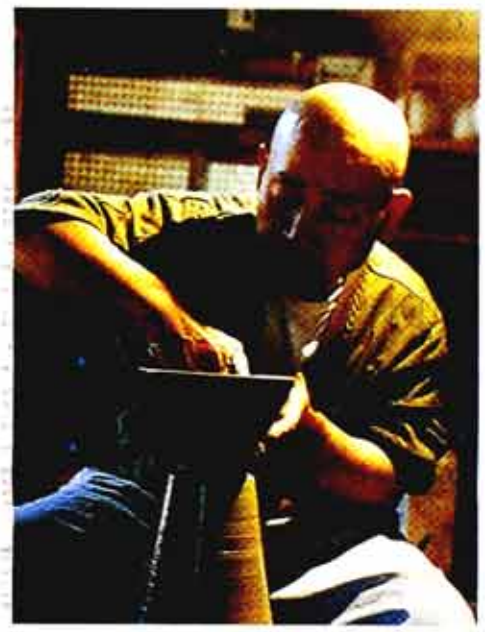
또 한차례 장마비가 쏟아 지다가 뚝 그쳤다. 먹장구름이 걷힌 허공은 눈이 시리게 푸르다. 흥건히 젖은 영축산과 비를 멈추고 속살을 드러낸 하늘이 한데 어우러져 절푸른 세상을 만들고 있다.

부처님이 장광설을 베푸시던 인도의 그 영축산을 닮았다 하여 이름마저 같이 쓰이는 영축산. 아홉마리 용이 물을 뿜으며(九龍吐水) 옹호한다는 영축산은 개산 1352년에 이르는 통도사를 비롯해 장엄한 산자락 곳곳에 16개의 암자를 품고 있다. 통도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646) 자장율사(慈藏律師)가 당나라에서 부처님 진신사리와 금란가사 그리고 4백권의 대장경을 가져와 창건한 이래로 수 많은 구도자와 발심법제자들이 찾아들며 일궈온 '불지종가(佛之宗家)'다. 불지종가일뿐 아니라 국지대찰(國之大刹)로도 불리는 통도사를 둘러싼 암자들이 오래전부터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도예, 서화, 다도, 단청등에 남다른 열정으로 수행의 길을 넓혀가는 스님들이 세간의 귀와 눈을 영축산으로 끌어 들이는 것이다. 근세의 경봉스님이 일필휘지의 경지를 개척한 이래 죽림선자 기석스님, 백안스님등이 서도의 일가를 개척했고 혜각스님, 동원스님은 불화와 단청의 맥을, 방정스님은 다도의 길을 잇고 있다. 성파스님은 전통감지 재현에, 수안스님은 독특한 서화와 시 창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도의 길에서 즐기는 예술의 세계가 마침내 수행의 본분과 다르지 않게 농익어 버린 스님들이 면면히 흐르는 예맥을 바탕으로 오늘날 영축산을 문화포교의 산실로 일구고 있다.

불보종찰 통도사, 적멸보궁 금강계단에 오체투지의 삼배를 올리고 예맥을 이으며 수행에 여념이 없는 스님들을 만나기 위해 암자로 이르는 길에 들어서면 어느덧 영축산의 푸른 기운이 온 몸을 감싼다.



도예 성파스님

통일염원 도자경판 굽기 8년째 흙과의 수행

서운암에는 가마가 있다.

성파스님은 이 가마에서 20년 세월동안 도자기를 구워왔다. 스님에게 있어 도자기는 공안(公案)이다. 흙을 빚는 무언의 시간 속에서 빚어내는 도자기를 통해 절대진리의 자리를 찾는 것이 스님의 수행이다.

"수행자에게는 어떤 행위든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방편이 다를뿐 모든 행위속에 구도의 염원이 녹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춤을 추는 사람의 모든 동작이 흥아듯, 나의 도예도 그런 과정 속에서 이뤄지는 수행 방편입니다."

수행과 예술이 둘이 아닌 곳, 그곳에서 스님은 한 덩어리의 흙이 그릇이 되고 찻잔이 되는 희열을 건져낸다. 직접 구운 도자 불상으로 삼천불전을 장엄하기도 한 스님은 8년째 통일의 염원을 담아 팔만대장경을 도자경판으로 굽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해인사 장경각의 고려대장경을 모두 16만8천여장의 도자경판으로 구워 내는 작업이다. 고려인들이 국난을 극복하려는 원력으로 조성한 대장경을 스님은 분단현실의 극복을 염원하며 도자경판으로 조성하고 있다.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한장의 도자경판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스님은 흙의 배합, 불순물 제거, 반죽, 1년간의 자연건조, 초벌구이, 재벌구이등 모든 작업을 서운암 곁의 작업장에서 직접 한다. 수행이기 때문이다.

"도자대장경이 완성되면 남과 북이 함께 만날 수 있는 38선의 어느 지점에 봉안할 계획입니다. 우리민족에게는 통일만큼 절실한 화두가 없습니다. 나의 수행과 원력이 그 화두를 푸는데 보탬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사회부장 규정부장 등 종단의 스님을 두루 거치고 통도사 주지, 원효학원 이사장을 역임한 성파스님은 도예뿐 아니라 시조와 전통 감지의 재현에도 남다른 조예를 갖고있다.

매년 봄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참가하는 시조 백일장을 개최하고 '성파시조문학상'을 수여하는등 시조를 통한 민족 정서를 살리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 암자 인근 야산을 기간해 쪽풀을 재배하고 거기서 천연염료를 추출, 천연 염색의 멋을 살려내는 일도 중요한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 무엇보다 6백여년간 묻혀 있던 감지의 비법을 터득해 96년 완성품을 공개하기도 했다.

도자경판을 만들고, 쪽 밭의 김을 매고, 사경을 하고, 한수의 시조를 음조리는 스님. 영축산 서운암은 성파스님의 나즈막한 목소리처럼 고즈넉하지만, 알고보면 이 세상 어느곳보다 분주하다. 구도의 염원으로 완성되어가는 성파스님의 여지가 머무는 까닭이다.



서화 수안스님

삼라만상 스승 삼아 그림 그리고 시 쓰고

"나는 화가도 아니고 시인도 아닙니다. 부처님께 귀의해 수행하는 한 사람의 수행자일 뿐입니다. 내가 그리는 그림과 내가 쓰는 시는 수행의 길에서 얻는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예술이다 작품이다 하며 이름을 붙이지만 그것은 이미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정진을 하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느낌을 그림과 시로 표현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통도사 뒷편, 영축산 중턱에 자리한 축서암은 수안스님이 그림과 시로 펼쳐내는 화엄세계다. 그러나 수안스님은 "하루 하루 살아가는 것, 말없는 나무나 풀 한 포기가 모두 진리를 설하고 있는데 예술은 무엇이고 수행은 무엇이라며 굳이 귀찮게 할 필요가 없다"며 "저 푸른 영축산이나 바라보다 가라"고 말한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게 수행이고 삶의 길인데, 쉬고 싶을 때 쉬고 잠자고 싶을 때 자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는 것"이라는 부언이다.

누구에게 특별히 사사받은 적도 없이 시작한 스님의 그림과 시의 세계. 그것은 삼라만상을 스승으로 여기는 스님이 수행의 길에서 만나는 느낌들의 세계다. 그 세계를 스님은 이렇게 전한다.

"그림 한 점 그리고/ 시 한 수 짓고/ 하하하 즐기면서/ 어머니께 감사"(수안스님의 시 '화엄경 이야기')

그림도 시도 하하하 웃음으로 즐기는 수행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곳에서 감사드릴 어머니란 바로 우주법계일 것이다.

1979년 부산 여성회관에서 '이리 수재민 돕기 선묵전'을 시작으로 선묵화의 세계를 펼쳐 보이기 시작한 스님은 국내는 물론,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프랑스에서도 수차례 초대전을 열어 세계를 감동시켰다.

스님의 작품세계를 흠모한 아일랜드의 화가 몰카이씨는 아예 집을 싸 들고 축서암으로 찾아 오기도 했다. 그는 91년 9월에 축서암을 찾아와 스님과 함께 생활하며 선묵화의 세계에 흠뻑 젖었다. 1년의 사사를 마감하며 전시회를 한 차례열고 귀국한 몰카이씨는 "수안 스님의 그림은 기술로 배울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주를 응시하고 그 진리를 건져 올리는 마음의 세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오소라〉〈나의 노래〉〈소옥이〉〈산이 터엉빈 날〉. 스님이 펴낸 시집의 어느 작품을 봐도 격을 두고 세상을 보는 세간의 습성을 털어내 버린 스님의 초연한 심성을 느낄 수 있다. 터엉 빈 마음, 터엉 빈 예술 바로 그곳에서 노니는 스님의 일상사가 곧 그림이고 시이기 때문이다.



다도 명정스님

"차 마심엔 격식없다" 한잔의 차로 '화두음미'

한잔의 차로 살림살이를 하는 스님. 극락암 삼소굴을 지키는 명정스님은 경봉스님의 선지를 대물림한 헌걸찬 다승(茶僧)으로 통한다. 그러나 스님은 세간에서 즐겨쓰는 '다선일여(茶禪一如)'나 '다선일미(茶禪一味)'라는 수식어들을 거부한다.

"차는 그냥 마시면 되는 것이지 무슨 도를 찾는가. 일상이 모두 도인데, 옛부터 선가에서 차를 즐겨 마셨지만 특별히 다도라고 말하지는 않았어."

다도라는 격식은 일본이 만든 것일뿐 선가의 이름은 아니란 설명이다. 그러나 스님이 "다도가 없다"고 말한다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격식을 초월한 차리에서 음미하는 한 잔의 차야말로 선의 경지에 닿은 맛으로 통한다는 뜻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스님은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들려 주었다.

"오래전에 효당스님이란 분은 차도구를 완벽하게 갖추고 차를 달이는데 그때마다 입정할때 죽비를 치듯 차도구를 탁탁탁 치고, 찻잔을 돌릴 때는 왼손으로 일원상을 그리길 잊지 않았지. 내가 '바른데 뭐 그런 격식을 차리느냐'고 묻자 그 스님은 '아따, 이 사람아 바쁘긴 뭐가 바빠, 바쁠 것도 없는데 공연히 저가 만들어서 바른 것이지' 하더군. 격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격식을 초월하는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선가의 차 마시는 경지야."

경봉스님의 찻물을 끓이다가 자연스럽게 차를 즐기게 되어 격식마저 초월한 자리에서 차를 음미하는 명정스님을 고은 시인은 "그 헌헌 장부의 운수행각을 감히 따를 자 드물거든 하물며 그의 버랑끝에 나앉은 차 한잔의 위엄이 능히 천리 밖에 닿아 있다"고 찬했다. 버랑끝이라니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선사로서 차를 마시되 한 순간도 놓을 수 없는 화두를 한잔의 차로 음미하는 자리를 말하는 것일게다. 명정스님이 차를 마시는 자리는 일천칠백의 공안이 대롱거리는 정진의 버랑끝이고 그곳에서 음미하는 차의 맛이란 공안의 속내를 들여다 보는 은근한 법열의 맛일 터이다. 스님이 달여내는 차 한 잔의 향기가 영축산을 감돌면 영축산도 찻잔 속에 잠겨 버리는 이치를 누가 알겠는가.

양산교육청의 요청으로 1983년부터 10년간 60여 학교 교사들에게 '차와 선'을 강언했던 스님은 4년전 〈차이야기 선이야기〉란 단행본을 통해 역대 선사들이 한 잔의 차를 마시며 절대진리의 맛을 즐기던 소식들을 전하기도 했다. 경봉스님의 선묵집과 일지, 편지글들을 정리해 책으로 엮어내고 〈경허집〉〈한암집〉〈신심명〉등을 번역해 낸 것도 스님이 누리는 차 한잔의 살림살이를 풍성하게 한 불사들이다.



단청 동원스님

"건물에 색칠한다 함은 자연과 조화 위한 것"

고찰을 찾아 고졸한 단청을 만날 때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된다. 그 감동의 정체를 동원스님(사명암)은 한마디로 말한다.

"받아 들이는 아름다움."

가슴을 환히 열어 주는 일깨움이다. 세월의 바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단청이 만들어가는 퇴색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이다. 거부하는 것은 자연이 아니다.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조화시켜 내는 것이 자연이다.

"단청은 건물과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뤘을때 제 맛이 납니다. 단아한 건물에 너무 화려한 채색을 하면 건물은 죽고 단청만 남기 일쑤입니다. 자연스러운 조화의 채색을 한 눈에 가늠하는 눈을 갖지 않고는 단청 일을 할 수가 없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색채와 건물과 주변의 환경을 한 눈으로 간파하고 가장 조화로운 문양과 색감을 선정하는 일에서 단청의 성패는 좌우된다는 설명이다. 동원스님은 18세때부터 붓을 잡았다. 단청장 혜각스님의 시자로 애제자로 시작한 단청 이력이 어느새 30성상을 지나고 있다. 혜각스님은 선 하나를 그리는데도 일생을 연지라고 가르쳤고 동원스님은 그 가르침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받아들이는데서 단청은 시작된다는 가르침을 하늘같이 믿었기 때문이다.

늦은 시간까지 담요속에서 촛불을 켜 놓고 초(草)를 그리기도 했던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도 불사를 다 해놓고 나면 그토록 장엄하게 단청된 건물에 매료되는 탓에 붓을 놓을 수가 없었다는 회고다.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날씨와 재료와 건강이 잘 조화되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우선이다. 나와 건물과 자연을 하나로 보는 마음의 눈을 감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동학사, 운문사, 동화사를 비롯 1백여 사찰에서 단청불사를 해 온 동원스님은 "그 모든 과정이 나를 녹여 건물을 장엄하는 수행이었다"며 수행자의 마음이 없이는 단청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사실 단청은 원래 스님들의 몫이었다. 요즘은 세간사람들이 더 많이 익히고 있지만.

동원스님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재료다. 천연재료를 써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천년의 아름다움을 지켜갈 것인데 화학염료를 마구 써대는 세태가 못내 아쉽다는 것.

"영축산을 바라보며 시계절을 두고 변화 무쌍하면서도 정연한 질서를 지닌 자연을 배운다"는 동원스님은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는 인간의 탐욕이 어찌 천년의 세월을 두고 '받아들이는 아름다움'을 설하는 자연의 무진 설법을 들을 수 있겠느냐"며 영축산을 향해 눈을 돌렸다.

임연태 · 천미화 기자 〈ytlim@buddhapia.com〉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범지품(梵志品) ③

見爨往來 견치왕래
墮塹受苦 타참수고
欲單渡岸 욕단도안
不好他語 불호타어
唯滅不起 유멸불기
是謂梵志 시위범지

어리석은 이 오고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 괴로움 받는 것 보고
오로지 저 언덕으로 건너 가고자
다른 가르침 좋아하지 않고
오로지 번뇌 없앨 뿐 딴생각 않는 이
이를 범지라 한다

已斷恩愛 이단은애
離家無欲 이가무욕
愛有已盡 애유이진
是謂梵志 시위범지

은애의 뜻 이미 끊고
집 떠나 욕심없으며
애착거리가 이미 다한 이
이를 범지라 한다

離人聚處 이인취처
不墮天聚 불타천취
諸聚不歸 제취불귀
是謂梵志 시위범지

세속 마을을 여의었고
하늘 세계에도 떨어지지 않으며
그 어떤 세계로도 돌아가지 않는 이
이를 범지라 한다

棄樂無樂 기락무락
滅無慍惱 멸무온유
健遠諸世 건위제세
是謂梵志 시위범지

즐거움 버려 즐겁게 없고
다버려 성냄도 두려움도 없어
굳세계 온갖 세속일 멀리하는 이
이를 범지라 한다

所生已訖 소생이흘
死無所趣 사무소취
覺安無依 각안무의
是謂梵志 시위범지

이 세상 태어나 할일 이미 마치고
죽어서도 나아갈 곳이 없어
깨달아 편안히 의탁하지 않는 이
이를 범지라 한다

已度五道 이도오도
莫知所墮 막지소타
習盡無餘 습진무여
是謂梵志 시위범지

이미 다섯 윤회도 건너고
떨어질 곳 어딜지 알지 못하니
습기 다해 남은 게 없는 이
이를 범지라 한다

于前于後 우전우후
乃中無有 내중무유
無操無捨 무조무사
是謂梵志 시위범지

처음에도 나중에도
중간에서도 가진 게 없으니
잡을 것 없고 버릴 것 없는 이
이를 범지라 한다

다버려 성냄도 두려움도 없으며
잡을것 없고 버릴것도 없는 경지

最雄最勇 최웅최용
能自解度 능자해도
覺意不動 각의부동
是謂梵志 시위범지

가장 굳세고 가장 용감하여
능히 스스로 깨달아 제도하며
깨우침의 뜻 흔들리지 않는 이
이를 범지라 한다

自知宿命 자지숙명
本所更來 본소경래
得要生盡 득요생진
叡通道玄 예통도현
明如能默 명여능묵
是謂梵志 시위범지

속세의 삶을 스스로 알아
본래 자리 되온자리 알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되어
지혜로는 도의 그윽함에 통하며
밝기가 저 부처님 같은 이
이를 범지라 한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얻고자 하는데 괴로움있고

혜초스님 〈법륜사 주지〉



약력
- 1932년 경남 진양 生
- 1945년 해인사에서 김양택화상을 은사로 득도
- 1952년 해인사 불교전문강원 졸업
- 1956년 해인대학 종교학과 졸업
- 1970년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
- 1975년 일본 화원대학 불교학과 졸업
- 1989년 태고종 포교원장
- 1995~6년 태고종 총무원장
- 現 서울 사간동 법륜사 주석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무심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주위의 기운까지 함께 몰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 흘러 만갈래를 이룬 강물은 마침내 한 바다로 모입니다.

불법의 법수(法水) 역시 더 낮은 곳으로 후미진 곳으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이 절대의 진리를 좇아 살아가노라면 산너머 저쪽에서가 아닌 바로 우리 삶속에서도 이웃들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량겁을 두고 이어져온 우주의 질서이고 생명의 현상이지요. 사람사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모두의 지향(志向) 역시 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이란 다 행복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도정(道程)에 지나지 않아요.

행복의 바다는 중생들 모두가 희구하는 가장 크고 높은 목표이고 궁극의 이상향이예요. 무엇이냐 하면 저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로 들어가자는 것이지요.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우연히 길가에서 만행나온 해인사 장법행스님을 만났어요. 절에 가면 공부할 수 있다 하여스님을 따라 진양 청곡사로 들어가 행자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해인사로 들어가 출가를 했지요.

공부하고 싶어 출가한 것인데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산에 들어가 도벌꾼들을 감시하는 산지기 노릇부터 시작했어요. 5~6개월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반찬만드는 채공을 비롯해 공양주 소임을 3년간 살았지요.

그렇게 살다보니 공부하러 절에 왔는데 아침공양후 산에 가는 것이 일이고, 밥하는 것이 일이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려고 절에 왔는가' 고 회의가 들었으나 언젠가는 내 바람이 이루어지겠지 하며 인내하고 하심했습니다. 한번 발원(發願)을 하고 뜻을 세워 열심히 노력하다보면 다 이뤄지는 법입니다.

잘되고 못되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지요. 부질없이 일어나는 분별심을 버리고 자기가 처해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근면해야 됩니다. 근면하다보면 언젠가는 때가 오지요. 그때를 위해 평소에 자신을 갈고 닦아 기초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뒤늦게 강원에 입학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8년간 중·고등과부터 사교·사집과까지 공부했어요. 공부하는 것이 무조건 좋았던 그 시절처럼 행복해 했던 시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도반으로는 본각사 주지인 법인스님과 대구에 계시는 기용스님이 있어요. 법인스님은 해인대학을 거쳐 동국대 성균관대를 졸업했고 일본으로 유학가서 용곡대 대정대를 거쳐 동경대에서 박사과정까지 공부했지요. '공부버러지' 라는 별명이 붙을만큼 열심히 했어요.

은사스님은 감양택스님이었지만 당시 큰 선지식인 인곡 큰스님을 시봉했습니다. 스님은 늘 "중이 됐으면 부처가 돼야지, 부처가 될려면 오로지 참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스님은 또 대중들이 태만하지말고 항상 수행정진에 몰두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모여있거나 놀고 있으면 엄하게 꾸짖었지요. 일하든지 공부하든지 두가지중 하나를 꼭 하고 있어야 했어요.

강원공부를 하고 있을 무렵 최범술스님이 해인사 부동산을 담보로 대학인가를 얻어 해인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최범술스님은 초대 제헌국회의원도 역임했고 신익희씨와 국민대학을 설립하기도 했지요. 스님이 해인대학을 설립하는 바람에 해인사 강원생 모두가 산에서 내려와 대학에 입학했어요.

불교는 복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지극해야 성취합니다
자성불 찾아 열심히 수행하세요

대학 졸업후 사천 다솔사에 있는데 군대 영장이 나왔어요. 3년간 군대생활을 해보니까 중생사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게 됐어요. 요즘 사회 지도층의 군대면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군대에 안가려고 금권을 이용한 비리가 속속 밝혀지는 것을 보니 가슴 아픕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조각나게 하고 분열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사회 지도층 일수록 국민의 4대 의무에 솔선해야 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다운 삶은 진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인간다운 생활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5계를 좌표로 삼는다면 잘 사는 것입니다. 5계중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가 들어 있지요.

행복의 근원은 곧 진실이요, 거짓은 진실의 적이며 또한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불법을 따르는 우리 불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새 사회가 각박하다 보니까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남을 누르고 하는 사람이 경멸을 받기보다 '잘 사는 것' 이란 잘못된 시각이 범람하고 있어요. 불자들부터 이런 사회분위기를 고치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요즘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살도록 합시다. 참는 것도 공부입니다.

우리가 보물처럼 아끼는 이 몸뚱이라는 것은 가을날 나무에 떨어질 듯 붙어있는 나뭇잎처럼 위태롭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군제대후 불교조계종(조계종과 태고종이 분리 되기전) 서기로 임명되면서 불이성 법륜사에 갔지요. 대륜노스님이 몇마디 묻더니만 큰방으로 가라고 해요. 그래 여기 법륜사에서 덕암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40년간 살게 됐지요.

덕암스님께서 총무원장으로 계시면서

건·강·보·조·식·품·허·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간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영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디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불 로 화 정**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신에 사는 사람의 신선(神仙人)의 주식(主食)은 사계절에 푸른 소나무에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여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리.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앰으로써 불을 생(生)하기 (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인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八木)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사찰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이는 여래치신(치신)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송지 소나무임업장주(業場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강정(强精)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봉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흑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강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일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b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을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 【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강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053)628-9145/053)655-2227/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대구여래원

큰스님 수행한담

구함이 없으면 즐겁다"



◇ 1974년 일본 회원대학 유학시절 평화사에서 열린 생전예수재 법회를 봉행하고 일본 불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맨 뒷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혜초스님.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해요
내것인 것 같아도 내것 없어
인연따라 왔다 떠나는 나그네일 뿐

나를 부르더니 "공부를 더 하라"며 일본 화원대학에 유학을 보내주었어요. 일본유학시절 고려사주지 태연스님을 만나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학교도 같이 다니고 신세를 많이졌지요.

태고종 총무원장을 1년여동안 했습니다. 96년 원장을 그만둔 후 걸망을 둘러메고 선암사 무우전에 들어가 안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강원시절에 배운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초발심 시절로 돌아가 새로 시작했지요.

요즘들어 스님네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공부를 부지런히 하거나 체계있게 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강원에서조차 속성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불교가 종파불교로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80여개 종단이 난립한다니 불교가 발전하기보다는 장애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대의가 있어요. 이것은 '단악수선(악을 끊고 선을 행한다)'이지요. 불교의 요체도 '자비'예요. 불교는 자비정신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비란 해와 달이 만 중생을 비추는 것과 같으며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달빛이 아무리 밝아도 흐린 물속을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이 불보살님께서도 항상 자비광명을 비추지만 우리 중생들은 무명의 구름때문에 무한한 공명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금생이나 내생에 반드시 불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무명을 걷어내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속에 부처가 될 종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누구나 부처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예요. 부처이기에 부처님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불자들을 보면 불교를 믿는답시고 절에는 열심히 다니지만 건성으로 다닌다면 자신의 마음자리를 살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공인 마음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다스려야 합니다.

내마음이 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내마음이 없으면 이세상 어느것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자신을 부처님께 의지하여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뚱이를 올바르게 굴려야 합니다. 내 몸뚱이가 영원히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새가 병가운데 들어있어 뚜껑을 닫아 놓았을 때 새가 달아나지 못했지요. 그러나 언젠가 병이 부서져 새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알아야 해요. 새는 항상 병속에 갇혀있지 않아요. 이는 병을 몸으로 새를 마음으로 비유한 것이지요.

우리는 여전히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것인가'라는 인간의 근본문제 앞에서 고뇌하며 살아가지요. 때로는 좌절하고 신음하기까지 합니다. 무엇인가 지표를 잡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연하게 바깥세계에만 한눈 팔다보니 불안과 괴로움이 다르는 것이지요.

내것이다, 네것이다 라는 분별은 잘하면서 진작 우리가 잡아야 할 방향이나 영원히 사는 길이 두엇이냐에 대해서는 도리어 거추장스럽게 여깁니다. 다같이 한세계에 살면서 각기 다른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우리를 준엄하게 타이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有子有財 愚唯汲汲(유자유재 우유급급)
我且非我 何有子財(아차비아 하유자재)

내 아들이다, 내 재산이다 하며
어리석은 이는 괴로워 허덕이네
나의 '나'가 이미 아니거늘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재산이란 말이냐.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것이 내것인 것 같아도 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인연따라 이곳에 왔다가 떠나야 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이런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이것을 모르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지요. 집착하면 할수록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얻고자 하는 데에 괴로움이 있고(有求卽苦) 구함이 없으면 즐겁다(無求及樂)'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명예다 지위다 재산이다 하면서 무엇이든 내것으로 하려는 탐욕의 마음이 있어서 괴로운 것이예요. 만약 이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면 바로 안락의 경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아도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경지가 됩니다. 그러나 명예나 재산등을 구하는 탐욕은 끊임없이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깨진 독처럼 허망한 것입니다.

불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면서도 무조건 귀의해서는 불교가 올바로 서지를 않아요. 확실하게 이해하며 귀의해야 해요. 그래야 올바른 불교의 가르침을 볼 수 있어요.

불교의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체계가 아닙니다. 신앙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믿는 세계입니다.

보다 나은 삶을 바라고 보다 인간답게 살고자하는 마음을 일으켜 발심한 뒤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값진 나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또 전혀 다른 나로 바뀌어 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르게 믿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연후에 그것에 의지하여 행하면 마침내 얻고자 하는 보다 나은 삶, 보다 인간다운 삶을 성취하여 이상의 경계에 도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복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지극해야 부처님도 지극하여 무든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절에 모셔봤지만 부처님이 복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내 정성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성불을 잘 찾아서 기도하고 염불해야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을 버려야 심성이 청정해서 자성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상이 차서는 공부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됩니다. 심성을 가리는 것이 탐 진 치 삼독인데, 삼독과 아집덩어리가 쌓여서는 아무 것도 볼 수가 없어요.

一切萬有 無非道(일체만유 무비도)
道本無位 何處覓(도본무위 하처멱)
魔佛本是 無二性(마불본시 무이성)
猶如無鉤 水不窮(유여무언 수불궁)

일체만유가 도 아닌 것이 없다.
도는 본래 높고 낮음이 없다.
어느 곳에서 찾을꼬
마귀와 부처가 본래 둘이 아니다.
가히 물이라 하는 것은 다함없고 근원 없다.

정리=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비워도 잃을게 없는 것은 오직 마음
명예 재산은 깨진 독처럼 끝없이 채워야

나와 경전 60

대념처경



법 산
대구 동화사

불교의 핵심은 사성제이며 중도 즉 팔정도를 떠난 불교는 존재할 수 없다. 사성제를 기초교리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도 없지 않지만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크다. 일본에서는 이미 네 종류의 팔리대장경(남전대장경)이 나왔고 대만에서도 완간돼 원시경전의 이해를 넓히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팔리어원전 없이 몇몇 학자들의 손에 그 작업이 맡겨져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생애 마지막 발원으로 동화사 몇 분 스님들과 함께 영국 팔리성전협회본과 미얀마 삼장협회본을 저본으로 일역의 남전대장경과 팔리영역본을 참고하여 원시경전을 역경하고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대념처경(大念處經)〉은 원시경전 중의 하나로 육십을 비롯한 일체 번뇌를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고 생의 참뜻을 깨우치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로움에서 벗어나는 조건이라고 설교하는 것이 이 경전의 대략적인 줄거리다.

〈대념처경〉에는 제행무상, 일체개고, 제법무아 등 삼법인이 잘 나타나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생노병사를 비롯한 여덟가지의 괴로움을 겪는다. 이런 고통들은 한낱 생멸의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고통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끄달리거나 집착하지 않고 감각을 탐닉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 우리 몸에서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체의 덧없음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친다.

〈대념처경〉의 실천은 부처님이 직접 수행하면서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열반을 성취하셨고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제도한 불교수행의 핵심인 것이다.

"正念으로 대상을 깊이 관찰하라"
읽을수록 '어떻게 살 것인가' 길 보여

〈대념처경〉은 60권으로 구성돼 있는 〈중아함경〉 권26에 나와 있는 경전으로 4세기말에 인도출신의 학승 구담승가제파가 번역한 것이다.

이 경전은 〈사념처경〉 또는 〈염처경〉이라고도 하는데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바른 마음챙김(正念)으로 대상을 관찰하는 것을 가르치는 경전이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대념처경〉의 팔리어 원 제목 '마하 삿띠팟타나 숫타(Maha-satipattana-stutta)'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삿띠팟타나의 '삿띠'는 정념의 바른 마음챙김 혹은 바른 알아차림을 의미하며, '팟타나'는 몸, 느낌, 마음, 법 등 마음생김의 네 대상에 굳건하고 면밀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즉 마음챙김이 그 대상 속에 파고들어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어느날 부처님이 자신이 아직 불도를 원만히 이루지 못했던 때의 일을 여러 비구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욕심이 없고 성내지 않고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만 열반에 들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명상 속에서 온갖 잡념을 제거하는 것이 삶의 참뜻을 알고 인생의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조건이라고 설교하는 것이 이 경전의 대략적인 줄거리다.

〈대념처경〉에는 제행무상, 일체개고, 제법무아 등 삼법인이 잘 나타나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생노병사를 비롯한 여덟가지의 괴로움을 겪는다. 이런 고통들은 한낱 생멸의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고통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끄달리거나 집착하지 않고 감각을 탐닉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 우리 몸에서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체의 덧없음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친다.

〈대념처경〉의 실천은 부처님이 직접 수행하면서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열반을 성취하셨고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제도한 불교수행의 핵심인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어떤 식으로든 세우고 살아간다. 그러나 대부분 현상에만 집착할 뿐 정작 제대로 알고 도달해야 할 인생의 가장 큰 묶인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목표의식도 없다. 목표의식이 없으니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대념처경〉은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백히 가르쳐준다. 마음을 간추려 내면의 세계를 보면 나와 남이 없고 모자람이나 넘침도 없다. 오로지 시공이 초월된 세계의 모자람없는 충만함만이 있을 뿐이다. 이 경은 버리고 비우는 공부를 통해 맛볼 수 있는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세계를 잘 그려 보이고 있다.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려면 굳은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의지와 노력은 막연한 다짐으로는 오래가지 못한다. 무엇을 어떻게 채우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근본을 깨닫고 자기를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념처경〉을 권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장가안가길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 2권 각권 6,500원)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우학 스님의 책
☞ 삼천배 삼천부 처님(신간)
삼천배를 쉽게 하는 책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신간)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모음집
☞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
(전 4권)
불교가 이렇게 재미있군요…
☞ 새로운 불교공부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불자수행지침서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총 망라!
☞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상 · 하)
☞ 불교 EQ ❶❷
☞ 불교 한자 시리즈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사경,
초발심자경문, 증도가 외 다수

신묘장구 대다라니 시계



다라니란 말은 총지(總持)라고 번역하는데 법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음이라는 뜻이며 또한 신비한 주문(神呪), 은밀한 주문(密呪), 밀언(密言), 맑은 주문(明呪)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효험은 스님들이 잘 아심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 IMF 시대에 저렴한 가격에 불자님들에게 최고의 법보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 글씨를 보내 주시면 공단 또는 한지에 족자 · 액자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해 드립니다.

싸이즈 39×39cm
색 상 빨강, 검정
가 격 ₩42,000

※ 우편료 별도

주문 전화 ☎ 02)279-2715
FAX 02)275-3739
삼 · 보 · 기 · 업

卍 無爲眞人제3회 육신통(육경신) 정진대법회 卍

중생들이 윤달드는 해에 수생전 빚을 갚지 않으면 잠자는 중에도 놀라며 밤이 두렵고 잠인지 꿈인지 뒤바뀌며 사람의 몸속에 있는 삼신이 아득해져서 기억력과 침해로 고생하고 일곱가지 넋이 깊숙히 파고들어 정신도 모르고 중생의 혼백을 잡아당겨 정신도 못차리고 향락과 주색흡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집안에는 금년 三 합운이 들은 무인년 윤5월은 달입재하시면 어수선한 집안도 편해지고 울던 아이도 술먹는자와 공부못하는 자 바람피우는 자 잠잘 때 코와 이를 가는 자들도 모두 잠잠해 져서 신번에 닥치는 18가지 횡액에서 벗어나는 공덕에 참여하시여 선망부모의 왕생극락과 소원성취하시옵기를 아미타명호로 가름합니다.
특히 윤달드는 경신일에는 선비, 학자, 승려, 도인, 속인 귀하든 천하든 금생에 경신일에 입문하면 도통은 물론 천라주 · 지라주 · 일월황라주 일체마장을 항복받고 체중관리법과 금주비법과 신심안정과 병마를 이기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도이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기 바라옵나이다.

● 입재일 : 양 98년 7월 11일 (음. 5. 18. 토요일) 해시
● 해재일 : 양 98년 7월 12일 (음. 5. 19. 일요일) 해시
● 회 비 : 1박 2일 침식제공, 편한 옷차림, 5만원.
● 기도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구보자원고개 삼성 A.P.T.앞 하차)
● 전 화 : (주)02-821-6622/(야)02-923-3110
● 휴대폰 : 016-239-3110

육신통(육경신)도통 회장 태일법사 합장

윤달수의

어디서 구입할까?
한 번 팔고 사라지는 상인
몇 년을 불교장의사로 일해온 연합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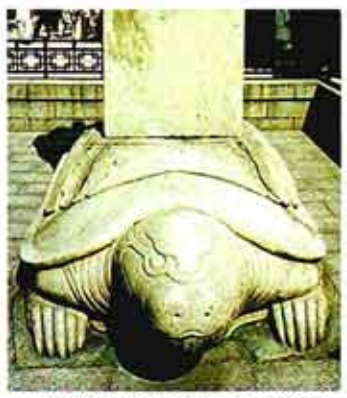
어떻게 구입할까?
직접 확인(만져보고, 태워보고) 하시고
비교하신 후 좋은 품질의 수의를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하세요.

전국불교장의연합회





◇소를 찾아 나서는 과정을 통해 깨달음의 과정을 10가지로 나타낸 심우도의 '득우'.



◇서울 탑골공원 안에 있는 원각사 비(보물 제3호)의 귀두. 1471년.



◇호랑이는 불교가 재래신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호법신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1892년 고방사 산신탱.



◇김교각스님 곁에서 스님을 도왔던 흰 삽살개상. 중국 청대 강희연간에 만들어져 구화산 화성사에 기증되었다.

불보살 곁에 등장…중생교화 보조역

월 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10



◇흰 코끼리를 탄 호명보살이 마야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팔상도중 도솔래의상(부분). 통도사 영산전, 1775년.

동물

코끼리 부처님 화신으로 여겨 신성시
소 '마음' 찾기 심우도 유명
사자 일체 항복시키는 지혜 상징

'옛날 한 사람이 들판에 나갔다가 미친 코끼리에 쫓겨 덩굴을 타고 우물 속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는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다시 오르려했지만 코끼리가 입구에 버티고 서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였다. 의지할 것이라곤 잡고 있는 덩굴 뿐이었다. 이때 어디선가 흰 쥐 한 마리와 검은 쥐 한 마리가 나타나 덩굴을 갉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절대 절명의 순간, 그는 벌집에서 흐르는 꿀을 발견하고 꿀의 단맛에 취해 모든 위험을 잊고 도취되었고, 그동안 대지에는 난데없는 불이 일어나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

부명에 싸여 죽음의 순간까지도 오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삶을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비유한다. 이 이야기에서 코끼리는 무상(無常), 우물은 생사(生死), 독사는 죽음, 덩굴은 생명줄,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 벌집은 헛된 생각, 꿀은 오욕, 불은 번뇌를 나타낸다.

이처럼 경전속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비유로써 등장한다. 전생의 부처님 모습을 그려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매한 우리 중생에 비유해 의인화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마야부인의 꿈속에 도솔천에서 흰코끼리를 탄 호명보살이 홀연히 나타나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가는 팔상도에서 보듯 코끼리는 불교를 대표하는 동물이다.

또 〈본생경〉 등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전생을 갖가지 동물의 모습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코뿔소, 호랑이, 뻐꾸기, 앵무새, 공작새, 닭, 비둘기, 도마뱀, 소, 해오라기, 자고새, 메추리, 악어 등.

■ 코끼리

코끼리는 설화나 도상에서 정신적인 힘과 부처님의 화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졌다.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흰코끼리를 신성시 하며, 때로는 부처님께 헌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불교의 일곱가지 신성한 보물중의 하나인데 등에 부처님의 보시 그릇을 실은 흰코끼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이다. 코끼리는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오른쪽 협시 보살인 보현보살의 탈 것이기도 하다. 덕이 높고 학식이 있는 고승을 용상(龍象)이라고 하고 큰 불사를 치를 때 스님들의 소임을 적는 것을 용상방(龍象榜)이라고 한다.

■ 사자

네 발 짐승 가운데 우두머리인 사자가 독보적이고 겁이 없으며, 일체를 항복시키는 것과 같이 부처님도 일체를 항복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불상의 대좌(臺座)에 사자가 등장, 사자좌라 한다. 사자좌(獅子座)라는 명칭은 또한 그 자리에 앉아 사자후(獅子吼)의 설법을 한데서 기인한다. 경전에서 사자를 자리에 비유함은 사자가 백수의 왕으로서 항상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 거북

장생과 길상을 상징하여 만년을 사는 고령동물로 알려졌기에 용, 봉황, 기린과 함께 사령(四靈)으로 불렸다. 〈삼국유사〉에 사미승 묘정이 황룡사 우물가 거북에게서 구슬을 얻어 총애받은 이야기와 진표율사가 명주 바닷가에서 놀어선 거북의 등을 밟고 용궁에 가서 계(戒)를 염송하고 온 이야기 등은 유명하다. 고승들의 비석을 괴는 받침조각으로 많이 장식돼 왔다.

■ 소

소를 찾아 나서 소를 발견해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심우도'는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고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을 사람과 가장 친근하고 근기가 굳센 동물인 소를 인용했다.



◇문수보살은 때때로 사자를 타고 현신한다. 1997년 2월 영암 도갑사에서 출토된 청동문수동자상.

보조국사 지눌은 자신의 호를 소를 기르는 이, 목우자(牧牛子)라 했는데 '참마음을 돌보아 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 호랑이

굶주린 호랑이를 위해 몸을 던져 보시한 부처님의 전생이야기, 희방사 오누이탑에 얽힌 이야기 등 호랑이는 용맹과 보은, 호법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다. 불교가 재래신앙을 수용하면서 호법신중의 하나로 불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산신각의 산신탱화에 단주나 〈법화경〉을 든 스님 옆에 다소곳이 앉아 있는 호랑이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 개

〈해인사 유진(留鎭) 팔만대장경 개간인유(開刊因由)〉의 이거인과 삼목대왕의 설화처럼 불교에서는 개가 조상의 환생이라는 속신으로 인해 개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다고 전한다. 신라에서 부터 당나라까지 경생을 따라다니며 김교각 스님곁에서 수행을 도왔던 흰 삽살개는 지금도 구화산을 지키는 영물로 여겨지고 있다.

■ 사슴

성현의 용재총화를 보면, 고려 환암국사와 사슴에 얽힌 설화가 나온다. 환암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13살 때 아저씨를 따라 사냥을 갔다가 달아나던 어미사슴이 세끼 사슴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크게 깨쳐 스님이 되어 국사까지 되었다는 것. 이처럼 사슴은 진리의 안내자로 상징되며 부처님의 전생설화에도 등장한다.

■ 닭

지리산 암자에서 정진하던 서산대사가 큰 외문에 부닥쳐 고뇌에 빠져 있을 때 낮닭이 홰를 치며 크게 우는 소리를 듣고, 순간 일체의 분별이 떨어져 나가고 주관과 객관의 경계도 없어져 외부 현상이 그대로 마음자체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닭 울음소리는 오도의 기연(機緣)이 되었다.

■ 말

대장관세음보살이 육도를 순회하며 중생을 교화할 때 성관음, 천수관음, 마두관음, 십일면관음, 여의륜관음으로 현신한다. 그 중에서 마두관음(馬頭觀音)은 축생도(畜生道)를 교화할 때의 현신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연곡사 동부도(국보 제53호) 상륜부를 장식하고 있는 가릉빈가.

■ 상상속의 동물

가릉빈가 아름다운 목소리 '극락조'
해 태 정법과 불제자의 수호신

■ 가릉빈가

가장 널리 알려진 상상의 새로 정토 만다라 등에 사람의 두상과 새의 몸, 용꼬리가 달린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 자태와 소리가 아름답고 묘하여 묘음조, 호음조, 미음조라고도 한다. 극락에 깃들인다 하여 극락조라 부르기도 하며, 부도의 상륜부에 주로 조각돼 죽은 자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 금시조

가루라(迦樓羅)라고도 한다. 고대 인도 사람들은 새의 과수로서 큰 새의 존재를 생각하고, 대승경전의 팔부귀중(八部鬼衆)의 하나로 자주 인용했다. 밀교에서는 대법천 대자재천 등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금시조로 화현한 것이라 전하기도 하고, 문수보살의 화신이라고도 한다.

■ 봉황

고대 중국에서 신성시했던 상상의 새로 수컷을 봉, 암컷을 황이라고 한다. 봉황은 암수가 서로 사이좋은 새로 알려져, 도량에 봉황이 나타나는 것은 불국토가 이룩돼 부처님의 공덕이 온 세상에 미쳐서 천하가 평화롭고 중생들이 행복하게 살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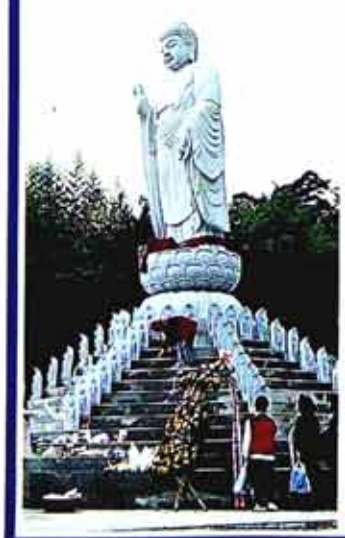
고대 목조건축에서 용마루의 양끝에 높게 부착한 장식기와 치미(鴟尾)는 봉황을 본따서 만든 것이다.

■ 해태 (해치)

과사현정의 수호신으로 불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수호하고, 불법을 비방하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 사찰에 장식된다. 사찰의 명부전에는 죽은 이의 영혼을 심판하는 탱화가 그려져 있는데 10대 법왕이 해태관을 쓰고, 죽은 이의 영혼을 정법으로 심판한다.

■ 현무

북쪽 방위에 있으면서 수기(水氣)를 받은 태음신인 현무는 거북과 뱀이 합쳐진 모습으로 생각되어 왔다. 흔히 옛날 무덤속에서 발견되나, 부처님의 도량을 지킨다는 뜻에서 절 벽화에서도 발견된다.



성·동·석·재·불·사·공·예·사

"오랜 전통과
최고의 작품으로 모시는 것이
불교석재조각의 대가
성동석재불사공예사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20여년 동안 쌓은 섬세한 조각기술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작품조성으로 보답하고자 하오니 고승대덕 큰스님 및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대표 김 성 수 합장



성동석재불사공예사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성동 5리 822-2
전 화 : 0357)31-8736 팩 스 : 0357)31-5549
호 출 : 012)321-6044 핸드폰 : 011)284-5101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불성에 일체놓고 뛸 때 참자기 소생

토끼 치어 살생했어요

문 살생의 인과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에서 늦게 시내로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는데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도로로 뛰어드는 걸 봤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토끼가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밟지 않으려고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그 안에서 계속 뛰었나 봅니다. 순간적으로 오른쪽 바퀴가 물컹하면서 토끼가 바퀴에 깔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 밟았구나, 죽였구나' 하는 생각에 핸들에 머리를 박고는 한 5분 정도를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불교를 접하고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이론으로는 '생물을 죽여도 주인공 네가 한 것이고 또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 더 좋은 몸 받아야지'라고 관하는 걸 알면서도 막상 내가 토끼를 죽였다고 생각하니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내려보니 조그만한 토끼의 창자는 저쪽에 떨어져 있고 껍데기는 이쪽에 있고 그렇게 처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생각에 근처 풀숲에 묻어주고 풀로 잘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스님, 그 토끼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불교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하찮은 생물이라도 죽이면 천벌을 받는다는 관념이 강하게 있었는데, 그 토끼로 인해 새롭게 배우는 것도 있었습니다. 스님, 이럴 땐 어떻게 돌려놔야 하는지요?

답 그 당시에 댁은 달아나는 토끼를 잡으러 가서 일부러 죽인 게 아니죠? 그렇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연의 소치죠. 그리고 주인공이다 뭐다 관하는 것도 잊어버렸지만 벌써 마음속으로 애처롭다 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했으니 그 트끼는 위안을 받고 이미 천도가 됐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겠네요. 살생이라는 것이 일부러 좇아가서 남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한 거지, 갑자기 들이닥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다급한 경우에도 내 생명같이 아끼고 내 생명같이 애처로와 해주면 그것이 다 잘될 수 있다는 거죠.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도 주인공이란 그 이름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댁의 마음이 주인공이니까요.

옛날에 흘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아들이 부인을 얻었는데, 어떻게나 자기 어머니를 구박하는지 불도 제대로 때드리지 않고 먹을 것도 제때에 주지 않으니 그걸 보는 아들의 심정은 참담했겠죠. 하루는 어머니와 부인 양쪽을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한가지 지혜를 짜내고는 무릎을 탁 친 거예요. 그래서 어느날 일부러 장에 갔다오는 척하면서 부인을 불러서는 귓속말로 "여보, 남이 들을까봐 무섭소"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장에 갔더니 살이 통통히 찐 노인네들을 데리고 와서 파는데 소 30마리 값을 받더라 이랬거든요. 그리고는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 "당신 마음은 어때!" 하니까 "아유, 당장 해야죠"하고 아주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며느리는 오로지 시어머니를 살찌워서 장에 내다 팔 일념으로 온갖 정성을 다해 모시니, 시어머니는 병이 낫고 살이 찌고 좋아서는 매일같이 손주를 업고 동네에 나가 며느리 칭찬하기에 침이 마릅니다. 그걸 보는 아들은 속으로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며느리 생각에 이제는 됐겠다 싶어 다음 장에는 팔리라 마음먹었는데 아, 그러던 차에 나라에서 효부문을 세워준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제는 남편이 팔아라 해도 못팔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진짜 효부가 됐더랍니다.

그러니 그 남편이 오직 한마음으로써 얼마나 연구를 잘 했으면 이쪽도 살리고 저쪽도 살리고 양면을 다 살렸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며느리처럼 일념으로써 오직 '살찌워서 장에 갖다 팔겠다. 팔면 큰 돈을 받는다'는 이 한가지만 생각하고 들어가란 얘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그저 한군데 밖엔 없으니깐요. 저승과 이승을 넘나드는 데는 한군데 밖에 없어요. 내가 나온 자리로 다시 파고 들어: 들고나는 데에 손색이 없죠. 그래서 저승 이승 양면을 들고 나고 왕래 할 수 있다면 생사가 벗어집니다. 그러면 구경에 이르게 되고 그때는 평등한 공법에 의해서 용무를, 스스로 걸림없이 끝간데 없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영원히 자유스럽게 사는 거죠. 내가 수만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수천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직접 응신이 돼서 그 사람 몸을 빌려서 나툴 수도 있고 말입니다. 이건 바로 자유자재권입니다. 그러는 중에도 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대권입니다. 부처님께서 수없이 당신이 걸어온 길과, 더불어 배운 길과, 깨달은 길과, 그 도리를 상세히 일러줬는데도 배우는 사람들은 오히려 잎새가 많아서 뿌리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 종자의 뿌리가 바로 당신을 이끌고 있다는 것, 오직 자기 뿌리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직접 들어가는 길이죠.

우리가 아무리 모르고 어리석다 하더라도 오직 한군데를 기준해서 모든 걸 입력한다면 현실로 나오는 것도 그렇게 스스로 능력있게 자재할 것이요, 또는 세세생생에 자유권을 얻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새 것을 입력해 놓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큰 보배력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다 놓아야 합니까

문 스님께서는 늘 놓고 살라고 하시는데 막상 그렇게 해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놓는 자리가 궁금합니다. 그러다보니 놓긴 놓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놓아진 것인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다 놓아야 합니까?

답 나온 자리에다 되 놓으라고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렸었지요.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엎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나야 하지요.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재차 질문을 하시니까 또 말씀드리지요.

먼저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올때는 어디서 나왔고 내가 사라질 때는 어디로 사라지는냐? 하는 문제 말입니다.

그걸 아시기는 어려우실테지요. 그래서 말씀인데 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공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라질 때도 공에서 사라집니다. 이 자리가 바로 정통의 자리이니 실은 어디 또 찾을 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공에서 나왔고 공으로 사라진다, 이것을 아셔야 하는데 그렇더라도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역대 조사님들도 누누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 모든 생활을 누가 하고 있는가? 누가 내고 있는가? 어떻게 내고 들이고 하는가? 를 지켜봐야 합니다.

모든 걸 몰록 놓으라고 하는 것은 부정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부정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긍정으로 나오게 하려면 들이고 내는 것을 지켜보라 이겁니다.

공에서 나왔고 공으로 돌아가는 것을 모름으로써 이론도 많아지고 방황하게 되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따지다가는 어느 때나 맛을 보게 될지 아득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럼 왜 무조건이냐? 첫째로 자기를 몰록 죽이고 자기한테 자기가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생조차 이롭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서 전체와 하나가 되고 이 대궁의 인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체는 다 한자리에서 나왔다가 한자리로 돌아 가는데 내가 소궁의 인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겠으며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이치를 터득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꾸 이론을 따지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방황을 하면 놓는다 해도 놓은게 아니고 공덕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거든 무조건하고, 자기 죽는 셈치고 생각나기 이전 불성 그 자체에 일체를 맡겨 놓고 몸만 뛰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다시 자기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알고 믿는게 옳지 않을까요

문 믿음이 곧 공덕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스님께서도 무조건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뭘 믿어야 하는 지도 잘 모르겠고 또 알고 믿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답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은 그림자요 사량에 불과합니다. 그걸 보지 말고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들이고 내고 하는 그 이전, 생각나기 이

☞ 16면으로 계속

"나는 '空'에서 왔고 '공'으로 사라집니다 이곳이 정통자리니 또 찾을데 없어요"



그림 · 최주현

이승 · 저승 양면 다 들고나야 생사벗어나 내가 나온 진여본체 자리가 바로 '주인공'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75)

번뇌의 벽돌을 쌓고 모아서 어떤 집을 지으려나.

"옛 선사께서 이르시기를 '진리의 길은 어렵지 않으니 버릴 것은 오직 간택하는 마음 뿐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는 절로 탁 트여 대낮처럼 환하니라.' 하셨다. 이 공부를 하려거든 분별하여 취사선택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상을 상으로 밝게 보되 상에 물들고 상에 얽매이고 상에 집착해서는 안되거늘, 역으로 온 종일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하는 식으로 분별하며 살고 있다면 하천세계로 떨어지는 것을 절대로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한생각 잘못하면 팔만 사천 번뇌가 털 구멍을 통해 들락거리고, 한생각 잘 내면 팔만사천 부처가 들락거린다."

한생각 바르게 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로 팔정도를 제시하셨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하면 반드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다.

정상을 향해 산을 오르는 사람이 한눈 팔지 않고 묵연히 길을 따라 걸으면 정상에 이를 수 있듯이 깨달음의 길도 그러하다고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길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간다. 잘 다듬어진 등산로를 버리고 계곡을 따라 내려간다. 꽃구경 물구경에 넋을 잃고 갈 길을 잊기도 한다.

길은 어렵지 않은 데 한눈을 팔고 있으니 정상은 가마득하게 된다. 아예 왜 산길로 들어섰었는지를 잊는 경우도 많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분별심으로 맞고 분별심으로 보낸다. 잠시도 분별심이 멈추질 않는다. 처처에서,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생각하는 게 한결같이 분별하고 간택하는 마음 뿐이다. 싫다 좋다는 분별, 이건 바람직하고 저건 마뜩치 않다는 간택. 우리는 하루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싫은 경계, 마뜩찮은 일이 닥아오면 곧 번민에 휩싸인다. 마음은 번뇌로 들끓게 되고 삶은 갑자기 괴로움으로 변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란 감정에 휘둘리고 생각에 얽매인 노예같은 삶인 셈이다.

맞닥드리는 경계 속에 번뇌의 요소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니다. 경계는 경계일뿐 거기에 번뇌란 애초부터 없다. 그것은 단지 현상일 뿐이고 달리 표현하면 정보요 재료일 뿐이다. 경계가 번뇌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다만 우리 자신의 오판(誤判)에서 비롯된다. '나'라는 생각, 개인적인 고정관념, 감각적인 느낌들이 단지 정보요 재료일 뿐인 것을 가공하고 염색해서 좋은 것 싫은 것으로 분별하고 간택하려 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번뇌가 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황금을 볼 때 어떻게 보는가. 가치의 척도 또는 저장수단으로 보질 않고 자만심이나 성취의 상징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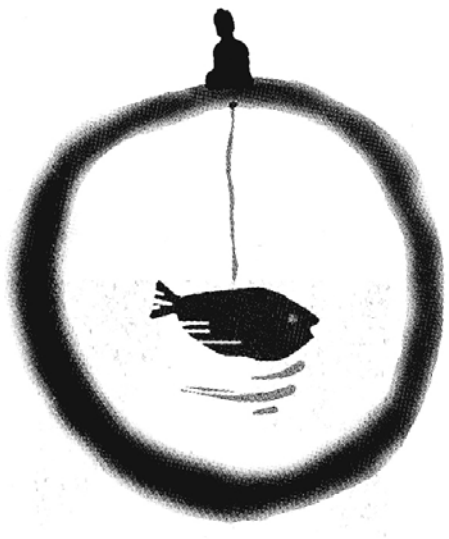
옷을 볼 때 어떻게 보는가. 몸을 보호하는 외피로 보질 않고 자기과시의 치장물로 본다.

음식을 볼 때 어떻게 보는가.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 이상으로 미각에 집착한다.

자동차를 볼 때 어떻게 보는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분의 상징으로 본다.

모든 대상물을 우리는 그렇게 본다.

바로 무지인 것이다. 고로 무지는 분별로 분별은 번뇌로 이어져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도의 길로부터 멀어져 간다. 그뿐 아니라 번민하지 않아도 될 일에 속을 썩히느라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다. 결코 어렵지 않은 도의 길은 그래서 더욱 까마득해지고 그 길은 무척이나 어려운듯이 느끼게 된다.



우리는 하루하루 번뇌를 벽돌 쌓듯 쌓고 모아서 그걸로 자아라는 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앉아 오가는 경계를 간택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다. 어찌 삶이 괴롭지 않으랴.

그러나 도의 길은 어렵지 않다고 했다. 부처님께서 설명했고 조사들이 증언했다. 한생각 바르게 돌리면 그 순간부터 도의 길은 내 집 앞으로 뻗어있음을 알게 된다고 하셨다.

분별하는 마음을 쉬고 경계를 다만 경계로 보자.

'물은 날보고 물처럼 살라하네.' 라고 했듯이 경계라는 물은 다만 내게로 흘러 왔다가 조만간 흘러갈 것에 불과하다고 보자. 그러면 그 경계 속에 담긴 재료와 정보가 새삼스레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이미 여덟겹의 바른 길로 들어선 것이다.

협찬 : 김정윤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자기 인가 받아야 둘아닌 도리 터득

☞ 15면에서 계속

전의 도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본래면목 불성의 자리인데 그 불성을 에너지라고 비유한다면 그것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믿고 타의의 어떤 것을 믿으라는게 아니라 불성이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이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로 하려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데 전체가 같이 돌아가니까 나라고 내세울 게 없는 불성, 전체 불성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가 나온자리, 전체가 나온 자리가 다 불성 자체라, 그 진여본체 자리에다 내 믿음을 붙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걸 이름해서 '주인공'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형성시켰고 이날까지 나를 끌고 왔고 또 끌고 갈 주인공에 일체를 놓고 맡기면 그것이 곧 믿음이기도 합니다.

본래는 공에서 나왔으니 공으로 사라져서 허당하다 하지만 그 허망한 것이 바로 꿈이면서 실제라, 이 두 여건을 한데 합쳐서 누가 해왔냐는 것인데 처음 들어갈 때는 그렇게 들어가야 내가 나를 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더불어 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들 너무 잘 아는 걸로 돼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 안다는 게 가로막아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자면 아는 것 모르는 것을 몰록 주인공에다 일임하고 놓아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 말하면서도 늘 한탄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걸 믿고 살아들 가는지? 이 각박한 세상에 어떤 걸 근본으로 세워놓고 다니시는지? 그게 이론이나 사량으로 볼 문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내 살림하는 것과 마음공부가 별개가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한군데로 들고 납니다. 그러니 무조건 믿고 놓았다가 내 살림이 어떻게 되는게 아닐까 염려할 것 없습니다. 잘 되는 것 못되는 것을 몰록 놓고 가야 합니다.

어느 누구라고 부자되고 싶지 않은 사람 있나요?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잘 하고 잘 살고 싶지요.

하지만 본처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 애비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식이 고아로 살듯이 이 전체 우주를 싸고 있는 불성 자리를 모르고 또 가르쳐 주어도 안 믿기 때문에 애비는 자식을 모르고 자식은 애비를 모르는 딱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디로 가야할지 길을 모르니까 이리 가면 좋을까 저리 가면 좋을까 하고 자연히 방황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이쿠, 또 빠졌구나, 이걸 어쩌지' 울고 불고 탄식하고…. 그러나 장님이나 다름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기 애비를 자기가 찾아야 한다, 귀가 뚫리고 눈이 뚫려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애비는 장자리, 전체 우주를 싸고 있고 과거 미래 현재를 싸고 있는 일체 불성이고 에너지가 충만하니 무한 능력이 있느니라, 장자라는 말이지요.

가톨릭에서 성부, 성자라고 하는데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부, 말하자면 애비는 능력만 있다 뿐이지 자식이 운전하기에 달려 있으니 무한에너지를 쓰고 안쓰고는 성자에게 달렸느니라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애비를 모른다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줄도 모르고, 그걸 모르니까 그저 조금씩 얻어서, 빌어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려니까 감질이 나고 늘 불충분하고 모자라는게 많고 안되는게 많아요.

다 갖춰져 있느니라 하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스스로 애비없는 고아인 줄로만 아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알게 되면 고통도 없고 아주 적절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으로 기둥하나 세우고 거기다가 다 놓아라 했는데…, 길잡이로 말입니다. 처음부터 배워나갈려면 그래서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 무조건!

이건 이치에 어긋나는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이죠. 무조건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싸고 있는 너의 본래 면목, 이걸 주인공으로 알아라, 그 안엔 부처도 있고 약사도 있고 지장도 있다, 그 속에서 의사도 꺼내 쓸 수 있고 명줄도 꺼내 쓸 수 있다, 그러니 믿고 거기서 모든 걸 한다고 몰고 가다보면 의정도 생기고 생짜배기 소리도 들리고…, 그러다가 자기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보자, 따라가보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랬는데도 뭔가 잘 안됐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거기서 다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흔들릴 때는 '그래도 주인공을 믿는다, 나를 이리로 인도한 것이니까 그대로 믿는다'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몰록 놓지 않고는 의정도 날 수 없고 의정이 없으면 공부하기도 어렵습니다.

말이나 생각나는거나 전부 놓아버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믿고 놓는 것을 첫번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디다가 놓아 버릴 데가 없는데 어디다 놓느냐고 합니다. 네 본래면목 주인공에다 놓아라, 네 주장자에다 놓아라 이러는데도 말입니다.

아무튼 놓아 버리고 일임해 버리면 모든 과거의 애고, 유전성 업보성이 몰록 쉬게 됩니다. 쉬게 되면 앞으로 가질 것도 없고 짊어질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 비로소 새 소리도 듣고 물소리도 듣고 짐승 소리 벌레 소리도 듣고 사람 소리도 듣죠. 비로소 사람 소리 풀 벌레 소리를 듣게 되니 눈도 천이요 귀도 천이요 손도 천이라, 모두 다독거려 주리라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법이 어디있나 했더니 바로 내 본래면목에서 나오는 것이로구나, 이 본래면목이라는게 무한의 길을 서슴없이 다닐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로구나 하는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제 애비 자리 몰라 고아로 살듯 불성자리 모르고 안믿기 때문에 방황하는 딱한 일 벌어집니다"



그림 · 최주현

극락이 범천에 있다는데…

문 불교를 믿는다는 분들께 불교를 왜 믿느냐고 하니까 '극락왕생'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마음 안에 극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분이 묻기를 범천세계 어디쯤에 극락이 있다는 데 거기가 어디냐? 고 했습니다. 얼른 대답을 못했습니다. 한 말씀 고대합니다.

답 자신을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지요. 내 자신을 모르고 남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범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옥도 있고 이 세상에 범천도 있으며 천당도 있습니다.

세상살이를 가만히 보세요. 잘못을 저질러서 불잡혀 가질 않나,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서 마음의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질 않습니까?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서 마음 편하고 몸 편하니 거기가 천당이고 극락이지요.

어디 극락 지옥이 따로이 존재하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교회 친구 포교하고 싶어요

문 제 친구가 지병 때문에 오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에 다닙니다. 몸이 아프니까 갈수록 하나님에 매달리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저는 친구보고 하나님은 마음속에 계시니 밖에서 찾지 말고 기도를 하더라도 안으로 하라고 일러 줍니다. 하지만 제 친구를 적극적으로 인도해서 부처님 말씀을 따르게 하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는지요?

답 이 세상 사람치고 불교와 어떻게 동떨어져서 산다고 하겠습니까? 불(佛)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교(敎)는 우리가 생활하며 돌아가는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그대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뭣이 있다고 따로 따로라고 생각을 합니까? 불교는 어디에 국한된 종교가 아닙니다.

저 태양이 똥구덩이라고 비추지 않고 아니라고 비추고 합니까? 단지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태양 빛이 들어가질 못할 뿐입니다.

그와같이 이 마음이 내면세계로 향해 한마음 일으켜서 이끌고 다스리는 마음이라면 몸도 좋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친구를 불교로 이끌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세요.

풀 한포기도 불교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교 따로 있고 기독교 따로 있다고 할 게 없지요. 그렇게 마음을 좁게 써서는 안됩니다. 모두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좁게 쓰면 고가 따르고 넓게 쓰면 여여하지요.

그저 믿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나도 이끌고 남도 이끌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관음보살처럼 회향을…

문 스님, 저는 어려서부터 장차 관세음보살님 같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회향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염불기도의 습이 붙어 있습니다. 습이 깊어서인지 몰록 놓아지질 않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우리는 항시 행을 하고 회향하고, 행을 하고 회향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회향이 따로 있겠습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른 길을 지켜간다면 그것이 믿음이며 회향이 아니겠습니까?

몰록 놓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마저 맡겨버리세요. 앞에서 질문하신 분들과 비슷한 경우니 앞의 대답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태열 아이가 자폐증까지

문 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병치레를 자주 하지만 병원에 가본 적은 몇 번 안됩니다. 공부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관하면서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살바기가 근래에 들어서는 태열 때문에 온몸이 성치를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완치란 불가능하고 다만 잘 관리하라고 합니다. 게다가 초기 자폐증세가 보인다고도 합니다. 스님의 말씀을 청합니다.

답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마음 주인공 속에는 지장도 있고 약사도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진실로 믿고 맡긴다면 과거의 유전성, 업보성도 다 녹아내리게 됩니다. 병원에서 완치란 불가능하다고 한 모양인데 가능하고 안하고는 내 믿는 마음에 있지 그들의 말에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사를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보조자입니다. 주인은 어디까지나 내가 아니겠습니까? 관하는데 잘 안된다는 생각까지도 몰록 놓고 맡겨야 합니다.

놓는데는 무조건이라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뜻

문 부처님 법을 따라 배우는 학인으로서 조금 당황스럽고 불만스러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공'을 말할 때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뭔가요?

우리가 성불을 목표로 공부한다고 할 때 저기 금강산이 있으니까 금강산엘 간다 라고 확실히 말하듯이 '성불은 있다', '성불은 이런 것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을 해줘야 따라갈게 아니겠습니까?

답 여지껏 배우고 공부했다고 하니까 그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군요.

묻고 대답하고 하는게 생각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침반을 똑바로 두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게 공부고 여여함이지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처럼 딱 부러지게 말하라고 하는 분들에게 부정을 거쳐 긍정으로 나오게, 말하자면 실상을 바로 보게 할 요량으로 내리친 것인데 제대로 알아 들는다면 부정이다 긍정이다 할 것도 없지요. 그냥 몰록 놓아 버려라 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몰록 놓고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그냥 여여하고 여여하면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성불이다 견성이다 부처다 하는 게 다 이름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 보고 있느냐 없느냐 말하라고 하는데 자기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있는 줄 알았을테니 그건 날더러 물어볼게 없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으앙' 하고 나와서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 벌어진 것도 알았고 우주도 알았고 종교가 있다는 걸 알았고 도니, 성불이니를 알았지 누가 알려준다고 아는가요.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해서 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것이 유위법만이라서, 말하자면 50%밖에 안되는 걸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게 되는데 실상은 보이지 않는 50%가 똑같이 있다. 그러니 이 교차로에서 양쪽을 다 거머쥐고 알아야 할 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위법으로만 보면 있다 없다가 딱 부러지겠지만 실제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헌데 바로 내가 그 산 증거라 이겁니다. 우리가 찰나찰나 나투며 지금 살고 있는 게 증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색이자 공이고 공이자 색인 것을 이름해서 '주인공'이라 했고, 이거다 저거다 따지지 말고 주인공에다 몰록 놓아버리라고 했습니다. 감사한 것도 거기다 감사하고 내는 것 들이는 것이 다 거기서 들고 난다고 믿어 몰록 놓고 가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교차로에서 유·무가 상통하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이건 부정과 긍정을 다 포섭한 평등공법이라 할 수 있지요.

"나를 형성시켰고 이날까지 끌어왔고 또 끌고갈 주인공에 일체를 놓고 맡기면 그것이 곧 믿음이죠"

진실로 믿고 맡길 때 유전성·업보성 다 녹아

지옥·천당 따로 없어…심신 편하면 거기가 극락

꿈꾸는 실체가 있습니까

문 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느 때는 제가 가보지 못했던 곳, 해보지 못했던 일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꿈이 선명한 걸 보면 이 육체는 가상이고 따로 진상이라는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평소에 내가 다녀보지도 않았고 해보지도 않았던 일들을 선명하게 꿈꿀 수 있겠습니까?

답 그게 다 살던 습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나기 이전을 모르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시에 자기 모습을 가지고 다니지만 실은 지금만 사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에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낯선 곳을 다니는 것 같아도 잠재의식에서는 낯선 곳이 아닌 것이죠.

꿈이다 생시다 하지만 지금 모습이나 꿈에 본 모습이나 다 자기모습이요 둘이 아닙니다.

놓는' 준비가 필요한지요

문 스님께서는 놓으라고 하십니다. 놓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을 건넌 후라야 배를 버릴 수 있지 건너기 전에 어떻게 몰록 놓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놓으려면 놓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답 강을 건너야 배를 버린다? 그건 이론이지요. 합일되는 건 나중이구.

그래서 공부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기에 내가 성품자리를 주인공이라고 세워 봤을 때는 일체를,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것도 너, 건너가는 것도 너, 오는 것도 너, 가는 것도 너, 당하는 것도 너, 후려치는 것도 너, 밥 먹는 것도 너라고 몰아 놓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게 하든 오게 하든 모든 것을 주인공에 일임하고 놓아 버렸을 때 비로소 소생을 하지요. 그게 바로 탄생입니다. 그런데 준비는 무슨 준비입니까? 우리가 자기를 못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자기가 생긴 자리가 놓는 자리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남이 준 화두보다 제 화두가 진짜 화두요, 내 의단이 진짜 의단인 것이지요.

협찬 한마음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 합니다.

• 건 강 •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제3의학 · 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18 · 8128
H. 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밀교 · 기공 · 지압 · 쑥뜸

본래의 건강을 찾습니다.
당뇨 · 고혈압 · 간경화 · 관절염등
※ 3~7일간 지도 ※
대한불교조계종 **如來院**
능인 간병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739-11호
0351-875-0342/015-8487-3674

쑥

■ 한달분(60첩)
평생무료진료

1백으로 쑥향의 느낌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습니다!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IMF가격: ~~₩98,000~~
→ ₩50,000
천호한방 정 재 환
015-7705-5457/016-341-4584
천호가족이 되신 분은 천호인술한의원에서 평생 무료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천호인술한의원(전국 최대 의료보험요양기관)원장 한의학박사 한덕현(前경지한방병원장) -

불심과 정성으로 보살피는

불자 간병인

◇ 환자 간병 / 산모관리
◇ 12시간 3만원 /
24시간 4만 5천원(환자)
◇ 산모관리 숙식1달기준 130만원
출퇴근 1일기준 3만 5천원
◇ 서울 - 무-제98-1호 허가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03-15
◇ ☎ 02)363-7884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 강 좌 •

현정 심성개발 · 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강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만다라 개운법 (九 성기학 급소) 학인모집

■생활철학, 운명판단, 운세개운, 풍수, 방위, 실점
■발행 저서
- 「변하는 손금, 바뀌는 운명 · 가정수상술」
- 「백리길 여행으로 운명이 바뀐다」
- 「만다라 개운법」

※ IMF시대, 시대 흐름을 알고 대처하는 지혜
※ 일본 운명, 관상술 한국지회장, 일본 점술협회 정회원
직접지도 저자 배 성 현 · 김 식 이
서울사무소 02)872-3452
수원사무소 0331)258-1669

★동양사상을 공부하실 분★

■ 과 목 : 불교경전, 참선지도, 노장사상, 주역원문, 관상, 가상(家相), 풍수
■ 강 사 : 金 棗 瑚 居士
(전강, 탄허스님 門下에서 수학 · 월정사 주역강사)

★ I.M.F 이 어려운 시대, 무엇이 문제인가?
※ 출장상담도 해드립니다.
02)914-6551
011)755-5333
달마선원 김 소 호 합장

동양비전특강

혼자서는 백년을 공부해도 인연이 없으면 알기 어려웠던 신선(神仙)이나 선도인(仙道人)들이 알고 있던 간단하고도 알기쉽고, 명확한 비급을 함께 연구할 회원을 약간명 모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의문점을 물어도 알고, 물지 않아도 알고 일년 당월 당일 당시의 용건도 알고 마음속까지도 알고 비전되어온 도액비방과 의술단방도 알 수 있는 것이 동양비전입니다.
※ 상대앞에서 사주를 풀어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인지도상담)
※ **동양비전연구학회** ※
02-597-6211, 017-332-1633

전통불교의식 학인모집

●교양과정: 일상생활불교의식, 상용의식, 통과의례 〈매주 월 · 목 오후 3시〉
●기본과정: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 시식등 〈매주 화 · 금 저녁 5시〉
●중급과정: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특별의식 〈매주 화 · 금 저녁 7시〉
●어산작법: 초급과정: 바라무, 나비무 작법, 어산초급과정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원왕생과정: 불교식 장의 장례(다비의식)〈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원왕생 봉사회원 모 집 ※각 과정 통신생 모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 구인구직 •

경력 간부 관리 사원모집

삼보에 귀의하오며,
함께 일할 도반을 모십니다.
■ 연 령 : 40세이상
■ 대 상 : 남 · 여
※ 주부 재택근무자 모심.
전화 02)738-4224
(法淨) 나 찬 귀 합장

부전 스님을 모십니다

(기도 잘 하시고 참신한 스님)
아래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052)211-3340

• 수련원 •

도원불교수련원 (智庵精舍)

⊙ 개인 및 각 신행단체 수련 대환영 ⊙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 潭 合掌
전화:0374-32-7464 F:0374-33-7464
※ 명퇴자 대환영 ※

하계수련대회 유치

삼도봉의 청정계곡에 위치한 만계사에서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학생 및 불교신행단체의 소규모(50名이내) 하계 수련대회를 유치할 예정이므로 대회개최를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 일정을 잡아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김천 만 계 사
0547)437-4135 ~ 6

용굴산 종합심신 수련원

◆ 東 禪 寺 ◆
전통예술과 고유무술을 한 곳에서 배울 수 있는 종합 수련원으로 대금, 태평소, 가야금, 바라춤, 전통무용, 사물놀이등과 선무도, 봉술, 전법, 호신술등을 지도하여 文, 武, 藝를 겸비한 全人敎育의 場을펼치고자 하오니 우리 문화와 예술에 관심 깊은 분의 많은 수련을 바랍니다.
- 일반 회원은 매주 화 · 목 · 토 수련가능
- 스님 행자는 특별 개인지도하여 출입지도 단체지도도 가능함
- 스님의 심사를 거쳐 지도자 자격부여(타 무술 유단자도 환영함)
0523)82-5074, 388-0921(FAX 겸용)

• 불교용품 •

수맥(水脈)을

바로 알면 건강해지고
집안이 흥해집니다!
●공부 잘하던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원인도 없이 시름시름 앓고
●매사 의욕이 없고 우환이 잦으시며
●집안에 중풍이나 치매환자가 있다면…
※ 수맥상담 및 출장 탐사
실로암수맥연구회
02)362-8466/392-8621
FAX 02)392-8621
※수맥연구원 약간명 모집

◆보 리 수◆

취급 품목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탈종공고 •

탈 종 공 고

한국불교조계종 귀하
■사찰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8-1 무학사
■주 지 : 정 모 계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8. 7. 7.

• 학 원 •

소운서예학원

강동구 상일동 124-1
(고덕6단지)
02)
427-5369

청우서예학원

하남시 창우동 530
은행APT 종합상가 303호
0347)
794-2818

• 기 타 •

토굴 시공합니다

0595)82-7945
011)859-6846
토굴전문 시공자
김종경
82-9214
토굴 시공
김종배

• 사찰안내 •

전국사찰-사정상
운영이 어려운 분이나
새로운 운영을 시작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주)광 진 불 사

◇ 운영 맡아서 하실 분
◇ 위치 : 서울 노원구 석계역 부근
◇ 평수 : 약 30평
◇ 가 액 : 약 2천 5백만 (부대비용 일체포함)
◇ 상담후 절충가능
02)948-8020

◇ 포교당 안내

◇ 위 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 실평수 : 34평
◇ 가 액 : 3,500만원 (싯가는 8천만원임)
◇ 방 3, 주방 1.
02)3426-4488
02)511-1080

◆ 토굴팝니다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 대지 : 90평
◇ 건평 : 15평 (황토흙방 3)
◇ 가액 : 5천만원
◆ 최고의 명당(황토흙 방 3개)
◆ 차도에서 800m 떨어진 깊은 산속
0667)772-5401
015)8483-5963

◆포교당 운영 하실 분

◇ 위 치 : 대구 광역시 시내
◇ 건 물 : 3층 전물에 3층
◇ 평 수 : 59평
◇ 법 당 : 38평
◇ 요사채 : 방 2개, 주방, 거실, 사무실, 샤워시설 완비
◇ 보증금 : 2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절충가
◆ 수련장 가능, 현재 성업중 당장 입주하여 법회할 수 있음.
053)654-7163
011)790-7162

◆ 사찰안내 사정상 급함

◇ 위 치 : 포천일동 온천관광단지 부근
◇ 사찰용지 : 372평
◇ 건 평 : 57+33평
◇ 양도가 : 1억 9천만원
◆ 97년도 신축국당봉 강씨봉산맥 천연계곡집
02)646-2365
011)228-8092

◆ 사찰(포교원) 급히 양도함

◇ 고양신도시 능곡 행신- 화정지구
◇ 건 물 : 4층의 2층 45평
- 법당, 사무실, 방2, 주방, 욕실
◇ 고급시설, 문화재 목조 아미타불
◇ 가 격 : 2천만, 월 50만
(관리비 無), 시설비 -1천 3백만원
◆ 입주즉시 법회가능
0344)979-0212
011)667-0212

◆토굴 (영선암)

◇ 위 치 : 안동시 풍산읍 서미 1동 학과산 중대산 바위
◇ 가 격: 전세 5백만원
◇ 법 당 : 10평
◇ 요사채 : 10평
051)817-4983~4
011)589-3350

◆포교원 운영하실분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 평 수 : 50평 3층건물(3층), 방 2개, 주방(주차유)
◇ 가 액 : 전세 5000만원
◇ 시설비 : 3800만원, 시설완벽, 법회 및 의식 즉시가능
◆ 특징:주변전철역 교통편리 A.P.T 주택 밀집지역 포교 최적지임
02)939-3647
012)341-3647

◆ 급매
◇ 전세 3천
◇ 2층건물
◆ 매매나 전세 모두 가능
0582)536-2194
무안법사

◆ 사찰 양도 안내

◇ 사찰부지 : 750평
◇ 대웅전 : 30평(완전목조로 주산로 단청완료, 법당시설 A급)
◇ 요사채 : 20평(목조), 50평(지하), 방8개, 거실 大2, 산신각 10평(돌벽), 채공실 18평
◇ 특 징 : 문화재급 사찰로 산세 · 물 좋고 교통편리, 주차장 완비, 서울과 5분거리(금천구 대한전선 다리건너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 옆산)
◇ 시 설 : 일체 무료기증
◇ 양도매가 : 17억 5천(절충가능)
02)899-4281

◇ 사찰터, 토굴터, 불교연수원, 복지시설터 공부할만한 외딴 가옥
◇ 임야 35000평 당1200원 암자터 적합
◇ 99칸 한옥 양식 고가 대지 2000평,뒷산 4000평,건평 350평
02)514-8785
015)8335-0553
강처사 합장

◆ 사찰전세안내

◇ 위 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 법 당 : 부처님 삼존불, 약 15평
◇ 요사채 : 주방 · 거실 · 화장실 완비
◇ 전세가 : 약간
02)308-0788

◆ 토 굴

◇ 위치 : 충남 금산군 (금산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 206평
◇ 요사채 1동, 구옥 1동, 법당 1동-입실부엌, 기름보일러
◇ 가격 : 3천 7백만(매매가)
0412)53-7134
016)407-7134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명산 '神魚山' 줄기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 면적 : 가) 6,700평(전체 준농림)
나) 30,000평(준농림 18,400평, 농림 11,700평)
◆ 용도 : **사찰, 납골당, 부도탑, 실버타운 전원주택, 종합병원, 동호인주택 연수원, 골프연습장, 수련장, 사설학원**
◆ 교통 : 5분:인제대학교, 가야골프장, 김해상동 I.C(예정)
7분:김해 I.C 11분:김해 대동 I.C
18분:김해구포역, 김해국제공항
21분:양산시 23분:창원시 25분:마산시
◆ 도로 : 가), 나)각각 도로 접함. 현재 5톤 트럭 출입가능 (98년 6월 폭 8m 아스팔트 확장 포장공사 착공)
TEL. 0525)32-8322~4 <자택> 051)335-6392
011)881-4863 012)1568-6392
금화 **공 인 중 개 사** (김해시 어방동 26B 15L)

◇ 전세 4천
◇ 기도도량
◆ 매매나 전세 모두 가능
0582)536-2194
무안법사

◆ 포교당 양도

◇ 위치 : 인덕원 사거리 부근
◇ 실평수 : 40평, 상가주택 4층
◇ 법당 25평, 방 3, 기름보일러,
◇ 최고시설 (1억이상 투자했음)
◇ 가격 : 전세 보증금 3,800만원 권리금 5천만원
0343)24-5850
017)281-1231

◆ 포교당 급매

◇ 11년 역사
◇ 시설완벽 (법당, 고양실, 주지실)
◇ 교통편리(대로변)
◇ 주차시설완비
◇ 부산시내 최요지(신도다수)
◇ 공유포함 약70평
◆ 전세 : 5천만원
※ 꼭 운영하실 분만 전화요
부산(051)642-6242

◆ 사찰 안내

◇ 위 치 : 충남 천안 목천 IC에서 20분거리(서울에서 1시간 20분거리)
◇ 대 지 : 267평
◇ 건 평 : 30평 1동, 20평 1동, 산신각(방5개)
◇ 가 격 : 6천 5백만원
◇ 특 징 : 조용한 산속 기도도량. 완전 포장도로, 천안서 버스 4회운행
◆ 단, 스님에만 한함
0417)554-8216
015)4414-8242

◆ 포교당 안내

◇ 45평형, 방 4개, 법당 20평
◇ 세면장 있음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60만원 권리금 1천5백만원
청 운 사
02)807-9381
011)230-7511

◆ 대구광역시 포교당 안내

◇ 전세 또는 매매(은행융자가능)
◇ 평수 : 60평, 3층건물 3층
◇ 가격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30만원
◇ 후불탱화 부처님 모셨음.
◇ 법당 : 35평
◇ 주지방, 공양주방, 사무실, 주방, 욕실
◇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싸게드립니다.)
011)790-7162
053)656-6609

전통사찰 운영하실 분

◆위 치 : 전남/부지:2,000평
◆법 당 : 30평 목조, 15평 목조 2동
◆요 사 : 28평 목조, 20평 목조, 20평 3동
◆산신각 : 4평 목조 / 토담집 : 10평
◆건 물 : 부속건물 별도 총 7동
◆가 액 : 3억 5천(절충불가)
◆특 징 : 고급정원수 수려한 산세 관광도로 접.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연결하여 드리고 양도외 사찰 법률, 건축상담도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전국지역 고건축, 단청 전문 기업
(주)동국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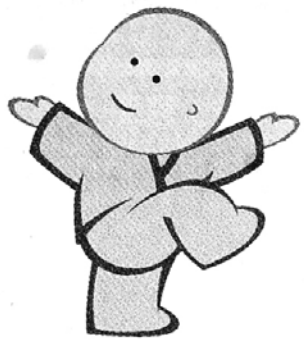
⊙ 본 도량은 정법도량이므로 스님외 일반인, 무속인, 보살, 대리상담 및 투기성이 짙은 상거래는 절대 사양합니다.
상담 : 02)512-4447 / 012)1648-6334 담당 : 조법사 합장

◆ 대구광역시 강변

◇ 최신건물 모텔및 전문식당
◇ 건평 : 750평
지하 : 비어있음, 단란주점 가능
◇ 1층 : 전문식당 현 성업중
2,3층:모텔강변에 위치(경관좋음)
◇ 분수, 넓은 주차장
◇ 식당 모텔 주차장과 분리
◇ 시설 : 최신시설, 컴퓨터 시설관리 일체무상기증 (식당집기 포함)
※ 불교한방병원으로 임지 좋음.
053)257-0751

◆토굴 사정상 급히 팝니다.

◇ 위치 : 경기 용인
◇ 대지 : 416평
◇ 건평 : 15평
◇ 가액 : 5,300만원
스님께서 유학을 급히 가게되어 양도하오니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357)31-8736
011)284-5101



부처님의 숨결을 찾아 떠납니다

전문가에 의한 전문여행사

혜초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43-8 대한방직협회빌딩 902호

친절한 상담 02)733-3900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교 전문 여행사인 (주)혜초는 존경하옵는 스님과 불자님들의 손발이 되어 7년 동안 부처님을 향한 성지순례를 기획, 행사하고 있습니다.
IMF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각고의 노력으로 구조조정과 함께 100% 컴퓨터화로 불교행사 절감은 물론 가장 좋은 조건의 성지순례와 함께 해외 및 국내의 불교 유적지에 대한 자료를 가장 빨리 불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혜초 여행사의 모든 직원 15명은 불자님들의 뜻깊은 성지순례를 이루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직원 일동 합장-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금단의 땅...

티벳 9일

금단의 땅 티벳...
4,000m 티벳 고원에 펼쳐지는
티벳인들의 종교와 삶...
세계 최고봉 초모랑마을 배경으로
판첸라마의시가체,포탈라궁의라사까지
이어지는 티벳으로의 삶의 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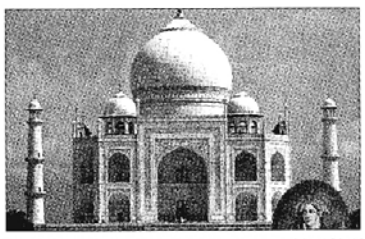


- 출발일 : 7월 28일 / 8월 4일 / 8월 11일
- 동참금 : 279만원
- 일 정 : 서울-방콕(1)-카트만두(1)-코다리/장무(1)-시가(1)-시가체(1)-라사(2)-카트만두-방콕(1)-서울

인도 전문 에스코터가 동행하는

인도유랑 30일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인류 최후의 안식처...
불교의 발생지이며 부처님의 발자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성지중의 성지...



- 출발일 : 7월 3일, 17일, 24일, 31일 / 8월 7일
- 동참금 : 123만원
- 일 정 : 서울-뭄바이아베다바드-우다이푸르-조드푸르-자이푸르-델리-러쉬케쉬-무수리-델리-아그라-오차-카쥬라호-바라나시-캘커타-아잔타/엘로라-뭄바이-서울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따라...

중국 파키스탄 실크로드 20일

동.서양 문화 교류의 현장...
혜조,현장 등 수많은 승려들의 발자취를 느끼며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따라 파키스탄 까지...



- 출발일 : 7월 22일 단 한차례
- 동참금 : 359만원
- 일 정 : 서울-북경-서안-난주-가욕관-돈황-투루판-우루무치-카슈가르-탁스쿠르간-쿤자랍패스-훈자왕국-길기트-베삼-탁실라-이슬라바마드-라호르-방콕-서울



우리민족의 정기를 찾아서...

민족정기의 발원지인 백두산과 한미족의 기상이 서려있는 옛 고구려 땅을 방문하여
올바른 역사의 이해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우리민족의 정기를 찾아서...

백두산 민족정기의 발원지 순례 6일

- 출발일 : 7월17일,26일,28일 8월2일,4일,14일
- 동참금 : 99만원
- 일 정 : 서울-연길-백두산-도문-용정-북경-서울

고구려 문화탐방 7일

- 출발일 :7월27일 단1회
- 동참금 : 159만원(성인) 145만원(중고생) 135만원(초등생)
- 일 정 : 서울-심양-통화-집안-백두산-연길-북경-서울

전 국민의94%가 불교도인 나라 태국 성지순례 5일

▶ 출발일 : 8월12일 9월2일 ▶ 동참금 : 39만9천원
▶ 일 정 : 서울-방콕-아유타야-파타야-방콕-서울

// 전혀다른 두 불교문화의 체험 대만,태국 성지순례 7일

▶ 출발일 : 8월14일 9월11일 ▶ 동참금 : 79만9천원
▶ 일 정 : 서울-타이페이-봄광사-타이페이-방콕-파타야-방콕-서울

중국 4대불교명산 4대불교석굴 구화산,보타산 등
일본 고야산,히에이산 사천왕사 교토,나라 등
미얀마 파간,만달레이 쉐다곤대불탑
스리랑카 캔디의불치사 홀론나루와,아노다라푸라 유적지순례
캄보디아 잃어버린 불교왕국 앙코르와트

에스코트배낭여행
일본 엿보기

⊙ 길라잡이를 앞세워 가장 알차게 가장 저렴하게
일본을 돌아보는 절호의 기회!!

₩690,000 10일간

인도로 가는
가장 저렴한 항공권 **₩500,000부터**

삼사순례

· 제주도 ▶ "우리나라 최고의 섬 제주도 삼사순례" - 천왕사, 약천사, 고관사 -
7월24일(금)출발 2박 3일 일정 동참금 : 23만원 (성인) 17만원 (12세이만 어린이)

· 강원도 ▶ "일출과 함께하는 동해안 삼사순례" - 낙가사, 삼화사, 정암사 -
7월11일(토) 밤10시 견지동 조계사 앞 출발 동참금 4만원 (아침,점심 공양)

부처님과 함께 하는 98 여름 청소년 바다 캠프【충무공 편】

누구나 꿈을 꾼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 꿈은 실현되지는 않는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살고 있습니다. 어릴때는 장군, 대통령..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꿈들은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면서 아주 작은 조각으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나는 더 멀리, 더 높이, 멋진 비행을 할꺼야! 지금 남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 내일이면 그들이 보지 못했던 수평선 너머의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을 꺼야. 그리고 멋지게 날아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비행을 보여주겠어." 이러한 독백이 마음가짐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입니다. 항상 틀에 박힌 문화공간사이에서는 언제나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 사고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서 다른시각으로 사물을 관찰할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작은 조직,그룹에서는 항상 이러한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우리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딴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이나 친구이며 동료일 수 있고, 선후배 일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대변하며, 우리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무엇이며 그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리더]에 이르게 되었을까? 이런 문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느 시대이건 [리더]는 [리더만이 가지고 있는 성장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 조건속에서 적극적으로 사고하며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보다는 내일을 생각하는 진취성과 새로움에 대한 강한 호기심으로 가득하며 올바른 판단으로 결정합니다. 모든 것은 청소년 시기부터 [리더]가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직화하고 구체화하며 [리더로써 기반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훈련을 쌓을 수 있도록 갖추어져야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
꿈과 용기의 희망찬 미래는 청소년시절의 배움과 훈련과정의 이행을 통하여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기 바다를 통해 진취성과 자립심,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일구어 낼 발을 준비했습니다.

■ 행사일정표 및 시간표 ■

시간	1일차(만남)	2일차(개척)	3일차(전진)	4일차(도약)
06:00	입촌수속 (지급품 및 확인)	기 상		
07:00		아침명상 및 운동(민속춤의 다수), 세면, 조식, 교육준비		
09:00		출항제, 체험항해, 해상적응훈련 1~2과제	자원봉사활동, 열전!공동체 운동회	충무공전적지 산악자전거 투어링 8과제
12:30		중식, 휴식	중식, 휴식	중식, 사물정리
14:00 15:00	O'T, 숙영지 준비	그섬에 가고싶다. 카누, 노보트 항해 3~5과제	체험!해병 극기훈련체험! 바다속의 세계 "스노클링" 6~7과제	13:00 퇴촌식 해산
17:00	포세이돈 어드벤쳐 해상적응훈련			
18:00	사워, 휴식, 석식	사워, 휴식, 석식, 공동체별 업무수행		
19:00				
20:00 22:00	여름이야기 뮤직비디오 상영	조별장기자랑 동대제	경연대회 및 영화관람	
22:30	취침, 당직사령 및 순찰자 운영			

- 행사기간 ; 1차7월20일-23일 2차7월23일-26일
- 참가대상 ; 초등학교5학년-중학교3학년
- 신청기간 ; 1998년 7월1일 - 7월15일까지
- 참 가 비 ; ₩135,000원
- 참가신청 ; (국민은행 023-21-0635-641/ 한국탐험학교)로 입금하시고 전화 (02-738-0997)를 주시면 접수번호를 드립니다.

- 여름 이야기

200" 대형 스크린과 첨단 영사기기 및 방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로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레크레이션으로 유도하고 엄선된 영화음악을 감상하고 배우는 시간을 마련, 서먹한 분위기를 해소하고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시함.

- 포세이돈 어드벤처

강인한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불어넣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자아를 심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소단위집단별로 총 2100M의 거리를 원영으로 주파함. 이는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며, 교육한 원영방법으로 해상도하훈련이다. 또 해병대 훈련중 상륙훈련을 변형,강도조절하여 수상에서의 상황 조치를 배운다.

- 그 섬에 가고 싶다.

바다체험훈련을 통하여 갈라진 자신감으로 소형선박(카누/노보트)등으로 항해법 및 조작법을 익힌 뒤 직접, 아름다운 한려수도의 섬들을 탐방하고, 각 구간별 반환점을 설정, 게임등을 한다. (장형 항해 / 시합항해 / 단체 항해등)

- 자원봉사 대축제

캠프 일정중 지역사회 및 환경에 관련한 봉사활동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축제마당을 마련한다. 봉사의 참뜻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방학과제중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한다.(한산섬,해양선창소등)

- 스노클링

스쿠버의 기초장비인 마스크, 스노클, 핀만 가지고 잠수하여 수중세계의 생태계 및 환경을 체험한다.

- 산악자전거 (MTB)

초경량이며 기어장치와 충격흡수장치가 되어 있는 산악전용 자전거로 한려수도의 충무공의 유적지를 탐방한다.

- 워터슬레이

파속에 도전한다. 교육에 지친몸을 바람에 실어 Weke jet, 바나나 보트등에 몸을 싣고 시원한 바다 바람을 기른다.









참가신청 및 문의 (02) 738-0997 한국탐험학교

⊙ 주관 · 주최 한국해양소년단(통영연맹) 한국 탐험 학교 ⊙ 후 원 현대불교신문사 혜조여행사



"불교중흥 유아교육에 달려"

"절에 갈땐 아이들 꼭 데리고 가도록"

김종서박사 '21세기 불교교육' 특강

김종서박사(서울대 명예교수)는 6월30일 길상사에서 '21세기에 대응하는 불교교육'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여시아문 刊) 출판 기념으로 열린 강연회에는 교육원장 압도스님, 본사 김광삼사장 등 5백여명이 참석 김박사의 열강에 박수를 보냈다. 강연요지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 교육에는 문제가 많은데 부처님께서는 3천년 전에 해법을 제시하셨다. 교육은 종교백년지대계이다. 그렇기에 불교는 산중에서 시중으로, 기도에서 생활로, 어려운 불교에서 알기쉬운 불교로 옮겨져야 한다.

유아 및 청소년에게 불교교육이 왜 중요한가.

첫째, 인간의 가소성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이다. 인간의 선천적인 경향은 후천적인 영향을 받아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가소성이다. 이를 알아 어린이들이 6살 이전에 불교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불교 중흥의 핵심이다. 절에 갈 때는 아이들을 꼭 데리고 가야 한다. 그래야 커서 불교적인 분위기를 갖게 된다.

둘째, 교육자로서의 부모에 대해서 말해보자. 어린이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부모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모두 위대한 교육자인 것이다. 교육자로서의 부모라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그 어린이는 불교에 대해 보다 깊은 신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부모들은 모두 위대한 교육자
사찰도 평생교육 개념 도입을

셋째, 가정 및 학교의 문화풍토와 풍습에 대해 말하겠다. 나라에는 문화풍토가 있어 국민성이 형성되고, 학교에는 학풍이, 가정에는 가풍이, 사찰에는 사찰만의 문화 풍토가 있다. 이러한 풍토 속에 젖는 것을 불교에서는 훈습이라 한다. 가정에 들어가면 불자의 집이라는 풍토가 배어야 어린이들도 불교에 훈습이 되는 것이다. 불교교육의 중흥은 유아교육에 달려 있다.

넷째, 청소년관의 재정립이다. 청소년을 사회 구성원이나 사회 후보자로 보는 관점이 있다. 후보자로 보는 것은 청소년들은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질 기둥이기에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성원으로서의 청소년은 청소년 나름의 독자적인 문화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는 계(戒) 정(定) 혜(慧) 삼학이고, 청소년을 치유할 방법은 참선이다. 계는 도덕적 위기 극복법이며 정은 마음다스리는 법, 혜는 진리를 찾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참선은 바로 마음의 항복을 받는 것이기에 EQ 향상방안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다.

현대는 지식정보화 · 고도산업화 · 다양화 · 세계화 사회인만큼 불교교육도 변화해야 한다. 모교회의 경우 영아부에서부터 새가정부 · 새가족부 등으로 세분화 되어 계층에 맞는 전도를 하고 있다. 사찰에서도 평생교육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참선후 충동성 · 불안 줄었다"

동대부중 '명상효과' 과학적 실험결과

동대부중 2학년에 재학중인 이지운군. 시험을 앞두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참선을 한다. 6주 동안 특별명상반에서 배운 호흡에 집중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수식관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든 것. 참선을 하기 전에 시달리던 원인모를 불안감도 수식관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많이 없어졌다. 지운이는 수식관에 들면 불안한 마음이 싹 가시며 편안해지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학교에서의 참선교육은 끝났지만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참선에 몰두한다.

◇특별명상반의 참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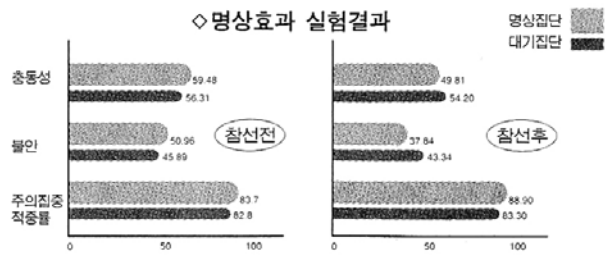
6주동안 수식관등 수련
마음 안정·침착성 생겨
독립심 함양 효과도

동대부중(교장 우하수)이 심리적 부적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6주간 참선반을 운영한 결과 명상집단의 충동성이 큰 폭으로 낮아지고 시간이 지나도 유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선의 효능을 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통계자료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상교육이 끝난 4월23일에 1차 사후검사 및 설문조사를, 5월4일에 2차 사후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는 충동검사(BIS-Ⅱ), 불안검사(STAI), 주의집중검사(CPT)로 명상수련 전의 기초심리검사와 동일하게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명상욕구와 명상소감 등으로 나눠서 조사했다.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명상을 했던 명상집단과 명상을 하지 않았던 대기집단을 비교해보니 명상집단의 경우 충동성과 불안감이 현저히 줄어든 것에 비해 대기집단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집중은 두 집단이 별 차이가 없었는데 적중률은 대기집단에 비해 많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명상효과 실험결과



설문조사에서는 명상수련에 대해 도움이 된다, 마음이 안정되고 침착해진다, 정신이 맑아진다 등으로 참가학생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꾸준히 명상에 참가한 이유로는 나자신의 변화가 좋아서, 나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이 가장 많아 학생들의 자율성과 독립성 형성에도 좋은 결과를 보였다.

기초심리검사를 통해 충동성과 불안감이 높은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운영에 들어갔던 명상반은 25명이 명상교육을 이수해 4월24일 수료증을 받았다. 명상수련은 4단계로 이루어졌는데 도입단계에서는 명상에 관한 강의와 기초 수식관 교육, 전개단계에서는 수식관에 익숙해지기, 심화단계에서는 수식관 명상법 숙지, 종결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루 5번 명상하기를 수행토록 했다.

고우익교법사는 "청소년들의 정서나 인격에 약간의 충격만 주어도 쉽게 생활패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6주 정도의 명상교육 기간이 바람직하다"며 "그 이상 교육기간이 길어지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 2학기에 개설될 명상반 역시 교육기간은 6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새싹포교 이젠 자신있어요"

최신댄스 · 레크체조등 다양한 놀이 익혀
레크리에이션포교회 지도자 강습회

온갖 비명과 풍선 터지는 소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풍선으로 강아지 만들기가 한창 진행되는 현장은 열의로 가득하다. 신나는 음악과 춤으로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에 참여한 법회 지도자들은 더위도 잊은채 풍선꼬기에 여념이 없다.

'즐겁고 재미있는 우리 절!'을 주제로 한 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스님)의 제21회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가 3백여명의 어린이 · 청소년법회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6월27~28일 양일간 구룡사에서 열렸다.

이날 강습회는 민속춤, 레크댄스, 매직풍선, 재활용 만들기, 레크체조, 여름불교학교 준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여름불교학교 준비는 기획에서부터 운영방침, 대상선정, 실시방법, 예산, 홍보, 프로그램 작성, 교사선정, 프로그램 진행방법, 평가, 교육내용, 참고문헌, 세부일정 및 프로그램 안내, 유의사항 등으로 상세하게 진행됐다. 마지막 날 오전에 실시된 최신댄스강의는 시간의 부족함을 아쉬워하는 지도자들의 요구로 공양시간도 뒤로 미룬채 연장 진행되기도 하는 등 참가자들의 열의가 대단했다.

건강 365일 〈26〉 띠뿌리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픈 산후풍에는 민간요법으로 띠뿌리가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띠뿌리는 산후풍에 쓰이는 약이 아니고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널리 쓰이는 약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왜 생기나?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속을 끓이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속을 끓이지 않는다면 달인이나 성인이나 탐진치 삼독을 벗어난 사람일 것이다. 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으로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틀에서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병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착에서 오는 업이라고 봐야되지 않을까?

류마티스 관절염에 널리 쓰여
속끓여 생기는 견비통등 효과

어쨌든 사람이 속을 끓이면 열을 받는다. 그 열을 십이지장, 소장이 받으면 염증이 생긴다.

소장에 염증이 생기면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찬다. 공복시에 허기가 지면서 속이 쓰리고 배꼽주위에 복통이 생긴다. 오래되면 허리, 엉치가 아프며 변비가 오거나 소변이 시원치 않으며 방광염, 오줌소태 등이 나타나고, 소변 볼 때 찌릿찌릿 아프다. 또 소변색이 쌀뜬물 같이 뿌옇게 되는데, 병원에 가면 단백뇨라고 한다. 부부관계를 하면 자궁이 아프고 입안이 자주 헌다. 얼굴에 열이 오르고 턱에 종기 부스럼이 생긴다. 심장이 빠근하고 답답해지기 일쑤다. 또 두근두근하고 놀라기를 잘한다.

소장과 심장이 마치 부부와 같아서 소장의 병이 심장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증상은 십이지장, 소장에 염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50살 전후해서 오는 견비통은 어깨가 빠지는 것 같고 팔이 꺾어지는 것 같은 증상으로 온다. 소장염으로 해서 오는 통증인 것이다. 소장신경이 어깨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소장에 염증이 생기면 여자들은 월경불순이 오며 갱년기 현상이 일찍 찾아 온다. 몸 안에 피가 마르기 때문이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면역성이 떨어져 감기가 자주 걸리게 되며 그 후유증으로 신경통 증상이 나타난다.

복용법 띠뿌리 20g과 목통(木通) 10g을 달여 하루에 2번 복용한다.

단 신

선덕사 어린이 수행학교

선덕사(주지 행법스님)는 '크게 보자, 달리자, 탁 트인 세계로!'란 주제로 20일~22일까지 제6차 어린이 수행학교를 연다.

맑은 품성을 가꾸기 위한 어린이 수행법에는 불성개발 프로그램, 명상 · 참선수행, 발우공양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체험마당에는 감수성체험과 집단체험, 배움마당에는 재활용품으로 꾸미는 부처님 세상 만들기, 탈춤배우기 등의 코너가 마련된다. 이밖에 화엄사, 천은사 등을 둘러볼 문화유적답사, 야간탐험 등의 프로그램이 어린이법우들을 기다린다.

단양서 청소년국악교실

국악동호인모임 풍류회는 제10회 청소년 국악교실을 충북 단양의 단양팔경수련원에서 갖는다.

8월12일부터 16일까지 4박5일간 열리는 국악교실은 단소, 대금, 소금, 가야금, 해금, 풍물, 소리반 중 선택한 한가지를 집중교육받을 수 있다.

띠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btn국토사랑 캠페인 "btn 불교텔레비전은 이 땅을 사랑합니다"

영각사 극락 영묘전 가족공원+조상+만남
국내 최초 공원형 납골당 회원모집 금년 10월30일 완공



"btn 불교텔레비전은
공원형 납골당
회원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시한부 매장제도
· 시한부 매장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매장한 후 다시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토록 하는 법률화된 제도입니다.
■ 처음부터 깨끗하게 화장하여 공원형 납골당에 정성들여 안치하는 것이 고인과 가족들 모두에게 바람직합니다.

철저한 영구적관리
영각사 극락 영묘전에서는 임종 발생 후 곧바로 화장 그리고 납골당 안치라는 토탈서비스를 추구합니다. 안치 후에도 기제사는 물론 정기적으로 법회를 봉행하며, 연중 하루도 빠짐없이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기도를 조석으로 봉행합니다.

총공사비 265억원
극락영묘전 내부는 현존하는 최고의 보존 시스템으로 현대과학이 응집돼 있고, 외부는 가족공원으로 언제든지 편안한 휴식과 조상님들과의 정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극락왕생의 문은 오래 열려있지 않습니다. 지금 bt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십시오.

구 분	총 액	계약금	중도금	잔 금
납부일		19 . . .	19 . . .	1998. 10. 30
개인단	2,000,000	1,000,000	500,000	500,000

※완공예정일 (1998. 10. 30) VAT 별도

btn 가까이 있는 진리
불교텔레비전 32 btn 문화사업단
우 121-734,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전화:(02)3270-3366 팩스:(02)3270-3498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불자 세상보기

"가정폭력 범죄다"…가족 아니어도 신고가능

"인권존중 가족부터"

부부폭력 발생률 31.4%…매맞는 아이 10명중 7~8명

이제 가정에서의 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사회적 범죄로서 처벌받게 된다.

7월1일부터는 가장이 아내나 자녀를 패리거나 자식이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가정폭력이 있을 때 '112 전화'로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반드시 출동해 제재하고 사안에 따라 처벌도 하게 된다. 처벌대상이 되는 가정폭력은 남편과 부모의 폭행뿐 아니라 노인에 대한 젊은이의 폭력,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학대, 명예훼손, 모욕 등 광범위하다.

여전과는 달리 당사자는 물론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되며 아동이나 노인을 보호·육성하거나 치료하는 기관의 종사자나 기관의 대표는 범죄를 안 즉시 사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가정폭력이 적발되면 법원은 때린 사람을 가족과 격리해 퇴거시키거나 100m이내에 접근을 금지시킨다. 폭력 정도가 심하면 일정기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고 부모로써의 친권도 박탈하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다.

부인을 때린 남편, 이들을 거들면서 며느리를 폭행한 시부모와 이에 대항해 시어머니를 폭행한 며느리 등 가족 4명이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 처음으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은 이 법률의 시행 필요성을 짐작케 한다.

최근의 통계는 가정폭력의 정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31.4%. 부부 10쌍중 3쌍이 부부폭력을 겪고 있으며 남편 3명중 1명이 한 해에 1회 이상 아내를 구타하고 있다. 이는 미국 부부폭력률 16.1%보다 2배이상, 홍콩의 14.1%보다 3배나 높은 수치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한 아동학대 조사에 따르면 72%의 어머니가 자녀가 잘못했을때 체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28%, 프랑스 30%, 태국 23% 보다 2배이상 높다.

여성계는 "경제위기로 인한 화풀이성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이 실질적인 가정폭력 방지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복지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내려온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그에 맞춘 교육에 길들여진 사고방식을 바꾸어 가정내 인권인식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7월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방지법 거리 홍보에 나섰다.

불교의 눈

"폭력은 가정행복의 독"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 형제 부부 가족 안팎의 친척 사이에 서로 경애하여 미워하지 않으며, 유무상통하여 아끼는 일이 없으며, 말과 안색이 늘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무량수경〉 아무런 방어력을 가지지 못한 약자인 아내와 자식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은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회악이다. 어떠한 미물에 대해서도 폭력을 반대하는 불교의 평화사상은 그래서 가정폭력을 치유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 하고 죽음을 두려워 한다"는 〈법구경〉의 가르침은 폭력이 만유에 깃든 불성을 파괴하는 죄악임을 가르친다. 〈무량수경〉의 "부모 형제 친척들을 살상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고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들지 않더라도 가정의 파괴는 행복의 원천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 김묘주회장은 "가족 모두가 미래의 부처님이란 생각으로 상호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가정폭력을 방지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이렇게 들었다

최근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혁은 불신풍조를 해소하고 국민단합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여망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의식개혁이 필수적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공직사회의 부패근절을 위해 부패방지법을 제안한 것은 공직자 개혁을 필두로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도에서다. 그동안 개혁을 부르짖어왔음에도 성과가 없었던 것은 정작 개혁을 외쳐댔던 주체들이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혁은 곧 '정도(正道)'를 찾는 일이다. 따라서 부처님 사상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개혁 "과실 고쳐 선을 행한다면…"

▨곧고 바른 것을 길(道)이라 하고 두려움 없는 곳을 목적지라 한다. 고요하고 한가한 수레를 타고 진실의 가르침을 덮개로 삼고 부끄러움을 고삐로 삼으며 바른 생각을 재갈로 하여 지혜를 훌륭한 말몰이 삼고 바른 소견을 안내자로 삼는다. 이 세상 어느 사람이라도 이것을 타면 생사의 험한 숲속을 지나 편안하고 즐거운 열반에 도달하리라. 〈잡아함경〉

▨악이 있어도 잘못임을 알아서 과실을 고쳐 선을 행한다면, 죄가 절로 스러져, 후일에 가서는 꼭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십이장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여쭈었다. "무엇이 세상을 유지하고 무엇이 세상을 이끌고 있으며 어떤 법이 있어 이 세상을 제어합니까?" 부처님께서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마음이 세상을 유지해 가고 마음이 세상을 이끌고 있다. 그 마음이 한 법이 되어 세상을 능히 제어하느니라." 〈별역잡아함경〉

▨전륜성왕의 바른 법은 무엇인가? 법에 의지하여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공경하고 존중하라. 법으로써 여자들을 가르치고 법답게 왕자나 대신, 관리 백성 수행자 등을 보호하고 보살피라. 〈중아함경〉

▨나라의 중신(重臣)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뇌물을 챙기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백성이 서로 속이고, 강자가 약자를 때리고, 귀족이 서민을 학대하고, 부자가 빈자를 착취해도 법의 제재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충직한 중신들은 공직에서 물러나고, 현명한 사람들은 분규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침묵을 지키고, 요직 아첨꾼들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직권을 남용해 부정한 수단으로 축재에 몰두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정부는 통제력을 잃고, 정당한 정책은 폐허 속에 묻혀 버린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몸을 단속하여 진실을 좇으면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법구경〉

영화 '여고괴담' 교사명예 훼손 논란

"스승은 다섯가지 일로 제자를 측은히 여기며 가르쳐야 한다. 다섯가지란 학문을 배우게 하며, 지극한 기예(技藝)를 가르치며, 배움에 민첩케 하며, 선도(善道)로 인도하며, 현명한 친구를 따르게 함이다."〈선생자경〉

입장객수가 1백30만명을 돌파한 인기영화 '여고괴담'이 과연 스승의 명예를 추락시켰을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김민하)가 교권침해 우려를 들어 납량영화 '여고괴담'의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률적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하는등 이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교총은 "영화내용 가운데 남자교사를 '미친 개'로 표현한 부분과, 실제보다 과장되게 그려진 교사폭력 등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전체 교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영화상영 저지운동에 나설 것 임을 밝혔다.

그러나 픽션인 영화의 내용을 들어 문제삼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교육현장에 대한 비판과 그 해결책을 학창시절에 들었을 법한 '귀신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낸 이 영화는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을 우정과 용서와 이해를 통해서 풀어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학생들의 시각이다.

오랜만에 나온 볼만한 청소년영화를 교총이 '교권'을 내세워 문제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관람객들의 일반적인 평이다. 김재경 기자

동네가게 불량식품 퇴출 시민단체 팔 걷었다

"춘다여! 이 남은 스카라 맛다바는 구덩이를 파 그곳에 모두 묻어라. 춘다여! 이 세상에 이것을 먹더라도 완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여래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니라."〈열반경〉

부처님께서 대장장이 춘다가 공양한 상한 음식을 드시고 병이 든 후 춘다에게 한 말이다.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동네 슈퍼와 구멍가게의 저질·불량식품 몰아내기에 시민단체들이 발벗고 나섰다.

서울시내 12개 시민단체 소속 명예식품 감시원 1백20명은 영업면적 90평 이하의 소규모 동네 슈퍼마켓과 구멍가게 등 1만6백여곳에 대해 7월1일부터 대대적인 감시를 벌이고 있다.

단체당 10~15명씩 선발된 명예식품감시원들은 오는 10월까지 2인1조 60개반으로 편성돼 위생공무원을 대동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식품위생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이들의 주업무는 무허가·제조업체 등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 판매기준을 위반한 업소와 유통기한을 어긴 식품을 진열·판매한 업소 등 저질·불량식품을 파는 업소에 대한 계몽,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이나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제품을 구입, 증거를 확보해 고발하면 시가 이 제품을 만든 제조업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원진레이온 50억 장학재단

경기도 남양주시는 7월1일 장학기금 50억원 규모의 남양주장학재단(이사장 금영희남양주시장)을 설립했다. 장학기금은 원진레이온 청산법인이 남양주시 원진레이온 부지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얻은 개발이익을 기탁한 것. 연간 이자 약 6억원으로 다양한 장학사업을 벌이기로 한 재단측은 8일까지 제1기 지급대상자를 접수, 심사한 뒤 9월초 첫 장학금을 지급한다. (0346)590-2754.

행상으로 번 1억 모교 기탁

위암 말기환자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80대 할머니가 행상으로 모은 1억원을 모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강릉시 동인병원에 입원, 6개월째 투병중인 박갑진(88) 할머니는 전재산 1억원을 지난 6월27일 서울 동덕여고 박상건교장에게 전달했다.

노인영정 찍어주는 파출소장

일선 파출소장이 불우노인 3백여명의 영정사진을 무료로 찍어줘 화제. 김봉열(47) 고양경찰서 신도파출소장은 지난 91년 성사파출소장 때부터 관내 노인정 등을 찾아 혼자 사는 노인 등의 영정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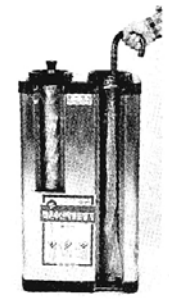
노숙자 위한 무료목욕탕

'좋은세상만들기 위한 작은 모임'은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목욕탕 행사를 매달 첫째주 화요일 갖기로 하고 오는 7일 서울역 건너편 중구 등자동 청운탕에서 첫 정기행사를 연다. 무료 목욕탕 행사에는 칫솔·면도기 등이 무료로 제공되며 청운탕은 한번에 50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02)543-7959

월급깎인 고교교사 강도짓

경기 고양경찰서는 길을 가던 20대 여자 회사원의 목을 조른 뒤 현금 12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서울 K고교 교사 홍상구(40)씨의 구속영장을 6월30일 신청했다. 경찰은 초등학생 등 자녀가 2명인 홍씨가 빚을 3천만원 진데다, 2분기 교직수당이 40% 깎이는 바람에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생활고 때문에 강도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색상품 "젖은 우산 포장기"



비오는 날 방문객들의 젖은 우산 때문에 실내가 빗물자국으로 더럽혀지는 고민을 해소해 주는 '젖은 우산 포장기'가 시판됐다. 우산을 포장기 위쪽 삽입구에 밀어넣고 옆으로 우산을 빼면 자동으로 포장해 주는 이 제품은 조작이 간편하고 스텐레스로 만들어져 녹이 슬 염려가 없어 반영구적이다. 백화점, 병원, 법당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면 효과적이다.

(주)용우정밀, 가격은 68만원. (02)543-8434

관음출판사

♠ 화제의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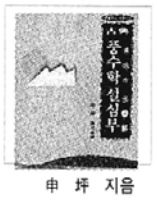
알기 쉬운 문답식
관상 수상학 강의
딱한번 보고 사람을 알 수 있는
성공 비지니스의 처세술과 운명학

「知彼知己는 百戰百勝」이란 말도 相對를 알아야만 勝者가 될 수 있다는 말처럼 相學이란 分野가 우리 生活과 얼마나 그 比重이 무거운가 하는 것은 再論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家庭에서는 寶庫으로 職場에서는 處世指針書로 젊은이 들에게는 社會生活의 必順 參考書로 銘記를 善用하여 探讀할만한 敎養書로 一讀을 勸誘하는 바입니다.
- 周易通信大院長 梁哲庵

哲學博士 曺誠佑 지음
/ 값 15,000원


송월스님 著
사주학 핵심비결
지금 이때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이책을 펼쳐 보십시요.
당신의 미래의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易書.
신국판/값20,000원


김백만 편저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팔려고 하는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부적을 집대성 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A5신/양장본/35,000원


申 坪 지음
古典 풍수학 설심부
눈에는, 보고자 하는 뜻이 있고 입에는, 먹고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다. 산천은 풍세(風勢)와 수기(水氣)를 이루어서 대기(大器)를 형성한다.
사람도 여기에서 길러지는 것이니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 하였다.
값18,000원

관음출판사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광성빌딩
전화: 921~8434 팩스: 929~3470

歷史는 바뀔 수 있어도
佛教傳統儀式은 바뀔수가 없습니다.
전통 輦 및 불자 탑승용 2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과학적인 설계



"사찰에 輦[연]은 필수품 입니다"

※ 5 단 분해 조립형의 편리한 설계 ※
※ 조립형이라 법당에 장엄용으로 보관이 용이함 ※
※ 원목을 사용 전통에 입각하여 제작한 예술적 작품 ※
생전 예수재의 해에 불자들이 가마에 타고 도량을 돌며
소원성취를 빌고 극락왕생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설계

종합불사조성회사
藝曜佛美院
서울特別市 龍山區 文培洞 17-1 신화빌딩 3층
TEL:(02)704-5070(代)

부처님과 맺은 인연 평생을 부처님을 위해 일하는 기업으로 남겠습니다.
영업품목: 고건축·대불·옥불·동불·특수불·석불·탱화·개금·단청·법당내부·사찰 홍보기획 및 출판대행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시론

금강산 가는 길

어린 시절 자주 불렀던 동요 가운데 가장 생생한 동요중 하나가 바로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 이천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이다. 나는 아직도 이 노래를 가끔씩 혼자 불러보곤 한다.

그러나 그토록 아름답다는 금강산을 우리는 긴 세월동안 다만 깊은 염원으로만 그리워하고 있다.

그 땅을 밟을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을순 없다

생각할수록 뼈가 저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린시절 그때에도 통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숙원이라고 배웠었고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어서 서로 손잡고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찾아 가자고 그토록 외쳤었는데 그때의 그 소녀들이 자라서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다시 그 또 그만한 딸들이 자라서 그 노래를 배우는 동안에도 우리는 금강산을 아직껏 실체로서 만나지 못하고 있다.



문정희 〈시인〉

그러나 이제 9월이 되면 그곳을 갈 수 있다고 한다. 정말 꿈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어린시절 골목길에서 해가 저물도록 고무줄넘기를 하면서 목이 터져라 불렀던 그 금강산을 이제 실제로 이 두발로 디딜 수 있는 현실이 다가온 것이다. 무려 반세기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 흙과 그 바위와 나무들과 그 비경을 이제는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니 꿈이 아닐까 그저 벅차기만 하다.

얼마전 정주영씨가 소 5백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부터 뛰기 시작한 가슴은 이제 더욱 확실한 기대로 부풀기 시작했다.

금세기 지구상에 단 하나 밖에 안 남은 민족분단의 벽을 넘어가는 이 박 이벤트를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부자도 때로는 저토록 멋질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부자는 인간으로서 소유가 넘친 나머지 자칫 그 삶조차도 물질이나 소비에 치우칠 우려가 있는 대상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반세기 동안 얼어붙은 단절의 옆구리를 허물고 유람선을 띄워 금강산을 유람한다는 그 계획은 어느 문학작품보다도 가슴을 설레게 하는 데가 있다. 정말 돈이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그 위대함이 있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말이 쉬워 실향민이지, 실향민들은 피를 나눈 육친들을 지척에 두고 평생을 눈물로 살아가는 비극적인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지척에 두고 꿈에서조차 소식을 모른 채 기막힌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이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 했던가.

결국 우리는 금강산을 시작으로 그리운 사람들이 맘껏 함께 만나고 함께 살 수 있는 길로 가야한다. 그러기에 이 첫발이 더욱 소중하고 뜻깊다는 생각이 든다.

경전중의 경전으로 〈금강경〉을 들듯이 산중의 산이라는 명산 금강산의 이름은 경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 민족의 영산은 원래부터 불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교의 영지이기도 하다. 팔만 구암자마다 고승 선사들의 선기가 뻗쳐나니 어느 고승의 자취에 금강산이 빠진 적이 있었던가. 아울러 시인 묵객들의 영감이 넘치는 곳 또한 이곳이었음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구비구비 계곡마다 법문 자취요, 속속들이 선승들의 수행 흔적이 그 아름다운 비경속에 함께 살아있는 곳. 과연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며 금강산을 정말로 돌아볼 수 있으려나.

지난해 나는 미국 아이오와대학에서 세계 35개국에서 온 작가들 앞에 서서 민족 분단의 기막힘을 시로 읊으며 온몸으로 운 적이 있다. 모두가 성한 다리로 세계를 활보하는 이 시대에 유독 나 혼자만 허리 잘리운 몰골로 서 있다는 생각에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시를 낭송했었다.

금강경 한구절 독송하듯 금강산서 시 한수 읊고파

너무 조급한 흥분과 기대는 금물이지만 그래도 벌써부터 금강산의 솔바람 소리가 〈금강경〉의 한 구절처럼 내 가슴에 흐르고 있음을 숨길 수 없다.

이 가을, 이 땅의 한 일원으로서 금강산에 가서 세계를 향해 진실로 목이 메게 아름다운 시 한편을 읊고 싶다.

열린마당

사회복지공동모금법

7월1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하 공동모금법) 시행을 둘러싸고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종교계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공동모금'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이 법의 '시행 유보'를 주장하는 반면, 복지부는 강행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조계종,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등으로 이뤄진 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는 6월25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모금법'의 폐지 혹은 시행유보를 촉구했다.

종교계는 지난해 3월 '공동모금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적법성과 시행가능성이 결여된 미비한 입법"이라고 주장해 온 반면, 복지부는 "공동모금법 제정은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10년 숙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공동모금법',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지난 6월25일 열린 한국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회의 기자회견 모습. 〈평화신문 제공〉

비인가 시설 소외…재원 배분 불투명

종서스님 〈조계종 사회국장〉

7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업법과 공동모금법이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사회복지계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배분대상의 범위, 공동모금회 이외의 모금금지, 지역공동모금회의 독립법인화 문제, 정부의 개입문제 등의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공동모금제도는 정부 관련부처 및 민간사회복지단체 그리고 종교복지단체간의 이견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제도의 시행에 따른 준비작업에 많은 차질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크게 요약하면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공동모금을 통한 배분의 문제이다. 공동모금이 실시되면 개별적인 기부금 모금이 금지되고 이로 인해 종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수의 비인가시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공동모금회를 이끌어나갈 전담 기구의 투명성 문제이다. 공동모금 실무업무를 기존의 사회복지단체에 맡길 경우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모금의 분배나 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공동모금회를 별도의 법인으로 할 경우 예산의 증가로 인한 부담, 준비기간의 장기화라는 문제가 있다.

셋째 조성된 기금이 얼마나 공정하게 민간사회복지단체에 전액 전달되는가의 문제이다. 과거 '이웃돕기추진운동본부'에서 조성했던 기금의 배분과정이 불투명했었다는 지적과 함께 현 공동모금법으로는 이를 수정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공동모금법이 나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동모금회와 민간사회복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며 어느 특정단체 또는 행정기구가 리더쉽을 발휘하려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또한 공동모금회에 각계각층의 역량있는 인사를 참여시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는 한편 외국의 사례를 검토·분석·연구하여 기술적인 면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종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수입을 고려할 때 공동모금회를 통한 모금외에도 사찰(성당, 교회 등) 또는 개인 신도를 통한 복지기금을 인정해 주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창구 단일화로 복지성금 효율운영

이상민 〈복지부 복지자원과 사무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따른 '공동모금회'는 국민이 불우이웃을 돕고자 하는 선의를 모아 국민의 뜻대로 집행하는 봉사조직이다. 공동모금회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모금캠페인을 함으로써 모금경비를 절약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복지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시설에 모금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배분의 형평을 기할 수 있다.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지만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다.

첫째, 공동모금회가 공정한 배분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는 점차 보완해 갈 수 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운영을 요하는 공동모금제도를 도입함으로서 불합리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의 배분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로 공동모금을 하면 종교단체의 후원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나 후원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나 공동모금법과 관계가 전혀 없다. 공동모금법이 시행되더라도 종교단체나 개별모금단체는 종전과 같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모금할 필요가 있으면 공동모금회와 똑같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모금을 할 수 있다.

셋째로 공동모금법은 국고로 지원받기 어려운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현행법하에서도 소규모 미인가시설에 대한 공동모금재원의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공동모금회가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려 소규모 시설등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배분기준에 포함하도록 사회복지계가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종교계와 복지계의 의견을 수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공동모금법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공동모금법의 적용범위를 복지관련분야까지 확대하고 △배분에 있어서 소규모시설을 우선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공동모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사회복지를 위한 모금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모금경비의 사용한도를 철폐하는 대신 동 경비사용내역을 공개토록하고 △사회복지를 위한 기부금품에 대하여 전액면세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세면감규제법 등에 반영하는 것 등이다.

공동모금법이란

사회복지 민간참여 확대 국민성금 효율적 관리 유도

지난해 3월 27일 제정된 공동모금법은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법률이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전국 및 지역공동모금회를 설립해 모금사업과 배분을 맡도록 했다.

공동모금법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할 수 있고 △정부의 사회복지 능력에 대한 보완을 통해 '사회복지의 총량'을 확대시킬 수 있다. 또 △공동모금기금의 수혜단체들이 창의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 등이다.

'공동모금제도'는 영국에서 1980년대 민간자선단체들이 상호 경쟁으로 인해 '이중 구호' 또는 '수혜 누락' 등의 비체계적인 민간 복지사업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를 결성하면서 민간차원에서 자선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후 1985년 미국 보스톤에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자선단체들을 돕기위해 순수 민간차원의 사업으로 활성화 되었다.

현재 30여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동모금제도는 공동캠페인을 통해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민간기관들을 위해 기금을 모집하고 배분하는 민간조직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자생적 복지사업 위축 가능성 종교계 법 시행유보 등 촉구

종교계가 공동모금법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까닭은 법의 추진과정이 관주도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복지사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금활동이 전국 및 광역단체별로 이뤄지면 현재 종교계의 자선사업기금이나 개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이 감소될 우려가 짙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상당수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상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인가시설이란 점도 문제다. 공동모금법에 따른 자금지원 대상은 당연히 인가시설에 한정되며, 무료급식소나 지역아동시설 등 소규모 복지시설 등은 제외된다.

종교계는 "현재 절반 정도의 복지시설이 미인가이며, 미인가 중 90%가 종교단체와 관련을 맺고 있는 시설"이라면서 "복지시설의 크기와 운영자의 자격증 유무를 따져 지원대상을 결정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사찰에서 고아 등을 소규모로 보살펴 온 불교계의 경우 미인가시설이 적지 않아 IMF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복지여건이 더욱 열악해 질 전망이다.

종교계는 이밖에도 △공동모금 설립위원 및 임원(종교계는 2인)의 대표성 문제와 △지연·혈연·학연에 의한 불공정 배분 문제 등의 이유로 공동모금법의 시행유보를 주장해 왔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부다피아 쇼핑몰
buddhapia shopping mall

주문방법
전화및 팩스로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L:02-732-1522 / 737-8881, FAX:02-737-0697)

배 송
구매하신 제품은 입금 확인 후, 7일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 *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부다피아 쇼핑몰 사이트 http://mall.buddhapi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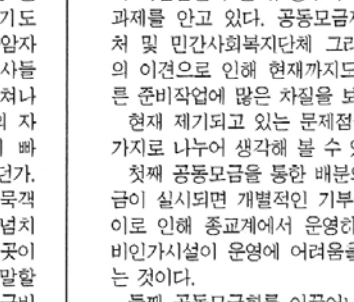

A8-1
금속 수공예 액자
지장보살께서 과거에 모든 부처님 처소에 친히 받으신 흠부다라니(중생의 온갖 지혜, 건강, 재보, 수행력, 수승한 진리 등의 힘을 증진시키는 다라니)를 엄오선생이 일심으로 옮(쓰)하며 수공으로 직접 제작한 작품
재질 : 동
특징 : 수공예 작품
가격 : ₩ 45,000
* 제작상황 주문에 따라 늦어지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불보살의 가피력이 항상 함께 합니다.
늘 마음에 새기면 집중력이 생기고 마음의 안정이되며 불심이 돈독해 집니다.
결혼하는 분에게 신혼하면 부처님의 인연을 맺어 주는 좋은 선물이 됩니다.
현대적 감각에 맞아 집안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한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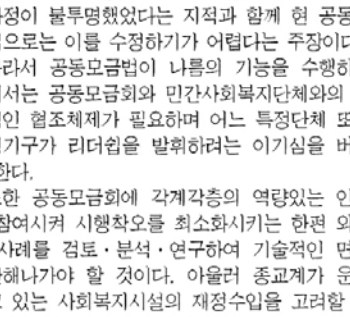

생광석 108염주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일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손목 혹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면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쌓인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가격 : ₩ 3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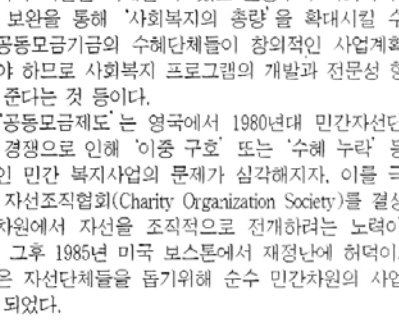

반야심경 향로
청동제품으로 향로 주위에 반야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A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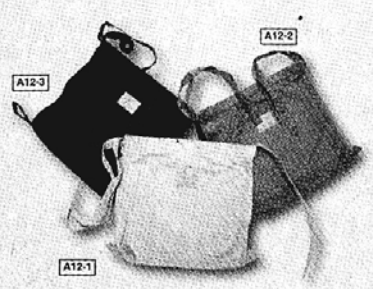

단주 열쇠고리 A9-1
디앙한 칼라 디자인
가격 : 낱개 ₩ 3,000
* 단주염려고리, 반야심 경 중 책갈이 ,반야심경 향로등 별도서 해설 경우 한한 가능합니다
A9-2




A5-2 A5-3 A5-4
A5-1
불교 티셔츠
천진한 동자의 맑은 세상 비쌀기 : 연꽃나팔 등 본지에서 제작한 동자 캐릭터 및 연꽃 문양으로 디자인한 연 티셔츠. 여름 수련대회및 각종 행사용으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며 사람 이름 및 단체명 인쇄가 가능합니다.
가격 : 아동용 ₩ 5,500
성인용 ₩ 6,500
9도 칼라 인쇄


A7-1
대나무 잔
완전 자연산 대나무로 가공한 제품. 대나무 한 마디를 가공 하므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처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차 맛이 일품입니다.
크기 : 9(세로).5-7(지름) ㎝
가격 : 낱개 ₩ 8,000


A10-2
A10-5
A10-6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기도포
대(大) : 가격 ₩ 1,600 기장 84㎝ 폭 39㎝
중(中) : 가격 ₩ 1,500 기장 76㎝ 폭 39㎝
재질 : 면
다포
가격 ₩ 800
기장 50㎝ 폭 39㎝
재질 : 면


A12-2
A12-3
A12-1
법성게 걸망
크기 : 500×450 (㎜)
색상 :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가격 : ₩ 15,000

반야심경 종 차걸이
맑은 종소리가 듭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종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 낱개 ₩ 9,000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자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독송된데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는데, 이 경전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일곱 가지 모진 재난을 피하고, 탐, 진, 치의 삼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이 원만하게 이루어 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족자 색상 : 진녹, 감정 비탕색에 금색 인쇄
크기 : 55㎝(가로) 140㎝(세로)
재질 : 기모지
특징 : 색이 변하지 않음
가격 : ₩ 30,000 (족자걸이 포함)
내부그림



종단소식

조계종

동화사 3사 순례법회

대구 동화사(주지 성덕)는 윤5월을 맞아 3사 순례법회를 실시한다. 이번 3사 순례법회의 순례지는 공주 마곡사, 갑사, 무량사 등이며 동참금은 2만5천원이다. (053)982-0101

금산사 예수재 · 수륙재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는 15일 익산 미륵사지에서 교구 합동 생전예수재 및 수륙재를 봉행한다. 이에앞서 4일 전북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개산 1400주년 김정호 서예전시회를 열었다.

태고종

종단주최 예수재 봉행



총무원(원장 인곡)은 6월 28일 봉원사에서 종정 보성스님, 국민회의 김상현 고문 등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예수시왕생칠재를 봉행했다. 〈사진〉

종단주최로 열린 이날 예수시왕생칠재는 전통의식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인천·경기 사암 주지 및 신도들이 참여했다.

천태종

전국청년회 하계수련회

제17회 전국청년회 하계수련대회가 17~19일 구인사에서 열린다.

중앙청년회(회장 이문수) 주최로 열리는 이번 수련대회는 16일 밤 10시 회원등록을 완료하고 17일 새벽 3시30분부터 예불, 종정예하 친견, 적멸궁 참배, 종회의장 설법, 관음정진, 경내 환경수호활동, 108배 참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연화사 실직자 무료급식

인천 연화사(주지 도정)는 매주 화·목·금요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30분동안 인천 자유공원에서 실직자와 점심 결식 고등학생 4백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한다.

도정스님은 "국가적 경제위기로 실직자와 점심 도시락을 싸 오지 못해 굶는 학생들이 하루에도 수천명씩 양산되고 있다"면서 "자비의 가르침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 실천하는 불제자가 되자"고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진각종

불교방송서 신행상담



통리원(원장 성초)은 10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쳐 불교방송(FM101.9) '종단의 시간'을 통해 신행상담을 한다.

통리원 총무부장 회정정사 〈사진〉가 진행하는 신행상담은 오후 5시10분부터 6시까지 50분간 방송된다. 재방송은 둘째, 셋째주 일요일 오후 6시10분부터 7시까지 방송된다.

진각대학 교화자 교육

진각대학(학장 석봉)은 6월 29~7월3일 1주일간 교화예비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교개론, 종교개론, 불교의학, 불교사, 교전연구, 유식사상, 금강경 등에 대한 강연으로 진행됐다. 교화예비자 교육은 4년간 매달 월초불공 후 1주일 등안 실시된다.

대구진각대학은 14~15일 대구 진각회관에서 교화예비자 교육을 갖는다. 한편, 밀교문화대학은 매월 2회(수·목) 일반신도를 대상으로 밀교강좌를 개설한다. (02)913-0752

총지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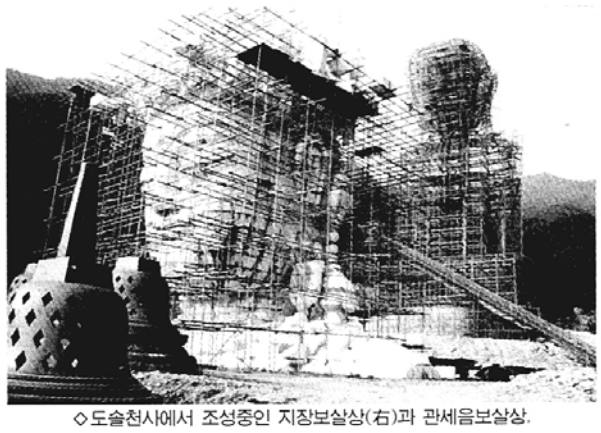
삽교천서 국난극복 법회

총무원(원장서리 법륜)은 6월29일 삽교천에서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원대법회 및 영산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종정 일공스님, 승정원장 보인스님, 종회의장 성관스님, 포교원장 성견스님을 비롯한 1천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는 1부 기원법회, 2부 영산대재로 진행됐다.

기원법회에서는 봉행사에 이어 고불문, 국가경제회복 기원발원문, 호국영령과 상세선망부모왕생극락발원문, 축원문 등이 낭독됐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도솔천사에서 조성중인 지장보살상(右)과 관세음보살상.

세계최대 지장불상 세운다

화악산 도솔천사 74m 높이 내년 완공

한국판 '보로부드르사원'

높이 74m의 세계최대 지장보살상이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넓이 43m, 높이 42m의 한국판 보로부두르사원도 재현되기 시작했다.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산에 소재한 대한불교법화종 도솔천사(주지 신홍)는 내년까지 임야 3만1천5백여평에 이같은 시설을 갖춘 세계최대의 지장성지를 완공할 계획이다. 지장보살상이 제모습을 드러내는 1차 불사가 회향되면 도솔천사는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불교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높이 42m의 중앙열반탑과 도솔천탑 4백32개, 해탈탑 72개로 구성되는 한국판 보로부두르사원은 인도네시아의 이국적인 탑파형태의 사원으로서 납골시설로도 활용된다. 특히 중앙열반탑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타워형 대법당으로 꾸며진다.

8세기 중엽부터 9세기에 걸쳐 인도네시아에서 번영했던 불교왕국인 샤일렌드라(Syailendra)왕조 시대에 건조된 보로부두르사원은 조상숭배와 대승불교에서 가르치는 덕을 쌓기 위해서 당시의 지배자가 건조한 영묘(靈墓)로서 도솔천사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까지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대형불사는 불상조성업체에 외주를 주지 않고 신도10여명이 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 지반 공사에서부터 불상 모형 제작, 철조 구조물 공사 등을 자체기술로 시공하고 있다. 90년도부터 공사에 착공했으며, 지장보살상 조성은 3년전부터 시작했다.

특히 주지 신홍스님이 직접 불사의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감독하고 있어 주변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신홍스님은 내년까지 1차불사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높이 60m의 관세음보살상(현재 두상이 원형크기로 제작된 상태)과 높이 108m의 석가모니불 조성, 그리고 중앙열반탑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불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지 신홍스님은 "현재 경제난 등으로 불사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1세기의 새로운 부처님 성지를 조성한다는 원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방송가소식

천태종 개산 1404년 기념 btn '소백에 뜬달' 방영

불교TV(사장 정우스님)는 천태종 개산 1404주년을 맞아 조선조부터 현재까지 한국 천태종의 세계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소백에 뜬 달'을 10일 오전 11시10분부터 낮 12시까지 방영한다. 이번 프로는 창종주 '상월원각대조사'의 탄생과 열반 등을 드라마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재현했다. 또 천태종의 본산인 단양 구인사와 도심포교의 거점인 서울 관문사 등과 천태종의 신앙관, 사회사업, 포교방식과 수련방법 등도 소개한다.

삼국시대 불교과학 조명 23일 Q채널 '우리과학…'

케이블TV Q채널(ch·25)은 삼국시대 불교유적을 통해 고대인들의 수학적 수준을 가늠해 보는 다큐멘터리 '우리 과학의 원류를 찾아서'를 23일 저녁 8시에 방송한다. 이 프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건축계획에 활용된 경주 불국사와 백제 최대의 가람이었던 익산 미륵사지를 소개한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태고종 충담대종사 소신공양

'색즉시공' 보인 무상설법 남북통일·불법 중흥 발원

지난달 27일 새벽5시 감로사서 결행 조계·태고종 화합 염원

구도자의 죽음은 일생을 바쳐 온 구도행의 가장 빛나는 정점인가.

태고종 승정 충담 원상대종사가 6월27일 새벽 경기도 청평 감로사에서 소신(燒身) 열반했다.(세수 85세 법랍 69세) 무명중생들을 위해 남기는 마지막 가르침을 온 몸을 태워 버리는 결연한 법문으로 남기고 한 줄기 연기로 이승의 인연을 마감 한 충담스님.

"호명산 감로사에 구름과 노닐던/ 이 노승은 본래 서원 성취코자/ 삼보전에 소신공양 올리나니/ 이 인연공덕으로 부처님의 자비은혜를 갚고/ 국태민안하며 불법이 거듭/ 흥륭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물거든/ 다 응당히 주하는 바 없게 하라."

스님은 육신을 불사르는 른 법문과 더불어 짧은 게송을 남김으로 탐욕이 빚어내는 온갖 번뇌의 번거로움 속을 헤매이는 중생들에 대한 한없는 자비를 베풀었다. '남북통일과 중생구제, 불교중흥,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 종식'에 대한 스님의 간절한 염원. 육신을 태우는 고통을 달게 받아들인 스님의 그 결연한 서원을 만다라화로 꽃피우는 일은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29일 청평 감로사에서 엄수된 영결식에서 태고종 종정 덕암스님은 "대종사의 가시는 길이 생사가 둘이 아님과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보여주는 무상의 설법"이라며 모든 후학과 신도들이 그 설법을 뼈속 깊히 아로새기고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결식에 참석한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운제스님(승정) 우담(연수원장) 도성(동방대 총동문회장) 스님을 비롯해 한나라당 불자회 회장 함종한 의원, 승가사 감로사 신도 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은 "온 중생의 번뇌를 태워 버리는 대원행(大願行)을 보이신 충담스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도 육신을 태우는 결기와 절실함으로 부처님 법을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며 흐느꼈다.

스님의 소신열반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5월30일 단오절날 소신을 시도했으나 스님과 신도들이 만류로 실행치 못했으며 6월16일 태고종 승정으로 추대받고 "소신공양을 만류하지 않는다면 승정 추대의사를 받아들이겠다"고 소신공양의 염원을 밝히기도 했었다.

96년 정토삼부경을 주석해 편찬한 〈염불〉의 서문에서도 "나의 몸을 온전히 불태워 부처님께 바치는 소신공양을 통해 분단된 국토에서 헐벗고 괴로운 중생들의 고통을 지고 가겠다. 또한 불교중흥과 불교분규종식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었다. 〈본지 94호 지상법석, 168호 수행한담 참조〉

17세에 출가해 서울 왕십리 승가사에서 수행을 해 오던 충담스님은 이날 새벽5시 감로사에서 참나무 더미에 기름을 붓고 소신공양(燒身供養)했다. 충담스님 문도회는 초재에서 6재까지는 승가사에서, 7재는 감로사에서 봉행키로 하고 감로사에 부도탑을 건립하고 소신한 곳에 기념비를 세울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한줌 재로 남은 충담스님의 법구가 '말 없는 법문'을 들려주는 듯 하다. 원내는 충담스님 생전 모습.

소신공양이란

스스로 온 몸 불태워 삼보에 공양

소신공양(燒身供養)은 말 그대로 스스로 몸을 태워 부처님께 바치는 것으로 부처님 전생이야기에서 설해지고 있다.

소신공양에 대한 불교적 근거는 〈법화경〉 약왕보살본사품 제 23 '일체중생 희견보살'에서 일원정명덕 부처님 회상에서 수행정진할 때 현일체색신삼매(現一切色身三昧)를 증득하여 육신으로 공양함을 서원하고 행유(香油)를 몸에 바르고는 부처님 앞에서 하늘의 보배옷으로 몸을 감아 거기에 향유를 끼얹고 몸을 스스로 태워 공양을 올려 불은(佛恩)에 보답'하는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불교사에서는 소신공양에 대한 의지와 정신을 보인 몇몇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질 뿐.

50여년 전 영도사(지금의 개운사)의 한 노스님이 칠성각 앞에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지펴 소신공양을 시도했으나 그 손상좌가 끌어내려 깊은 화상을 입고 뜻을 펴지 못한 채 열반했다. 일제 때 통도사에서 한 스님이 소신공양을 올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으나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건봉사사적기〉에서도 만일염불에 참여한 31인의 스님과 소신대(燒身臺)에 대한 기록이 있으나 소신을 했다는 얘기는 없다.

60년대에는 반정부 시위를 벌이던 베트남의 광록 스님이 대로상에서 좌선하며 소신해 세계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과 현재 중국 구화산 등에 전하는 4구의 등신불은 소신공양과 다소 차이가 있다. 소신공양은 몸을 태워 형상을 남기지 않지만 등신불은 육신을 그대로 보존하는 '육신불'이기 때문이다.

도필선 기자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혀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절에 비가 샌다

전국 소규모 사찰 · 암자 무방비
법당누수-축대붕괴 등 위험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일부사찰의 법당에 비가 새는 것은 물론 축대 담장 등 붕괴 위험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금년 장마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강풍이 예상되고 있어 적지 않은 수해가 우려되고 있다.

6월 24일부터 북상한 장마전선은 단숨에 1백㎜가 넘는 호우를 쏟아부어 '엘니뇨 장마'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서울 S사의 경우 요사채에 비가 새 5개의 물동이를 곳곳에 받쳐놓는 소동을 벌였다. 경북 S사도 건물의 노후로 10여년전부터 장마철만 되면 '장마와 전쟁'을 치루고 있다. 대웅전 지붕을 비닐로 덮고 페타이어로 강풍에 대비하고 있지만 더이상 안전지대는 아니다. 전남 D사의 나한전은 참배를 못할 정도였다. 이밖에도 노후된 축대와 담장 유실, 산사태 등의 우려가 있는 사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사찰들은 대부분 비닐과 폐타이어, 모래주머니 등으로 지붕을 덮는 응급조치에 머물고 있어 폭우, 강풍 등 돌발적인 상황에는 무방비 상태여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전통사찰이나 규모가 큰 사찰의 경우는 다소 나은 편이지만 소규모의 고찰과 암자의 경우는 장마대비가 상당히 소홀한 실정이다.

누수사찰은 장마철이 1개월밖에 안된다는 안이한 생각과 재정적 어려움을 들어 보수공사를 게을리 해 온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장경각 기와보수불사를 하고 있는 해인사는 경판과 지붕에 2중덮개를 하는 등 수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총장 지하스님은 6월 23일 신축중인 김포학사를 방문 "장마철 수해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노후로 인해 지붕에 비가 새 임시방편으로 비닐로 덮고 모래주머니로 강풍에 대비하고 있는 서울의 한 사찰.

조계종-YMCA-대한성공회-MBC 등
'먹거리나누기운동협' 발족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YMCA, 대한성공회 등은 6월30일 서울 YMCA에서 '먹거리나누기 운동협의회'를 발족시켰다.

'먹거리나누기 운동협의회'는 시민캠페인을 통해 지역내 식품생산·유통업체 및 대형 음식업소의 참여를 유도해 음식공급처를 확보, 음식은행 역할을 할 계획이다. 확보한 음식은 회원단체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수혜조직에 중계하며 음식나눔센터의 시범운영으로 바람직한 운영원칙 및 방식을 공동모색할 방침이다.

이 협의회는 또 종교시설·사회복지기관 등과 함께 시민자원봉사자를 조직, 교육해 범시민적 '사랑과 나눔의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승화시킬 예정이다. 이와함께 음식물 유통기한에 대한 현재의 법·제도 개선 및 외국의 '자선법'과 같은 기부자보호법 제정 등 정책제시 활동도 결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계종 29개 포교사팀 구성

복지 · 직장등 전문화

조계종포교사단(단장 성타스님)은 6월 27~28일 화성신흥사에서 1백30여명의 포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교사 전문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직장, 사찰 분야의 전문포교사팀을 구성했다. 이로써 어린이 교도소 등 분야별로 29개 포교팀이 구성됐다. 특히 장의염불팀이 서울지역에 2팀, 부산 대전지역에 각 1팀이 구성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교사단은 이번 워크숍으로 포교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자평하고 이후 각 포교팀이 실제 가동되도록 지원하는데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포교사단은 8월까지 포교활동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지침서 형태의 포교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종교인협 통일축전준비위 결성

북한주민접촉 신청도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지선스님)는 북한측이 제안하고 정부가 허용한 '8·15 통일대축전' 개최를 위해 4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남측추진본부 준비위원회(이하 통일축전준비위)' 결성식을 가졌다. 통일축전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측과의 사전논의를 위해 6월22일 통일부에 종교인협의회 대표단의 북한 주민접촉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대불청 집행부-지구장 '갈등'

사단법인 정관등록 지구장 의결권 박탈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대)가 6월13일 사단법인 등록을 마쳤으나 현행 회칙과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는 법인정관을 둘러싸고 회장단과 회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회원들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거주하는 회원 7명만이 이사로 선임되고 각 지구장들은 의결권 없는 이사급으로 분류된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회칙에 따르면 이사는 총 43명이며, 각 지구장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인 등록을 도맡아온 대불청 회장단은 올해 1월 열린 총회에서 법인등록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 5월 이사회에서 법인정관 시안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정관 내용이 언급된 기억은 없다" "이미 결정된 법인정관을 회원들에게 추인을 받는 것은 잘못" 등은 법인정관에 얽힌 '중앙'과 '회원'간의 이견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목탁소리

요원한 고시촌 포교

김 중 근 〈취재1부 기자〉

신림동 고시촌이 여전히 포교불모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허리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가는 기분입니다." 지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고시촌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한 고시생의 말이었다. 그러나 두달이 지난 후 그 고시생은 "캄캄한 어둠속에서 길을 찾는 기분이다"고 울먹였다. 고시촌 포교(선교)에서 교계가 처참하게 패배하고 있는 사실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었다. 본지가 고시촌 포교의 심각함을 알리기 위해 지난 4월 29일자(172호)로 '신림동 고시촌 포교 불모지'란 보도를 했지만 교계는 미동도 없었다. 그러나 타종교인들은 불교계의 포교 강화에 대비 높고 강한 방호막을 쳤다. 비상대책회의를 열면서까지 선교활동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선교작전을 구축한 것이다. 개신교단체연합으로 매년 치루는 '고시촌 축제'를 예년보다 확대 실시키로 함은 물론 선교활동이나 기도회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선 것. 불교인들이 절대로 발조차 디디지 못하게 철옹성을 쌓기 위한 선교작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는 '독실한 불자고시준비생 전도하기' 등도 조심스럽게 열치고 있다는 것이 이 지역 불자들의 전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몇몇 불자고시생들은 자비를 들이면서 까지 사무실(8평)을 마련하고 신행활동을 하려하고 있지만 지도법사스님 한명 모시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부처님의 감로법문에 목말라하는 고시생 불자. 이들에겐 특별한 포교활동이 필요치 않다. 다만 관심을 갖고 함께 호흡하면 된다. 특히 불자고시준비생들이 고시에 합격하면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점은 감안한다면 어떤 포교보다 비중이 높다. 그런데 포교를 가장 중차대한 불사라고 외치는 교계는 어디서 누구를 포교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나 더이상 지체하면 고시촌은 '예수천국'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신림동 고시촌불자들의 충고가 긴 여운을 남긴다. 〈gamja@buddhapia.com〉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조계종, 1사찰1학교 자매결연등 추진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가 불교계에서도 발족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스님)은 사회부, 포교원,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자비의 전화와 연계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를 추진하고 있다.

총무원, 파라미타 등은 전국 2만여명에 달하는 불교학생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동본부의 연락처가 담긴 버튼을 배포하고 적극적인 청소년 상담에 나설 계획이다. 상담은 자비의 전화(02-737-7374)를 비롯해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j7378, 나우누리 자비 등 컴퓨터 통신으로도 가능하다.

운동본부는 1사찰 1학교의 자매결연을 통해 체육행사, 야외법회 등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찰별로 주변 학교 불교학생회와 연계해 학교 주변 자율방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운동본부 플래카드 걸기, 경승·검찰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정화활동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운동본부 발대식은 24일부터 열릴 파라미타 연합캠프에서 가질 예정이다.

한편 총무원은 6월29일 직할교구 주지 회의에서 이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각 사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박물관 민영화 '취소'

문화장관, 대통령 보고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추진 실적과 계획' 보고를 통해 국립박물관 등 10대 국립문화기관은 공공성을 고려해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신장관은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바라는 여론을 감안, 대신 △경비·청소·전산·안내업무의 민간위탁 △전문인 경영제 △예술 감독제 도입 등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기석 기자 〈gsyoon@buddhapia.com〉

승가원 횡성 재활농장 숙소 완공

소쩍새 12명 '이주'

승가원(이사장 지하)은 지난 6월23일 횡성종합복지타운내에 재활농장 숙소를 완공하고 소쩍새 마을 가족 12명을 이주시켰다.

2개동으로 분리된 농장숙소는 복지타운 건설을 위한 사무실(A동 26평)과 숙소(B동 60평)로 꾸며졌다. 재활농장장 남도스님과 직원, 가족이 거거할 숙소는 총 7개의 방과 샤워실, 세면장, 식당 등으로 이뤄져 있다.

12명의 가족은 40~50대의 농사경험이 있는 정신지체 2급 등 경미한 장애인들. 농사일을 통해 자연속에서 재활의지를 다진다. 이정근 농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농장장스님을 주축으로 12명의 가족을 도와 8천여평의 농장에서 특용작물 등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게 된다. 김재경 기자

복지 정보센터 설립
정부 최고 1억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종교계가 벌이고 있는 복지·정보지원 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종교계 복지활동정보 지원센터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종교계의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을 16일까지 받아 지원규모를 결정한 뒤 사회복지사업기금 예산편성 및 기금사용계획변경 심의절차를 거친 후 올 하반기부터 지원(최고 1억원)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뉴스 & 뉴스

국제포교사 해외연수

국제포교사 해외연수가 5일부터 11일까지 연등불교국제회관 주관으로 싱가폴에서 실시됐다. 연수에는 4일 국제포교사로 임용된 23명 가운데 박상필 불교방송PD, 이현정 장수연 불교방송아나운서 등 8명이 참가했다. 정성운 기자

전불련 8·15사면 논평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원)은 2일 '8·15 사면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더이상 양심수가 양산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현행법률의 제도개혁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 조건없는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촉구했다. 도필선 기자

금선사 사태 항의법회

금선사사태 수습대책위원회(위원장 정각)는 1일 구덕운동장앞에서 검찰의 금선사 법당 난입에 대한 1차 항의법회를 가졌다. 이날 항의법회는 검찰 청사까지의 가두시위로 이어졌다. 수습대책위는 앞으로 타 지역의 힘을 모으는 항의법회를 지속적으로 벌이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청소년지도교사 수련회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6월26일부터 27일까지 해남 대둔사에서 '부산불교 청소년 지도교사 수련대회'를 가졌다. 이번 수련대회에서는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부산지부 창립을 결의하고 청소년지도교사단을 조직해 청소년조직 활성화를 꾀할 것을 결의했다. 천미희 기자

백혈병 신도 돕기 운동

부산 법연사(주지 조연)가 백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신도 전순옥씨 돕기에 나섰다. 법연사는 2일 서면 르네상스 커피숍에서 '전순옥씨 새생명 찾아주기 하루찻집'을 열어 모금된 1천여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법연사는 앞으로 통장을 개설해 지속적인 모금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대구불교사회복지회(회장 성덕)는 7일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98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는 봉사활동시간 1백시간, 5백시간, 1천시간이 각각 넘는 봉사자에 대한 시상식 등이 열쳐진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혜강스님 가처분신청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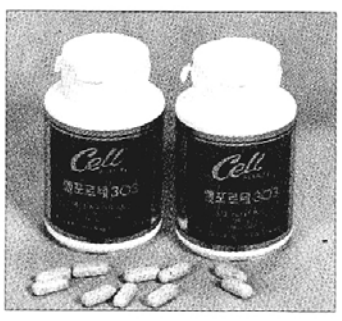
태고종 총무원으로부터 2월23일 세민스님의 순천 선암사 진입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체탈도첩 및 제적징계처분을 받았던 혜강스님 등 10명이 제출한 '권리행사 방해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사건번호 98카합790호)이 순천지방법원에 받아들여졌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뿌리 뽑힌다.

CELL FORTE (셀 포르테)

- 노령에 의한 관절염
-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관절염
- 신경정신 상태로 인한 관절염
- 체중이 무거워서 발생되는 관절염
- 퇴행성 골, 관절염 · 류마티스성 관절염
- 통풍성 관절염등에 대한 멕시코 국립대학의 임상연구 결과 관절염, 관절통, 중풍 기타 염증 등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과 유리기에 의한 신체조직의 파괴, 관절염, 노화 등의 면역기능 강화에 의한 효능이 임상실험 결과 60명을 상대로 98%이상 효과가 입증되었다.



셀 포르테에 대한 석학들의 증언

- 미국 Jame 박사 "**셀 포르테**는 2억 2천 이상되는 미국인들의 관절염을 치유하는데 주목할만한 물질이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 미국 Corade 박사 "**셀 포르테**는 현재 미국을 괴롭히고 있는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변형성 관절염의 치료에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기타 Lowa 대학 및 Wabash 대학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증명
- 셀 포르테는 현재 세계 33개국에 수출중

한달분(180정) ₩220,000 / 2개월분(360정) ₩400,000

사례문

이영래(57세.복싱세계챔피온 트레이너) 본인은 세계챔피온인 문성길, 장정구, 김용강등 많은 권투선수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팔과 어깨, 다리등에 만성신경통과 관절염으로 20여년간 고통을 받으면서 한약과 양약등 좋다는 약은 다 써 보았고 침도 많이 맞아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여 한 때는 지도자의 길을 포기할까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신문광고에서 셀 포르테가 좋다는 광고를 보고 속는 셀치고 2개월분을 구입하여 복용중에 처음에는 진통이 심해서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함께 복용하여야만 했습니다. 약 1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차도가 나타났고 10개월을 계속 복용하고 부터 저의 몸은 정상을 되찾았고 현재는 거짓말처럼 아픈증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세계 챔피온을 만들고져 땀을 흘리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저와같이 고통을 받고있는 많은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저 이 사례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저의 건강을 찾아준 삼천실업에 감사드립니다. ▶ 이영래

청보원 서울:(代)790-8200
본사: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08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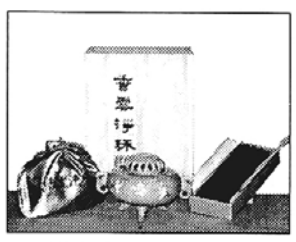
※ 셀 포르테의 자세한 안내 책자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소를 알려 주십시오.

▶ 지방에서 주문시 온라인 주문방법
· 예금주 : 삼천생업
· 농 협 : 394-01-004150
· 우체국 : 100149-0210155
※ 입금후 주소는 전화로 알려주세요.
(등기, 소포우송)

실용신안등록 97-18095



● 1Kg × 5개
● 1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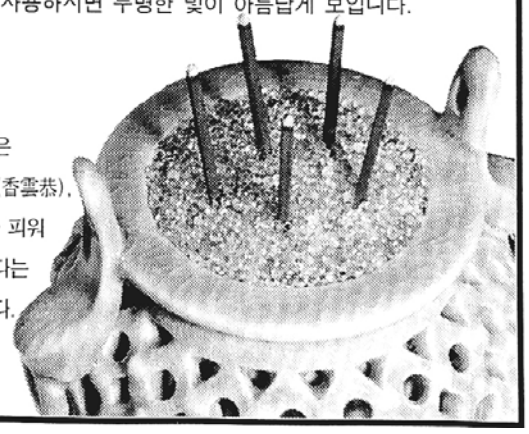
● 향운정주 SET
(향운정주, 청자항로, 고급향)

향로에 넣는 유리구슬 —

향운정주 (香雲淨珠)

향운정주는 순수 유리를 녹여 진원(眞圓)으로 만든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이나 모래를 대체한 제품입니다. 향운정주는 그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향운정주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고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의 방출로 인체에 유익합니다. 또한, 법당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향운"은 향운공(香雲恭), 즉 향을 피워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주식회사 세호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7-30
전화 : (02)272-8886(대)
팩스 : (02)278-6675

전 국 취 급 점 모 집 중

현대불교 98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정토사 약사불 약병들고 염주장식 '특이'

■석불문화연구회 답사

서울 평창동 정토사(주지 설산) 법당 앞마당에 있는 약사여래 부처님은 여느 부처님과 다른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다. 언뜻 보면 인도나 동남아 국가의 불상을 연상케 한다.

이 부처님은 노천에 오래 방치돼 있으면서도 대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머리는 나발에 육계가 유난히 뾰족하게 솟아 있다. 사각진 상호에는 감은 눈과 입술을 작고 가늘게 처리하였지만 살짝 보이는 미소가 자비로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미간에는 백호가 뚜렷이 나타나 있으나 목에 보이는 삼도가 없어 여래불임이 확실하다. 법의는 통견양식이고, 두껍게 처리했으면서도 주름은 세밀하다. 노출된 가슴에는 군의의 매듭이 있는 특징이 있다.

또 손에는 보병(寶甁·약병)을 들고 있어 약사여래로 추정되나 다른 여래상에서 볼 수 없는 염주 목걸이 장식이 특이하다.

대개 부처님은 완벽한 인격체로서 조금의 장식도 없이 그 본래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어 보살과 달리 영락 등의 장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석불좌상인 경우는 약병보다는 약합을 들고 있는 것이 통례인데 이 부처님은 보살상처럼 약병에 목걸이 장식을 하고 있어 일반적인 불상과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전체적으로 어깨와 무릎의 폭이 거의 같은 것과 옷주름이 좌우대칭으로 형식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형식과 조각

보존상태 양호한 편
삼도 없어 여래불 추정
나발에 육계 높이 솟아

기법이 세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선 중기 이후에 조성된 불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토사 주지 설산스님은 "37년전에 내가 이 절로 왔는데 그때도 이 자리에 모셔져 있었다"며 "한 보살이 논바닥에 굴러다니던 부처님을 절로 모셔왔다는 말을 신도들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정리=김원우 · 윤기석 기자
〈wwkim@buddhapia.com〉


◇서울 평창동 정토사 약사불.



담양 미륵골 석불은

고증: 정영호 박사



풍만한 상호 고려초 조성
지방문화재로 손색 없어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미륵골 석불(본지 177호 24면 참조)은 장방형의 광배와 한들로 전면에 돋을 새김한 것인데 양각깊이가 뚜렷하다. 육계는 사발을 엎어놓은 모양으로 그위에 복발형의 옥개를 올려놓았다. 당당한 모습으로 보아 고려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법의는 양쪽 어깨를 통견으로 두줄로 새겼다. 의문(衣紋)은 배 아래가 듬성듬성 마무리돼 있다.

비록 눈이나 콧등 손목을 시멘트로 보수한 흔적이 있으나 상호는 원만하고 풍만한 양감이 주목된다. 지방문화재로 손색이 없다.

〈한국교원대 박물관장〉

돌부처찾기 제보 받습니다 (02)722-4162

IMF 극복 신행수기

부처님의 가피

신현덕 〈수원 장안구 정재동〉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집에서 좀 쉬어야…."

지난 1월, IMF한파가 나에게도 닥쳐왔다. D제약회사에서 부장으로 열심히 일하였고, 오직 한길 제약회사에서만 23년. 앞도 안 쳐다보고 걸어왔던 내가 실직의 아픔을 겪어야 되었다. 올해 대학과 고등학교에 입학한 두 아들에게 한창 학비가 들어가야 할 때인데, 실직이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이었다. 아내에게 알릴 수도 없고 혼자 가슴앓이를 1주일정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숨기려 해도 이젠 기정사실이 되어 버린 일이다. 가족을 모으고 회의를 했다. 가장이 흔들리니 가족들은 더 불안했을 것이다. 모두들 맡은 바 본분을 잘 지키고 열심히 책임을 다하자고 약속을 했다.

평소 명랑하던 얼굴에 수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을 보고 화성 신흥사 주지스님께서 걱정스러워 하셨다. 실직을 한 후 절에 열심히 다녔고 법회와 수련회 때 열과 성의를 다하여 포교에 앞장서왔다. 주지스님과 상담을 하고 1백일 기도를 시작했다. 지성껏 하루에 두 번, 새벽 4시와 밤 9시에 2시간씩 기도를 했다. 일요 가족법회에 참석해서는 봉사를 열심히 하며 우선 마음을 안정시켰다.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저축한 것으로 아껴서 생활을 하다보면 기도가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을 했다.

23년간 다니던 직장 나온 뒤
절망하지 않고 '100일기도'
막노동 한달후 새 직장 얻어

"항상 밝은 마음 밝은 얼굴로 생활하면 부처님께서 모두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는 스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기도에 임했다. 처음 한달 정도 기도를 하며 직장을 찾아 다니기를 10여군데. 그러나 모두 회사사정이 어려운 탓에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나를 위한 자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너무나 많이 걸어서 발에 물집이 생길 정도였다. 그러나 일심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다녔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의 친구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수원 영통지구 모 아파트 현장인데 막노동 일이니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말이다. 물론 하겠다며 즉시 수락을 했다. 아내는 평소 취미로 배워 익혔던 홈패션 솜씨를 살려 봉제공장에 미싱사로 취직을 했다. 두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며, 첫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에 다니고, 둘째는 장학생이 되었다.

처음 해보는 고된 막노동은 군대생활보다 더 힘이 들었다. 땀과 눈물로 속옷까지 다 젖어본 일은 처음이었다. 아파트 현장 일들은 3D직종이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하고 있었다. 하루종일 새벽 6시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과 참 먹는 시간을 빼고도 10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하고 나면 일당이 3만2천원. 저녁에 돌아올 때는 내일 이렇게 아프면 아마 출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고맙게 먹고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 중에 새로운 힘이 쑥쑥 솟아 나는 것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벽기도를 하고, 어제 힘든 것은 잊어버리고 새 기분으로 출근을 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그림 · 문병성

지 83일째, 막노동을 한지 45일이 되는 4월 중순 어느날, 드디어 W제약회사 부장자리에 새롭게 취직이 되었다.

그 기쁨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 부처님께 너무나 감사했다. 아파트 현장에서 받은 월급과 봉제공장에서 받은 아내의 월급을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신흥사로 갔다. "스님! 이 돈은 너무나 힘들게 번 돈이라서 우리가 한푼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불사비로 올리겠습니다. 받아 주세요" 하고 주지스님께 드렸다.

부처님 전에 나의 서원을 고한다. 이 몸 다할 때까지 부처님법을 배우고 행하며 법을 전하는 포교사로서 이 목숨 다 바칠 것을, 세계와 중생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을, 경제불황으로 어려운 모든 기업들이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가피주실 것을.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

역·사·속·으·로·떠·나·는
죽·음·기·행



그대 최후가 그대의 전부이다!
여기 그 죽음을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람회가 있다.
맹란자 여사의 불교, 老莊,
그리고 周易의 여가에 그 일을 해내어
사람들을 한밤중에 깨어나게 하고 있다.

- 신국판/304쪽/정가 7,000원

- 고은 추천사에서 -



저자 : 맹 란 자

- 유명인들의 죽음순간 생생히 묘사-〈한국일보〉 4.15.
- 세계적인 철학자, 예술가 죽음에도 닮은 꼴 있었다-〈뉴스피플〉 4.23.
- 죽음앞에서 더 눈부신 삶 표현-〈경향신문〉4.17.
- 죽음 또한 자연 아닌가/ 장자, 육상산과 왕수인, 소강절과 서화담
- 이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자기 삶을 돌여다보고 내다보게 한다. 따라서 남녀노소 두루 볼 수 있는 가족 필독서-〈현대불교신문〉4.8.
- 동서양 역사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룬 인문교양서다.-〈서울신문〉5.5.

도서출판 세훈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 전화 : 3462-2277 · 팩스 : 3462-2279

지금은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옷을 입읍시다.

우리옷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를 위해
가격에서 거품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단체복주문시 (30인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

▶ 문의처 02)3461-8552~3 (강남)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 02)732-8552